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ollage Art Therapy for the
Migrant Youth



2017년 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왕금미

교육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Collage Art Therapy for the
Migrant Youth



2017년 8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왕 금 미

이 논문을 왕금미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7년 8월

주심 _____ (인)

부심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을 참여 관찰하여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이들의 심리 정서적 변화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사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는 A시 지역 B고 한국어반 중도입국 청소년 4명과 같은 시에 거주하며 이주민센터의 한국어교실에 소속된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심리정서를 살펴보기 위한 도구로 투사검사인 K-HTP 사전·사후검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1장부터 5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자가 본 연구에 대한 동기 및 필요성과 연구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언어와 문화적 소통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안정에 효과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경험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며,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준다는 점, 특히 언어 표현의 한계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매우 적합한 기법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였다. 이 장에서는 미술치료의 이론적 관점인 1)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2)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 3) 인지학적 미술치료, 4) 게슈탈트 미술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의의를 다루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적용한 투사검사와 공간의 상징 및 콜라주 미술치료의 개념 및 역사와 특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인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어려움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erriam(1998)의 사례연구 방법 중 한 연구 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 연구 방법은 하나의 특이한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해 초점을 두어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특정한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례가 갖는 의미를 통찰, 발견, 해석할 때 얻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언어적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이 있는 사례연구는

미술치료라는 공통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연구 참여자마다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연구주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절차의 타당성과 엄격성 확보를 위해 Merriam(1998)의 전략 중 일부를 차용하고, Guba & Lincoln(1982)이 고안한 진실성(truth value), 적합성(fitness),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처리와 연구 윤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4장 연구결과에서 첫째,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현재 심적 상태가 내면의 무의식이 작품에 드러난다는 점을 근거로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콜라주작품의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의 행동과 작품의 이미지, 드러난 이미지의 상징, 형식, 사후질문, 소감, 내용, 색상선택, 매체 선호, 반복된 행동 등 “here and now”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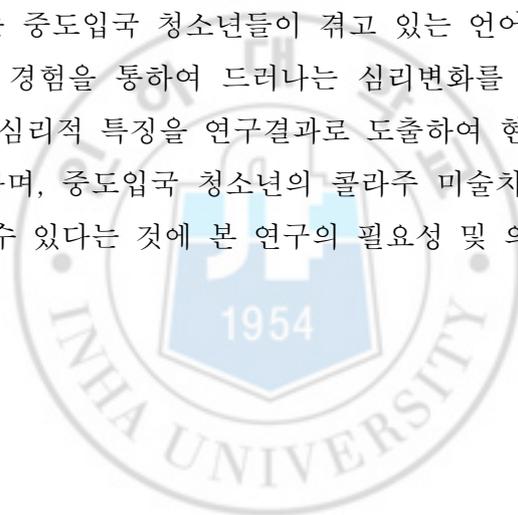
둘째, 참여자 A~G의 개인별 K-HTP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심리변화를 분석하였다. K-HTP 심리변화 분석은 2장에서 언급된 투사검사 분석기준에 따라 상징 및 무의식과 방어기제를 다루어 분석하였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경험과 사전·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집 그림에 대한 이국적 특징은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불안한 정서와 소속감결여의 상징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유아동기에 경험한 모국의 정서와 문화적 배경은 남아있는 미해결 과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족 간의 상호적 역할은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회상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외된 심리사회적인 정서는 가정과 사회적 지지 그리고 콜라주미술치료 프로그램과정에서 치료사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청소년기의 진로방향설정에 및 가치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를 상징하는 나무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 상징된 자아개념이다. 이러한 나무표현에서 강한 방어적 표현과, 반면에 무기력 및 위축된 정서의 자아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이어서 사람표현은 자신에서 가족 또는 또래집단으로 행동적 표현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과정에서 나타난 상징으

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적 소통의 한계에서 오는 소외된 정서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어지는 개별 행동보다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집단무의식발현으로 에너지동력을 얻게 됨으로서 집단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셋째,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난 심리변화 분석내용과, K-HTP 사전·사후검사에서 나타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상관관계를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그림결과의 특징을 기술하고, 투사검사에서의 특이점을 기술하여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4장에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지속적 연구방안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언어소통의 한계를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을 통하여 드러나는 심리변화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변화되는 심리적 특징을 연구결과로 도출하여 현실적응에 대한 사회적응 가능성을 가늠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기초적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가 있다.



목 차

국문 초록	i
목차	v
표 목차	vii
그림 목차	ix
부록 목차	x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동기	4
3.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8
4. 연구동향	10
II. 이론적 배경	14
1. 콜라주 미술치료	14
1.1 미술치료	15
1.2. 투사검사	27
1.3. 공간상징	30
1.4. 콜라주 미술치료	31
2. 중도입국 청소년	41
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해	41
2.2.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	43
3.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46
3.1.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46
3.2.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47

Ⅲ. 연구방법	52
1. 연구개요	52
2. 연구참여자	52
3. 연구절차와 도구	55
3.1. 연구절차	55
3.2. 연구도구	60
4. 자료 수집 및 분석	65
5.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66
Ⅳ. 연구결과	69
1.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변화 사례	69
1.1. 사례 내 분석	69
1.2. 사례 간 분석	124
2. K-HTP 심리변화	126
2.1 사례 내 분석	126
2.2 사례 간 분석	143
3. 회기별 사례와 K-HTP의 상관관계	145
Ⅴ. 결론	148
1. 요약	148
2. 논의 및 제언	150
참고문헌	153
ABSTRACT	169
부 록	173

표 목차

〈표 II-1〉 초·중·고 다문화학생 현황	42
〈표 III-1〉 연구참여자의 특성	53
〈표 III-2〉 연구절차	56
〈표 III-3〉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57
〈표 III-4〉 콜라주분석기준	61
〈표 III-5〉 K-HTP그림검사의 해석을 위한 매슬로우의 발달모형	63
〈표 III-6〉 K-HTP의 해석 기준	64
〈표 IV-1〉 참여자 A의 초기단계 사례	70
〈표 IV-2〉 참여자 A의 중기단계 사례	72
〈표 IV-3〉 참여자 A의 후기단계 사례	73
〈표 IV-4〉 참여자 A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76
〈표 IV-5〉 참여자 B의 초기단계 사례	79
〈표 IV-6〉 참여자 B의 중기단계 사례	80
〈표 IV-7〉 참여자 B의 후기단계 사례	82
〈표 IV-8〉 참여자 B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85
〈표 IV-9〉 참여자 C의 초기단계 사례	87
〈표 IV-10〉 참여자 C의 중기단계 사례	88
〈표 IV-11〉 참여자 C의 후기단계 사례	89
〈표 IV-12〉 참여자 C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92
〈표 IV-13〉 참여자 D의 초기단계 사례	94
〈표 IV-14〉 참여자 D의 중기단계 사례	95
〈표 IV-15〉 참여자 D의 후기단계 사례	97
〈표 IV-16〉 참여자 D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100

〈표 IV-17〉	참여자 E의 초기단계 사례	102
〈표 IV-18〉	참여자 E의 중기단계 사례	103
〈표 IV-19〉	참여자 E의 후기단계 사례	105
〈표 IV-20〉	참여자 E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107
〈표 IV-21〉	참여자 F의 초기단계 사례	109
〈표 IV-22〉	참여자 F의 중기단계 사례	110
〈표 IV-23〉	참여자 F의 후기단계 사례	111
〈표 IV-24〉	참여자 F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113
〈표 IV-25〉	참여자 G의 초기단계 사례	115
〈표 IV-26〉	참여자 G의 중기단계 사례	116
〈표 IV-27〉	참여자 G의 후기단계 사례	117
〈표 IV-28〉	참여자 G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119
〈표 IV-29〉	참여자 A~G의 미술치료이론 적용분석 결과	121
〈표 IV-30〉	참여자들의 단계별 심리·정서변화	124
〈표 IV-31〉	참여자 A~G의 KHTP 사전·사후변화: 번스의 해석기준적용	141
〈표 IV-32〉	참여자 국적별 KHTP 사전·사후변화 특징	144
〈표 IV-33〉	회기별 사례와 KHTP의 상관관계	145

그림 목차

[그림 II-1] Pulver의 십자축에 의한 공간상징	31
[그림 II-2] Michel의 공간상징	32
[그림 III-1]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과정	60
[그림 IV-1] 참여자 A의 10회기 작품	77
[그림 IV-2] 참여자 B의 10회기 작품	86
[그림 IV-3] 참여자 C의 10회기 작품	93
[그림 IV-4] 참여자 D의 10회기 작품	101
[그림 IV-5] 참여자 E의 10회기 작품	108
[그림 IV-6] 참여자 F의 10회기 작품	114
[그림 IV-7] 참여자 G의 10회기 작품	120
[그림 IV-8] 참여자 A의 K-HTP 사전·사후 사례	127
[그림 IV-9] 참여자 B의 K-HTP 사전·사후 사례	129
[그림 IV-10] 참여자 C의 K-HTP 사전·사후 사례	131
[그림 IV-11] 참여자 D의 K-HTP 사전·사후 사례	134
[그림 IV-12] 참여자 E의 K-HTP 사전·사후 사례	136
[그림 IV-13] 참여자 F의 K-HTP 사전·사후 사례	138
[그림 IV-14] 참여자 G의 K-HTP 사전·사후 사례	139

부록 목차

〈부록 1〉 연구참여 설명서	173
〈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194
〈부록 3〉 회기별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98
〈부록 4〉 참여자 회기별 작품	21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21세기를 맞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활발한 초국적 교류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종과 다민족 유입의 증가는 우리사회를 전반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정부에게 다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사회는 급격히 빠른 경제성장과 높은 교육의식 및 문화, 예술, 드라마, K-pop과 교육, 복지, 의료, 문화적 콘텐츠 등으로 인해 위상이 국제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은 우리사회의 급격한 성장과정결과로 최저의 출산율과 함께 중·장년층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사회적 인구구조 변화는 3D업종기피 및 생산인구 감소로 생산직 노동자들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고, 이에 정부는 1991년 10월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라,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 20,000명을 도입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고 근로조건 등 체류에 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최홍엽, 1997). 이 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8월 ‘고용허가제’(유경준·이규용, 2009)로 도입되어 산업발전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최저의 출생률과 노령화사회 진입으로 생산인구 감소에 처한 한국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현상에 대한 관심을 정부와 국민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을 사회 곳곳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7, 04)에 따르면, 현재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24,813명이며, 전년(2016, 04) 1,972,580명에 비해서 2.6%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17년 4월 153,672명으로, 전년 2016년 4월 151,978명 대비 1.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다문화가정 자녀

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는 99,186명(교육부, 2016)으로 지난해 82,806명(교육부, 2015)에 비해 1.68%증가하였다(교육부, 2017, 01).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약 11만 6천명(58.8%), 초등학생이 61,625명(31.2%), 중고생이 19,857명(10.0%)으로 향후 학령기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행자부, 2016). 또한 제도권 안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7,418명(교육부, 2016)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다문화학생 현황(2016)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령기자녀들의 진학은 초등 74,024명, 중등 15,105명, 고등 10,057명으로 진학률은 매우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이는 상당수의 학령기자녀가 학교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결혼이민자 증가로 이어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진학률에서 보았듯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려운 과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인배우자와 재혼한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재혼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는 본국에서 성장한 자녀를 학령기가 되어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입국 초기에 체류신분의 불안정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제도권 밖의 학교로 떠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들의 일부는 설상가상으로 교육기회의 배제로 인해 청소년기의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제도권의 교육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언어차이로 인해 학업 중단과 자신감결여, 심리·정서적 불안으로 또래집단에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친모와 함께 살기위해 새롭게 구성된 가족과의 관계형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은 가정의 해체와 재결합, 오랜 이별 등으로 친모와의 소통단절을 경험하는 등 정서적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습득 및 학습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개별화 및 수준별 학습 방법 및 한국어습득 기회의 배제에 따른 언어장벽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 10명 가운데 3명은 외모나 언어문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러한 30% 정도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업포기로 인해 이들은 우리 사회의

관심 밖에 놓여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대열에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단순한 외국인 혐오와 차별 그리고 사회적 비용 등으로 인한 부정적 시각으로 이들을 방치한다면, 차후 한국사회의 생활부적응으로 인해 조직격차에 따른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 더 큰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위축된 심리정서에 따른 불안은 가정이나 사회의 내제된 불만표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학교와 가정 내에서 겪어야 하는 심리적 위축감과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정서를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심리상담 치료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김명정, 2011).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중 언어능력과 모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중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주어, 글로벌 시대에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잘 정착하도록 교육기회와 심리 정서적 차원의 심리치료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김나연, 2015).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사회이탈을 예방하고 세계시민사회 일원으로 손색없는 시민으로 자라게 할 책임을 우리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된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기회와 심리·정서발달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이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경험 과정에서 위축된 자신의 내면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자신의 욕구표현의 결과가 원치 않는 그림으로 보여 졌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심리·정서적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는 시도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가 언어적 제한성을 안고 있는 그들의 작품에서 어떠한 심리·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콜라주 미술치료 작품에서 나타난 심리변화를 근거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긍정적 심리변화를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중 콜라주 미술치료의 필요성 및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고자 한다.

2. 연구동기

연구자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현장인 화실이라는 미술교육공간 안에서 아동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미술교육활동 중 아동들의 그림 속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것에 늘 호기심이 있었다. 화실에 오는 아이들은 청소년기의 연구자처럼 화가를 지망하고 있는 꼬마 화가들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분야와 그림을 가르치는 분야가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술을 전공한 후, 화실 운영 중 교육학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에 유아교육학에서 교육학사와 교사자격을 취득하여, 그림실기 지도하는 입장에서 미술교육가로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아동미술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자는 아이들이 경험한 것과 보고 느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에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방과 후에 화실로 달려오는 아이들은 할 말이 많았던지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날에 매우 화가 났던 사건, 기분이 좋았던 일 등 친구들과 하지 못했던 마음 속 이야기들을 맞장구치는 화실 선생님인 연구자에게 한바탕 풀어놓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들이었다.

그러던 중 이야기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숨씨도 뛰어나며 미소를 가득 품고 밝은 표정을 한 남자아이가 그날따라 말이 없고 그림도 꼬적거리는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었다.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께 기다려 주면서 “괜찮아” “그림은 잘 되는 날도 있고, 그리기 싫은 날도 있는 거야.”, “오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선생님과 간식이

나 먹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없는 동안에 나에게로 오더니 “우리 엄마와 아빠가 이혼 한대요”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연구자는 그 아이가 끄적거렸던 그림을 다시 펼쳐서 자세히 보고 “아.... 마음이 참 힘들었겠구나.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진짜로 그런 건 아니야.”라고 위로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당황하고 있었다. 어쩌면 나도 어릴 적 가졌던 불안요소를 드러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날 그 아이 엄마가 방문을 했을 때, 엄마의 외적 태도는 너무도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지만 아이의 심정에는 무관심하게 보였다.

Cathy A. Malchiodi(1999)는 아동미술작품은 아동들의 심층심리를 알 수 있고, 심리적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며, 아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치료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김동연 외 공역, 2004).

그때 이후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교육인가? 아님 치료인가? 라는 고민과 물음은 연구자를 미술치료라는 학문에 깊이 빠지게 하는 충분한 이유와 명분을 제시해 주었다.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인 「보호관찰소비행청소년집단미술치료사례연구」(2005)는 미술교육가에서 미술치료사로서의 첫 결실을 맺게 한 연구였다. 연구자는 이 석사논문을 통해 비로소 미술치료사수련과정(유·아동, 청소년, 성인, 치매노인,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소외된 장애, 범죄소년 등)을 임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상별 임상 경험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한발 한발 내딛어 온 십여 년의 임상 이었다. 마침내 수련감독 지도교수의 스승인 독일 뮌헨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수련기회가 주어졌다. 본 연구자는 마침내 독일에서 정신분석가이자 미술치료사인 Gisela Schmeer 교수의 사사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2007). 독일 정신분석관점에서의 미술치료수련과정은 또 하나의 뜻 깊은 경험이었으며, 미술치료사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 이어서 드레스덴 대학원 미술치료전공과장인 Doris Titze 교수의 무의식 공명 작업은 또 다른 미술치료의 세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 각국의 미술치료사들과 함께 한 수업은 동서양의 서로 다름을 공존할 수 있는 경이로운 경험이 되었다. 또한 국내임상 중 서울 S병원 정신병동의 폐쇄병동에서의 정신분열(조현병)환자 미술치료임상과정과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갖는 토론세미나는 치

료사로서의 자질과 완성도를 자가 점검하는 수련 과정이었다. 토론 과정에서 동료치료사들은 연구자에게 칭찬과 함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러한 칭찬은 연구자를 치료회기에서 내담자의 호소와 그림과정에 심층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러한 모든 임상경험과 수련과정을 치료사에게 필수적이며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2004년도부터 담당하게 된 청소년(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대상자와 촉법소년, 학교부적응 반항장애청소년의 대안교실 특별교육)프로그램과 학교폭력가해자 법적보호자의 특별교육, 대상의 미술치료프로그램이 사회적 소외계층의 임상 대상이 되었으며, 그에 따른 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하나로, 학교폭력예방, 자살예방상담, 효과적인부모역할교육, 치매노인우울, 교사 직무연수 등, 대상별로 필요로 하는 치료사의 역량강화 교육이수를 하였다. 이 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2011년 인천 N교육청 소속 과견강사로 이주민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집단 미술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매체에서 말로만 듣던 다문화라는 계층의 이국적인 정서가 묻어남 그들의 그림에서 연구자는 다시 한 번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비주류인 사회적 소수자의 과생된 심리·사회적 현상을 미술치료임상으로 심층 연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연구로는 2012년 경기도 M대안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의 활동사례와 경기도 O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촉법소년 선도프로그램 “다시 꿈꾸는 나무”, 그리고 특별교육, 사랑의 교실 등 정서적으로 소외된 우리사회 청소년 심리·정서 프로그램들이 있다. 또한 소외계층 중 독거노인 미술치료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내담자들의 프로그램 거부하는 현장경험을 가진 연구자에게 표현매체에 대한 연구를 대상별로 연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표현매체 작업인 콜라주표현 임상결과에서 내담자의 성취도와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는 양윤정(2012)의 논문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의 효과’에서 나타났듯이,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내면의 통찰과 자아인식이 현실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기별 작

품에서도 높은 완성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자는 심층적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연구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온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 임상에서 나타난 그림에서 고향에 두고 온 또 다른 가족에 대한 회상 등의 내용과, 이국적 문화배경의 많은 자아표현을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의 호소내용에서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의 내재된 감정표현은 그림과 조형활동 과정에서 치유라는 변화를 가져왔으며, 연구자의 공감을 끌어냈다. 좀 더 나아가 직감적 통찰 범위 안에서 역동은 집단 안에서 함께 하는 그들의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표현은 미술치료 결과로서 그들에게 영속성을 주었고, 성취감으로 다가가게 해주었다. 이어서 그들의 소감문과 자아탐색 과정에서 보았듯이 내담자들의 희열과 해소를 안겨다 주었다. 특히 콜라주 미술치료 활동은 더욱 더 그러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지속적인 다문화가족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심층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내면의 소통을 다양한 조형매체를 통하여 표현하도록 콜라주 매체연구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은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기에 심리·정서적 발달과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이 심리·정서에 어떠한 변화와 의미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관심은 연구자를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언어와 문화적 소통의 한계 및 재혼한 어머니와의 가정 내 미묘한 심리·정서갈등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또한 미주유럽에서 발생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언어적 소통한계와 문화부적응에 따른 정신적 행동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내적 긴장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응능력과 회복가능성은 교육심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콜라주 작업 활동이 갖고 있는 무의식 요소와 자신의 내면 방어가 가능한 심상을 작업과정의 작품 결과로 나타내기 때문에 참여자의 높은 성취감과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언어와 문화적응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 능력과, 이들의 사회적 스트레스의 회복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과정에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와 K-HTP를 통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변화를 작품내용에서 도출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K-HTP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며,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는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K-HTP 사전·사후 검사에서 심리·정서적인 변화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연구문제 1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작품에서 나타난 심리·정서적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서 나타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변화를 토대로 연구문제 2에서는 투사검사인 K-HTP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이들의 심리·정서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 및 필요성과 연구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언어와 문화적 소통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며,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언어 표현의 한계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매우 적합한 자기표현 기법이라는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였다. 이 장에서는 미술치료의 이론적 관점인 1)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2)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 3)인지학적 미술치료, 4) 게슈탈트 미술치료 이론의 태동배경과 의의를 다루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적용한 투사검사와 공간상징 및 콜라주 미술치료의 개념 및 역사와 특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인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현실적응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그 중 한 유형인 사례연구방법이다.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 그리고 특정한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례가 갖는 의미를 통찰, 발견, 해석할 때 얻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특성이 있는 사례연구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술치료라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연구 참여자마다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연구주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절차의 타당성과 엄격성 확보를 위해 Merriam(1998)의 전략 중 일부를 차용하고, Guba & Lincoln(1982)이 고안한 진실성(truth value), 적합성(fitness),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처리와 연구 윤리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4장 1절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현재 심적 상태가 내면의 무의식이 작품에 드러난다는 점을 근거로 다루었다. 연구 참여자별로 콜라주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작품에 드러난 형식, 내용, 색상선택, 매체 선호, 반복된 행동, 그림상징, 사후질문

(PDI), 소감, 발표 내용 등의 “here and now”의 통합적인 관점과 무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장 2절에서는 연구 참여자 A~G의 개인별 K-HTP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변화과정 및 변화요인을 고찰하였다. 사전검사 및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그림검사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전·사후 변화를 2장에서 기술한 미술치료이론과 공간상징 및 투사검사의 분석기준요소에 의해 분석하였다.

5장 결론에서는 4장에서 도출한 연구결과의 의의를 논의하면서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하여 다루었다.

4. 연구동향

미술활동은 미술치료 연구에서 카타르시스를 주거나 감각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 이외에 내적 갈등을 승화시킴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아의 힘이 강조된다(주리에, 2014). 특히, 콜라주 기법은 잡지를 보며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자기감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고 선택자로서의 주체성은 자발성, 자기표현, 자기개방을 촉진한다고 하였다(이은주, 2008). 이렇듯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는 콜라주 미술치료가 집단의 역동성과 만나면서 상승적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과정에서 발현되는 효과는 콜라주를 매체로한 치유과정이 집단원간에 상호교류 중 의사소통 및 상호관계를 촉진시키며, 집단의 역동성이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단원이 부적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을 관찰하여 해결과 학습이 되어가는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이근매, 아오키, 2014).

이렇게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최근 특정 집단이나 또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집단미술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드러나는 욕구를 표출과정과 이에 따른 통찰과정으로 자신을 승화함으로써

긍정적 자기인식과 자신의 자발적 통제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몇몇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내적 통제성 향상을 위한 연구(김진주, 고정자, 2010),에서 콜라주 기법을 적용하였고,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기탐색을 통한 자기통찰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백양희, 2013)를 살펴보면 4회기 5회기 7회기에서 콜라주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면을 통해 투사하는 연구(이정원, 2013)에서 콜라주 작품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여 충동성을 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어 콜라주 기법을 적용한 연구 중 장애형제자매를 둔 비장애아동의 자아탄력성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타인과 갈등을 탐색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는데 유용하다(이향숙, 최은, 2013)고 하였다.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회기에 걸쳐 콜라주 기법을 적용(이현주, 2012)한 연구에서는 가족, 학교, 사회관계 속에서의 자아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자아존중감과 내적 통제감 향상을 위한 가족미술치료 프로그램연구에서 8회기에 콜라주 기법을 적용(김현자, 2006)한 ‘멋진 우리가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의사소통 촉진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콜라주 미술치료연구와 함께 콜라주 반응특성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콜라주 반응특성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격유형에 따른 콜라주 반응특성의 상관연구를 통해 아동의 기질적 성격유형에 따라 콜라주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르게 표현된다고 하였다(홍순이, 2007). 이는 일반아동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에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연구사례이며, 개별적 발달면에서 아동에게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잘못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콜라주 표현에 대한 학년별 형식 특성 분석연구에서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였다(이근매, 2009). 이 연구에서는 공간구성, 사진 사용방식, 조화성의 세 가지 영역에서 12개의 형식 분석의 항목을 체크하고 학년별 표현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틀은 초등학생 학년별 콜라주 형식적 표현을 체계화함으로써 콜라주를 통한 아동의 심리진단 평가에 있어 오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비교연구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교부적응 아동 60명과 일반 아동 60명을 대상으로 콜라주 반응특성을 비교 연구한 결과, 형식 분석에 있어서

학교부적응 아동이 특정 부분에 공백을 두어 표현하는 비율이 높고 통합성 영역에서 불균형을 보인다고 하였다(유연옥, 2009).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학교부적응 아동의 선별에 있어 보조수단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설미정, 이근매, 2011)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김민경, 2011)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콜라주 미술치료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위축된 심리정서를 지닌 아동 청소년의 불안한 행동은 콜라주 미술치료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욕구표출을 원하는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다. 또한 창의적이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콜라주 제작 활동과정에서 내담자의 원활한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내담자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향상으로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양윤정, 2012). 이처럼 콜라주 미술치료는 국적, 나이, 성별, 인종, 장애, 등과 상관없이 제작과정 그 자체로서 심미적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완성된 작품 결과물에서 작품의 만족도를 높게 지니게 되어 내담자의 심리적 치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즉,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타 문화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상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콜라주 미술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및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증진을 위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김정옥, 2015) 연구 결과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탄력 향상,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력, 공감과 수용력에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회기가 진행될수록 작품 활동에 집중하는 행동 변화를 나타내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의 경우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와 섬유매체를 활용한 연구에서 낮은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자아 정체감, 억눌린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데 활용되었다(곽승주, 전순영, 2013; 임선숙, 전순영,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그리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는 잡지 및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및 오브제 표현으로 방어가 적은 콜라주 기법의 장점을 활용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또한 K-HTP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변화를 작품에서 도출하여 사례 분석을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콜라주 미술치료

이 장에서는 미술치료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영역 및 분야를 다루면서 미술치료의 이론적 관점인 1)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2)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 3)인지학적 미술치료, 4) 게슈탈트 미술치료 이론의 태동배경과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적용한 투사검사와 공간상징 및 콜라주 미술치료의 개념 및 역사와 특성을 언급하였다.

미술치료에서 Freud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을 활용하여 무의식의 원인을 찾아내어 내담자 치유과정을 소통으로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미술심리치료 방법에 접근하였다. 또한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는 Jung의 집단무의식을 다루어 명상 및 만다라를 심리치료연구에 적용하였다. Steiner는 Pormen을 포함하여 심리치료의 한 분야인 미술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미술치료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통합을 강조하는 게슈탈트 미술치료 접근은 내담자의 시각적 메시지에서 내담자의 욕구지각과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재활시키는 과정으로 다루었다.

콜라주 미술치료연구에 있어서 미술치료 프로그램경험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사후검사인 투사검사를 그림진단에 적용하였다. 이는 K-HTP검사로서 개인의 지각 및 성격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다.

공간상징으로는 Pulver의 십자축 구도에 의한 공간상징과 Michel의 공간상징을 기준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인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현실적응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콜라주미술치료는 과정 중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표출되고 작품 활동 자체로서의 치유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1.1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자기이해, 자아수용, 통찰, 승화에 의해 개인이 자신의 갈등을 조절하고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신의 내면성장을 촉진시키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Ulman이 “Bulletin of Art Therapy”라는 창간호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교육, 정신치료, 재활, 여가, 등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술치료를 연구해온 초기의 연구자들인 Naumburg, Kramer, Ulman은 미술치료 이론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Naumburg는 치료적 입장을 중시하여 치료에서의 미술(Art in therapy)로서 미술치료를 바라보았다(정여주, 2010).

이 입장은 미술작품을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서 전달된 상징적 회화라고 보는 것으로 치료사와 내담자 간의 치료적 관계 형성 등을 중시하였다. Kramer는 미술을 중시하여 치료로서의 미술(Art as therapy)이라는 관점으로 미술치료를 바라보았다. 이는 미술의 행위가 갖는 창작활동과정 속에는 인간에게 치유적인 능력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내담자는 미술작업과정에서 자신의 원시적 충동을 재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고 승화하는 통합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Ulman은 그림을 치료의 매체로 이용하는 것과 조형적 창작활동 그 자체가 치료(Art in and as therapy)는 용어를 모두 포함한다는 두 가지 견해를 통합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치료라는 분야는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적 관점으로 융합된 분야이자, 통합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Art Therapy)는 예술치료의 한 분야로 인간의 심리를 치료하는 미술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무의식적인 갈등, 정신적인 역동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미술치료는 모든 시각 매체를 사용하여 인간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줌으로써 인격을 통합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Kramer, 1971). 이와 같은 관점에서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개념의 융합에 근거하고 있다. 미술치료활동의 일차적 목적은 치료가 되어야 하고, 그 안에는 치

료과정과 진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술치료가 궁극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술작업을 통해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는, 미술치료는 질병에 초점을 두기도 하며, 개인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개발하는 자기경험과 자기 본성을 회복할 기회를 재발견하고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이근매, 2008; 정여주, 2010).

따라서 미술치료는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미술작업 활동에서, 그림, 조소, 디자인, 콜라주, 투사검사 기법 등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미술치료는 회화 및 조형매체 등으로 음악, 놀이, 무용, 드라마 등을 활용한 예술치료의 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미술치료는 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예술치료,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활동이 융합된 새로운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다(이근매, 2006).

1.1.1 미술치료의 특성

미술치료는 느낌, 생각, 상상과 같은 자신의 내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이현숙, 2011). ‘치료’는 “주의를 기울이다(‘therapia’)”처럼 개인과 집단의 관심을 갖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미술치료는 창작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원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이다(양윤정, 2013). 그래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생각이나 소망,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표현을 쉽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안형관 외, 2005)

미술치료에서의 미술매체는 방어를 감소시키며 자신을 드러내는데 저항감을 줄여준다. 또한 회화, 조형 작업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도, 감정, 느낌 그리고 생각과 접촉을 하는 과정은 자신의 감정을 원만하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무의식에 내재된 억압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며, 함께하는 집 단원들을 과하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자신의 의도를 나타

낼 수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집 단원들의 내면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과 동시에 갈등을 재 경험하고 자기인식과 수용과정에서 자기 통찰로 이어지는 자발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집단원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유발시키고 집단 간의 개인차와 보편성을 쉽게 인식하게 하며,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시킨다(김동연 외, 199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술치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다(Wedeson, 1980). 말이란 형태를 취하기 전에 이미 심상으로 사고한다고 볼 수 있다. 심상형성에서 삶의 초기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 심상이 나아가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미술은 방어가 감소된다.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언어보다 이성의 통제를 덜 받아 방어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했던 표현이 미술작품에 나타나며 창작자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미술은 구체물이 형성된다. 넷째, 자료의 영속성을 들 수 있다. 내담자가 만든 자신의 작품을 필요할 시기에 재검토하여 새로운 통찰과 함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섯째,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 여섯째, 미술은 신체적 에너지와 창조성을 유발한다.

1.1.2 집단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의 매체가 되는 미술은 집단원 각자의 내면에 내재된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과정을 돕고, 비언어적소통으로 감정의 위기를 피해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집단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시킬 수 있다. 또한 카타르시스 효과와 함께 감정교류의 조정역할을 한다. 집단원들은 활동과정에서 미술작품의 설명으로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발견하게 되며, 미술작품에 부여한 의미를 자기 자신의 창작 과정에 집중하고 집단원의 반응에 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미술치료는 각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집단내에 집단원으로서의 개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이미지를 작품으로 시각화하여 자신의 정신세계 및 추구 방향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표현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원내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를 다양한 관점

에서 대응방식과 문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데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상호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나아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예비훈련을 해 나가기에 효율적이다(이현숙, 2011). 단 미술치료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 간의 위기 상황이나 전문적인 통찰과 이해가 필요한 시기에는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박선화, 2007). 집단미술치료는 집단 활동 과정에서 미술매체의 선택이나 색상의 선택,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집단 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전미향, 1998).

Yalom(1995)에 따르면, 효과적인 치료 집단은 참여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통해 상호작용 과정의 초점을 조화시킴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부적응적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김용환, 2003) 해 주는 것이다.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성향이 높다고 보고된 시설 아동청소년들이 집단 미술치료를 받음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우울 성향을 낮출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 및 하위척도 등 네 가지 사항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최은희 외, 2005). 또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습부진대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김말분 외, 2005).

이와 같이 집단에서 미술활동을 사용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은 각자의 수준에서 집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집단미술치료 활동은 과정이 중요하고 저항 없이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난화(급적거림)와 같은 기법은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써 집단에 풍부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미술표현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한 표현방법으로 또 다른 중요한 통로다. 또한 그림에서 제시되는 공간적 특징은 다양한 경험을 표현해 준다. 셋째, 미술은 창조성을 용이하게 한다. 집단활동과정 중에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미술 매체를 통해 심미적 창의표현은 다양하고 무한한 창조성으로 가치 있는 활동작업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넷째, 미술은 무의식과 환상을 다루는데 유용하며, 방법적 매

체이다. 미술은 의식적인 자신의 것 뿐 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을 표현하므로 자신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환상이나 무의식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쉽게 다가가며 이해하게 된다. 다섯째, 미술작품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구체적인 유형물이 남는 영속성이 있으며 시간을 두고 탐색할 수 있다. 여섯째, 미술활동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집단 내에서 상호적 즐거움을 공유하게 한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그림이나 조형물로써, 표현하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은 흥미가 유발되며, 이는 집단원간에 공유할 관심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요소는 집단 집단작업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집단의 경험을 통합하는 요소로 개인을 집단내에 공유하게 한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는 미술을 매체로 하여 문제해결에 필요한 태도와 자기 관리능력을 습득하고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켜주는데 그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살려 집단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정여주, 2008). 첫째, 정서영역에 효과가 있다. 갈등과 욕구와 소망들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억제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정서적 정화를 경험한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 자율성과 자기수용력을 갖게 되며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심리적 긴장감을 이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둘째, 인지영역에 효과가 있다. 기억력을 자극하고 활성화하여 자기인식과 자기고찰의 기회를 갖는다.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비판능력과 갈등에 대한 문제해결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미술재료 사용 및 기법으로 현실감과 색채감각, 형태 및 공간 감각이 유지되고 환경과 사물에 대한 민감성이 유지된다(서영희, 2008). 셋째, 감각 및 운동영역의 효과가 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등 자극에 대한 반응과 감각의 협응이 향상된다.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기능의 활성화와 미술도구나 재료사용에 대한 통제력이 증가한다(김은숙, 2010). 넷째, 심리·사회영역에 효과가 있다. 집단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되고 타인과 환경에 대한 수용력과 이해력이 확대되며 삶의 경험을 나누고 공동체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성이 함양된다(김은숙, 2010).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원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거나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므로 고립감과 외로움이 감소될 수 있다(임형

정, 2009). 이처럼 스트레스를 홀로 느낄 때보다는 동일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훨씬 수월하게 극복한다(이경희, 1995). 이와 같이 집단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통한 흥미 유발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재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형활동 과정에서 유발되는 감정과 창조적 에너지는 자기표현을 증가시키며 이는 곧 집단의 역동으로 작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갈등문제를 조절하고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의 개념은 그림작품을 통한 자아 탐색 및 삶의 가치추구와 의미를 찾는 것이며, 집단 구성원간의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효과는 미술을 매체로 하여 정서, 인지, 감각, 심리·사회적 영역을 향상시켜준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란 그림을 통한 자기 탐색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하며 집단 구성원간의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며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숙, 2011). 이러한 경험은 타인에 대한 적개심을 완화시켜주고 민주적 이상을 중요시 여기는 인격구조를 가지게 되어 실제생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고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한다(한국미술치료학회, 2000). 다시 말하면, 집단미술치료는 집단 내 미술치료활동과정에서 집단원들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문제해결 및 극복으로 이어진다. 또한 집단과제를 수행할 경우, 결속력이 생기며, 고립감이 감소되어 집단의 역동적 에너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1.3 미술치료 이론

1) 정신분석학적 미술치료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의 미술치료는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 이론을 근거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그림 및 조형 미술활동 역시 자유연상과 같이 자유롭게 떠오르는 이미지를 그대로 그리거나, 조형작업 이후 무의식적인 내용에 대하여 탐색하게 된다.

Freud의 정신분석학은 성격이론 및 발달이론으로 심리치료 기법에 관한 최

초의 심리학 이론이다. 프로이드는 철저한 경험주의자였으며, 자기분석을 통해 경험한 것이나 환자에게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론을 만들었다. 정신분석치료의 핵심인 유아기 발달이론은 성인기 역할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때때로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자신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려면 무의식 속에 잠재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린다. 여기에는 치료사의 통찰력이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과거 경험을 되살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정신분석학적 미술치료에서 미술이 주는 강점으로는 구체적이거나 시각적이어서 무의식적인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성격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며, 그중에서도 초기 아동기 경험의 재구성을 필수적으로 보았다. 또한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접근이 어려운 정신영역인 무의식을 ‘충족되지 못한 소망들’이 있으며, 이 소망들은 육체적 본능에서 나온 성욕과 공격욕이 대부분으로 의식의 내용들은 억압의 방어기체에 의해 의식에서 추방된 것들이라고 보았다.

Freud는 일찍이 환자들이 보여지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소통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무의식영역에서 심상을 통한 무의식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통찰력을 미술치료기법에 함께 사용한 학자는 Naumburg였다. 내담자의 미술작품을 ‘상징적 언어’에 의한 형태로 보았던 Naumburg는 여전히 언어적 모델의 의사소통 안에서 작업하였다. 따라서 그의 미술치료에 대한 접근방식, 즉 치료도구의 하나로 사용된 미술표현이라는 접근방식은 오늘날 ‘미술심리치료’로 발전되었다.

2)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

Jung은 무의식을 다루는 또 다른 심층심리학자인 ‘정신분석이론의 선구자 프로이드의 인과론’과 ‘개인심리학을 창안한 Adler의 목적론’의 입장을 함께 받아들여 집단무의식의 개념을 특징으로 하는 독자적인 분석심리학 이론을 만들었다. 분석심리학적 미술치료는 원형이 만들어 내는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증상이 가진 정동성 자체를 해결하는 치료일 뿐만 아니라, 정신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Jung은 1911년에 발표한 『리비도의 변환과 상징』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무의식에는 억압된 성적인 욕구나 충동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형성되어 온 종교적 원천과 같은 전혀 다른 창조적 가능성이 있으며, 의식의 갈등과 고통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Jung은 이러한 인과론과 목적론에 대하여 이 두 입장이 하나로 포함될 수 있는 대극이라고 보았다(잉그리트 리텔 저. 정여주 역, 2002).

융은 정신이 인간존재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모든 심리적 과정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융은 인간의 의식은 자아에서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 무엇이든 자아를 통해서 연상되는 정신적 내용은 의식이다. 자아는 의식된 마음을 통솔하고, 무의식적인 마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자아는 어떤 지각, 생각, 기억, 감정 등을 의식으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융의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눈다. 개인적 무의식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는 동안 겪은 개인의 경험내용 가운데 어떤 이유에서든 잊어버린 것이고, 집단적 무의식은 사람이면 누구에게서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의식에 가까운 개인적인 무의식 내용으로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는 무의식속에 잠겨 있어서 분화될 기회를 잃은 것이다. 융의 콤플렉스는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의 어두운 심층에 살고 있는 심리적 실체이며, 우리의 약점 혹은 아픈 곳이다. 콤플렉스는 일반적으로 고통스러운 종류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이다. 콤플렉스는 무의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의식의 내용도 이루고 있다. 융은 콤플렉스의 근원적인 뿌리를 찾다가 프로이드가 말하는 초기 아동기의 체험보다 훨씬 깊은 인간 본성인 집단 무의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여러 세대를 통해 반복되어 온 경험이 마음속에 축적되어 전해 내려온 것이다. 사람의 내적인격인 안에 야성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중 현실에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성의 특징은 의식화하고 다른 성향은 무의식으로 내면화하게 된다.¹⁾

1) 내면화: 내면화된 성향들 중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를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한다. (이부영, 2011)

Jung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이 심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개인, 즉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Jung은 이것이 인간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필연적인 요구라고 보았다. 자기실현 혹은 개성화는 자기인식의 과정이다. 자기인식이란 무의식의 내용들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분석심리학에서 치료의 목적은 정신의 전체성을 회복하여 자신의 개성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런 치료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한다. 개성화 과정은 의식적, 자각적 개성화를 말한다. 즉, 무의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의식화하는 것이다. 치료사는 내담자와 마주 앉아 내담자 자신도 모르고 있는 미지의 인격 측면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치료과정의 발전 방향은 내담자 자신으로부터 알아보아야 하며, 이는 곧 내담자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으로부터도 알아본다는 말이다.

분석심리학적으로 볼 때, 미술치료는 심인성²⁾ 증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간주된다. 무의식은 상을 산출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분석심리학적 치료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치료방법에는 꿈의 해석, 회화 분석, 적극적 명상, 만다라 등이 있다. 적극적 명상은 무의식과의 대화이다. 무의식을 인식하려는 자세에 입각하여 행해지는 활동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성격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인간 최초의 정신활동에 속한다. 그림 작업은 적극적 명상의 좋은 매개체가 된다. 꿈이나 환상 또는 어떤 강박관념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무의식은 의식의 간섭이 없는 한 자율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무의식의 심상을 보내어 일련의 과정을 형상 속에 나타내게 된다(김혜진, 2005). 적극적 명상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스스로를 깨우쳐가는 심리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는 종교적인 명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Jung은 만다라를 심리치료 분야에 처음으로 적용하였고, 이후 많은 학자들이 만다라에 대해 연구하였다.³⁾

2) 심인성[心因性 , psychogenesis]증상, 질병의 원인이 기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 혹은 심리적 요인에 의한 현상을 말한다. 신체기능과 정신기능과의 상호작용 특히 감정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정신신체의학 분야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신체적 증후는 특히 소화성 궤양, 심장장애, 비뇨생식장애, 알러지, 호흡장애 및 편두통 등이 있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학지사)

3) Kellogg는 문화권을 초월한 아이들의 그림에서 만다라의 형태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으며, Neumann은 만다라를 그리는 것이 아이들의 정체감 확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3) 인지학적 미술치료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y)은 Steiner에 의해 정립된 용어이다. 그리스어로 인지학은 인간을 뜻하는 'Anthropos'와 지혜를 뜻하는 'Sophia'가 결합되어 생긴 단어로서 그 뜻은 '인간의 지혜'라고 해석될 수 있다. 'Anthropos'는 파생적으로 'turningupward'를 뜻하는 말로 'Anthroposophy'는 '삶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Wilkinson, 1997)'을 뜻한다. 즉 인지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찰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Kugler는 인지학을 인간이 스스로의 인간성을 인식하도록 인간 영혼의 개념으로 관념을 넘어서는 인식의 방법이자 삶의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듯, Steiner는 교육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 심층에 숨겨있는 본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였다(장미성, 2017). 인지학은 초감각적 인식인 '인지학적 인식론'과 인간규정이라 할 수 있는 '인지학적 인간론'으로 개념화된다. 인지학 기반의 미술치료는 1962년 바젤에서 자유예술학교를 설립해 치료사를 양성한 Hauschka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였는데, 인지학 미술치료는 보통의 미술치료와 같이 심미적 예술이 목적이 아닌 창의적 활동을 중요시하며, 교육적 중재를 통한 예술 치료적 방법에서 출발한다(정여주, 1999). Steiner는 예술이 인간의 영혼과 신체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로서 인식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을 예술적 방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아동들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다.

Steiner에게 미술은 '자유로운 자기성찰'의 의미를 갖게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룩해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가게 하는 중심적 매체다(김택호·배숙경, 2014). 인간을 신체, 영혼, 정신의 유기적 통합체로 인식했던 Steiner는 이러한 치유적 미술교육을 통해 인간 존재의 내적, 외적 관점이 균형 있게 조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정여주, 1999).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현장에서의 인지학의 기본정신은 지식을 쌓는 기존의 학습법을 지양하고 예술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전인적인 인간상으로의 교육이다. 모든 예술은 서로 연관되어 융합한다는 Steiner의 주장과 같이, 그는 정신과 예술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Neiderhauser & Frohlich(2015)는 현대는 문화와 과학기

술이 지성에 집중되어 있고, 인간관계마저 차디찬 디지털 기계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Pormen⁴⁾’은 아주 특별한 치유의 힘이 있다고 보았다.

Steiner의 교육적 관점은 ‘교육은 치료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정상과 장애의 구분 없이 양자의 본질을 같은 각도에서 바라다보았다. 또한 아동은 교육과 치료를 같이 필요로 하는 관점에서 보았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7세-14세에 Pormen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여러 이유들 가운데 질병의 예방적 차원도 다분히 있으며,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감각 신경 계통의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발달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태어나서 신체가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발달을 한다. 그리고 그 후 부터 사고의 집약적인 발달이 이뤄지기 전 까지 감정과 감각의 발달을 충분히 촉진하는 단계로써 인간의 신체와 사고의 균형이 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본 것이다. 인간의 사고가 굳고 완고한 상태이거나 반대로 지혜가 넘치거나, 또는 행동이 혼란으로 가득차거나 아니면 사랑이 가득한 것과 같이 인간의 신체나 영혼의 구조는 양극성을 띄고 있는데, 이러한 부조화를 Pormen은 조화로이 이끄는 힘이 있다고 보았다(Steiner, 2007). Pormen을 포함한 인지학 미술치료는 의사와 임상치료사들 뿐만 아니라, 교육적 중재를 통한 특수교육, 사회복지교육, 재활기관에서도 점차 많이 시행되고 있다(정여주, 1999).

인지학 미술치료가 구체적인 임상연구에서 적용된 사례로는 조현병 환자⁵⁾의 음성증상을 완화하고 정서표현 수준을 증가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윤선영(2011)의 연구와 ADHD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인지학 미술치료를 통해서 과잉행동과 부주의성을 줄이고 창의성을 증대시킨다(배숙경, 2015). Pormen이 학교 부적응 아동의 불안과 우울, 과잉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오명연

4) Pormen-(form drawing)은 폼 드로잉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형태그리기’로 소개되었다. 발도르프 학교를 처음 세운 슈타이너가 오이루트미(euruthmie)와 함께 추가한 발도르프의 새로운 교육법 중 하나이다(김성숙, 2002). 슈타이너의 미술교육적 측면에서 포르멘을 통한 선 연습으로 시작하는 그림그리기이다.

5) DSM-IV-TR에 의한 진단기준: 조현병(調絃病, schizophrenia)은 사고 체계와 감정 반응의 전반적인 장애로 인해 통합적인 정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일종의 만성 정신 장애의 하나이다. 환각,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인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까지 정신분열병(精神分裂病)이라고 불렀다. 조현증 치료는 약물 치료와 함께 정신사회적 재활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2012)의 연구를 포함하여 Pormen이 인간의 통제적 감각을 스스로를 자각하고 조절함으로써 내적 에너지를 함양하는 치유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포르멘을 포함한 인지학 미술치료는 적용 대상과 범위 및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임상연구에서의 효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예술교육 중의 하나인 Pormen은 단순히 선을 그리는 행위를 넘어서서 선그리는 행위는 인간에게 총체적 내적인 힘을 부여한다. 이러한 행위에서 발현되는 에너지는 신체에도 역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적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치료적 효과는 모든 대상에게 해당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슈타이너는 인간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 가능한 존재이며, ‘모든 사람은 정신 활동의 어느 한구석에 정상이 아닌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teiner, 2001).

이렇게 인지학 미술치료인 Pormen은 치료적, 예방적 차원을 양립하여 내포하고 있는 치유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게슈탈트 미술치료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은 Fritz Perls(1951)가 창안한 이론이다. Fritz Perls(1893~1970)는 독일출생의 유대계 정신과의사이다. 그는 Freud의 정신분석학과의 정신과 의사였으며, 정신분석학의 관념론적인 사상에 반감을 느껴 공격본능이론을 비판한 후, 이에 반하여 ‘지금 여기(Here and Now)’를 강조하고 인간의 개체성과 현재의 욕구 처리를 중심으로 한 게슈탈트 심리치료를 주장하였다(1950). 게슈탈트(Gestalt)는 독일어로 ‘형태’, ‘모습’ 등을 의미한다.

1960년대에 들어서 정신분석의 퇴조로, 실존주의 및 인본주의 심리학이 떠오르며,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심리치료 및 상담기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게슈탈트 치료이론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게슈탈트는 유기체이론과 게슈탈트 심리학의 전체를 통합으로 바라보는 정신분석의 심리 치료적 관점 틀과 사이코드라마 및 연극에서 정서 체험적 기법으로 이론화 하였다. 또한 배경적 사상으로는 실존주의 및 현상학, 그리고 도가 및 선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로 인간의 생애와 심리에 대해 이해하였다. 따라서 ‘지금 여기’를 강

조하는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통합과 경험을 강조한다. 또한 워크샵 형태 및 조형 회화에 치료적 접근이 가능 하다. 그림은 우리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수단 하나이다. 게슈탈트 미술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사사이의 의사소통을 책임감 있고, 정직하며, 직접적인 것이 되도록 격려 하는데 있다. 또한 게슈탈트 미술치료는 시각적인 메시지와 목소리 톤, 신체적 표현, 말의 내용 등에 나타난 개인적 표현을 전체적으로 다룬다(공마리아 외, 2006). 게슈탈트 치료사들은 감각적 자극을 실험과 탐색을 격려하며, 이러한 문제를 명료화하고 인식하도록 해준다고 믿는다(Rhyme, 1987). 이러한 과정에서 게슈탈트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시각적 메시지 속에서 자신의 욕구와 자원을 지각하는데 최선의 잠재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게슈탈트미술치료사는 내담자의 작품에 대한 경험이 유기체적 깨달음의 일부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2. 투사검사

그림 진단검사에서 심리검사는 실시와 검사적 구성, 절차적 과정을 기준으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구분된다. 객관적 검사는 ‘예’, ‘아니오’의 문답형 검사지이며, 채점과정이 표준화 되어 있으며, 해석 규준이 제시되어 있다. 투사적 검사로는 개인의 성격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장점으로 는 방어가 쉽지 않으며 응답의 왜곡을 최소화하여 독특한 문제가 반영된다. 단점으로는 검사자 주관성이 개입됨으로써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아 질 수 있다.

1940년을 전후로 하여 그림은 사람의 정서와 성격을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투사그림(Projective draw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투사 그림검사는 ‘사람, 집, 나무와 같은 일상에서 접촉이 편한 특정한 형상에 대한 그림이 개인의 지각 성격, 성향적 태도를 반영해 준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후 가장 널리 알려진 투사검사 중 하나가 버크(Buck)의 'House-Tree- Person Test' 이다. 또한 H·T·P는 지능 보조수단으로 고안되었으나, 지능과 성격 모두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김상식, 2001). 집, 나무, 사람 그림은 일상에서 친숙하고 매우 쉽게 그려

질 수 있는 소재이며, 무의식의 활동과 연상 작용을 활성화하는 상징성이 풍부한 소재라는 점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사후 질문 과정(Post Drawing Inquiry)의 대답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투사 그림검사의 해석 방법으로 구조적 요소들은 그림을 그리는 순서, 그림의 크기, 그림을 그린 위치, 필압, 속도선의 특징, 세부묘사, 지우기, 대칭, 왜곡 및 생략, 투명성, 움직임, 종이를 돌리는 경우, 그림에 다른 것을 부가해서 그렸을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투사검사의 목적은 피검자의 행동양식, 자기나 외부세계의 인지 내용, 성격특성, 욕구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투사 그림검사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는 투사 그림검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정은 그림이 내면의 핵심적인 역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Freud가 주장한 정신결정론과 같은 맥락을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주장에서 이해될 수 있다.

Machover는 개인은 성장과정에서 신체상 발달은 신체의 여러 감각이나 지각, 감정을 경험하는 그 결과로 그림에 신체상이 욕구에 투사 표현된다고 한다. 자기-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투사검사에서 ‘투사’된 것은 피검자에 의해 자기대상과 관련이 있는 경험된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자기대상은 개인이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상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경험 자체’와 그 경험을 제공하는 ‘원천’을 모두 포함한다. 실제로 그림은 언어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내적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용이하다. 또한 르보위치는 투사 그림이 성숙한 자기를 나타내줄 수 있고, 자기 대상이 비공감적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발달적 결함이나 결핍의 현상을 드러내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전혜진, 2003). 또는 반영이 부족했거나, 이상화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자기대상이 없었거나, 충분한 관계를 맺지 못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자기 자신의 분열과 이후에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함을 반영해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투사검사 중 HTP의 투사 기법은 임상가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어 지지를 받았지만, 사용과 임상적 가치를 제한하는 요소들이 있다. HTP는 ‘정신 병리학적 상황에 있는 환자들로부터’ 발달시켜 표준화한 것으로서 문헌들의 대부분이 기질성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 병리학적 명명의 진단적 사용에 중점을 두었다. Freud학파에 기반을 둔 해석은 Freud의 정신분석학 내에서만 적합하도록 모든

자료와 상징들을 제한했다. 각각의 종이위에 그려진 집, 나무, 사람 그림들은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데는 미약하다. 따라서 Burns는 HTP에 나타나지 않은 상호작용의 보완을 필요로 하기 위해 역동성을 부여하여 동적 집-나무-사람(K-HTP)기법을 발전시켰다.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 Kinetic-House·Tree·Person Test)는 개인의 이해와 자기, 가족 그리고 생활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HTP의 해석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신분석학적인 관점과는 달리 K-HTP의 해석은 발달적 체계를 적용하였다. HTP의 해석은 ‘정신 병리적’ 집단에 대한 Freud 학파의 이론적 기반에 의해 주로 이뤄졌지만, 건강한 면보다는 인간의 병리적인 면이 더 강조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을 고려하여 인간을 본 심리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Abraham Maslow였다. Maslow의 욕구체계 모델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Maslow의 모델을 투사 그림에 적용시킬 때, 다음 5단계들 혹은 ‘욕구체계’를 포함시킨다. 1단계는 생활에서 생존에 대한 욕구(Physiological: 생리적 의식주), 2단계는 신체에 대한 안정감소속감(Safety Needs:신체에 대한 수용, 신체 탐닉과 잠재성에 대한 통제력의 추구), 3단계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 애정의 욕구(Belonging and Needs: 지위, 성공, 존경 그리고 힘에 대한 추구), 4단계는 자아존중 존경인정에 대한 욕구(Eateem Needs: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자아실현, 좋은 기회와 행운, 봉사, 창조성 등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로서 자기만족을 느끼는 스스로의 승화단계)이다. Maslow의 체계는 개방체계로서 새로운 것에 대해 변화하고 수용하는 체계이다. 반대로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폐쇄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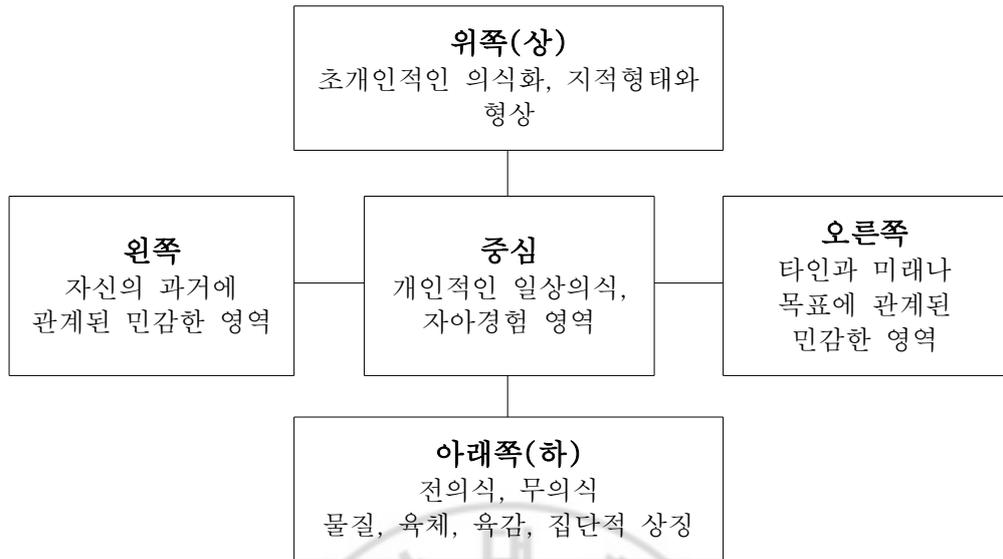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K-HTP에 대한 분석에서 집이 우리 생활의 정서와 물리적 측면을, 나무는 생활의 에너지와 자아 에너지의 방향이며, 사람은 자신스스로 통제를 상징한다.

1.3. 공간상징

공간의 의미는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간의 의미와 관련하여 동양에서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관점을 토대로 둔다. 음양오행 사상에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은 하늘(天)과 땅(地)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행에서 기본 공간인 오방(五房)은 동서남북과 중앙으로 이루어진다. 서양에서는 공간의 기본을 십자형에서 찾고 있다. 공간 도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십자형을 이용한 관점들을 미술치료공간에서 상징성에 적용 및 응용하였다(Riedel, 1988). 또한 그려진 그림의 위치에 따라 그 내담자의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알 수 있다.

Pulver는 십자형을 이용하여 미술치료의 공간 상징성에 대한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왼쪽은 자신과 과거에 관계된 민감한 영역으로 내향성, 과거의 것, 종료된 것을 상징한다. 오른쪽은 타인과 미래나 목표와 관계된 민감한 영역으로 외향성, 미래와 추구하는 것을 상징한다. 상은 초개인적 의식화, 지적형태, 형상, 정신, 종교에 해당하는 느낌을 상징한다. 아래쪽은 전의식, 무의식, 물질적, 육체적, 육감적, 성적과 무의식에서 나온 집단적 상징들을 상징한다. 중심은 개인적 일상, 자아경험 영역을 나타낸다.

Pulver의 십자축에 의한 공간상징은 다음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Pulver의 십자축에 의한 공간상징(정여주, 2003)

그림 표현의 공간 구성과 심리를 다룬 그룬발트(Grunwald)와 미셸(Michel)에 따르면, 우주는 사각형으로 여러 개의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중앙에는 세계의 축이 태양까지 종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땅 속 깊은 곳에서 대지를 가로로 자른다고 표현하였다. 공간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그림을 상, 하, 좌, 우, 사선으로 나누어서 심리학적인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그려진 장소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Jung 학파인 Michel의 공간상징 [그림 II-2]은 과거와는 다른 공간상징들을 보완하여 분석하며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정여주, 2003).

Michel의 공간구성 심리는 다음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Michel의 공간 상징

Michel의 공간상징인 [그림 II-2]에서 공간 방향을 살펴보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의 그림일 경우, 신경증환자가 퇴행상태를 나타내어 과거의 아동 심리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C-LU 방향으로 치우쳐있거나 C-L-LU-RU-U 공간에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현실에서 어떤 마음의 갈등이 존재할 때에는 C-RU 방향으로 치우치지만, C-R-RU-U 공간에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갈등이 내재하는 자에게 치료하여 정신상태가 안정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길 경우, 화면은 C에서 C-O-RO-R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울증환자 혹은 억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린 화면은 LO방향 혹은 C-O-LO-L 공간 속에 그리는 경우가 많거나, 동시에 그림을 상당히 작게 그리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회복된 후에 R로 치우쳐, C 혹은 RO 방향으로 그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그림을 그리는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인간의 뇌에는 좌, 우의 치중에 따라 그림

공간의 의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연히 그림의 공간위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림공간의 위치만으로 인간의 심리를 결정지을 수 없지만, 그림의 표현은 언어표현과는 다른 의미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전달해 주는 소재로 확인할 수 있다.

1.4. 콜라주 미술치료

1.4.1 콜라주

콜라주는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무 조각, 모래, 나뭇잎 등 여러 가지를 붙여서 구성하는 방법과 그렇게 만들어진 그림을 뜻하는 말이다(위키백과). 이 기법은 화면의 구도·채색효과·구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다다이즘시대에는 ‘파피에 콜레’를 확대하여 실밥·머리칼·깡통 등 캔버스와는 전혀 이질적인 재료나 잡지의 삽화·기사를 오려붙이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의 작품들은 보는 사람에게 이미지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반응은 부조리와 냉소적인 충동을 겨냥하였다. 여기에서 사회 풍자적 포토몽타주가 생겨났다.⁶⁾

콜라주작품의 등장은 1911년경 입체파 화가였던 피카소와 브라크가 만들어 낸 기법이며, ‘풀칠하다, 바르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회화에서는 화면의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하여 실제의 물건인 악보나 모래, 톱밥, 나무토막과 같은 물체를 화면에 붙이는 회화의 한 가지 기법이다. 포토몽타주를 통한 환상적인 기법이 발전되었던 1920-30년대에는, 포토 콜라주라는 인쇄매체와 사진의 특수 기법을 혼합한 그림작품으로 구성되었다. 화가 Max Ernst의 작품에서는 상상적 인물로 백 개의 머리를 가진 여인을 만드는 초현실주의적인 콜라주작품으로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혀 다른 매체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예상 밖의 상징적 효과를 나타낸 표현 기법으로 발전하였다. 팝 아트는 1960년대에

6) Max Ernst(1891~1976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 로렌스 앨러웨이(1950)에 의해 팝 아트로 명명됨. 테크놀로지, 대중매체에 의한 오브제, 즉 시각적 조형적 요소를 몽타지 작품에 포함. R. 라우션버그의 작품도 콜라주기법의 원천 ‘파피에 콜레’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널리 알려진 기존의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조합과 분열로 디자인 한 몽타주나 오브제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미술사적 의미로 예술표현이 상업적 물체와의 결합을 통해 대중적인 상품매체들이 예술적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예술의 대중화 즉, 팝아트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또한 콜라주(Collage)는 서로 다른 물체의 본질(本質)이 다른 여러 가지 형질, 비닐, 타일, 나뭇조각, 종이, 상표 등을 오리고 부수고 찢고 접착제에 응고 시키어 붙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점과 애니메이션 카메라 및 스탠드로 움직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키네스테시스⁷⁾와는 달리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느낌을 준다. 콜라주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느껴 보면 예상 밖 피어로 같은 면이 보일 수 있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회오리 속에 서 있는 특수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또한 콜라주 작품 제작기법의 기본 배경양식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인상주의 스타일과 두 번째는 내러티브 스타일을 들 수 있다.

1.4.2 콜라주 미술치료

콜라주 미술치료는 색지와 잡지, 다양한 공산품 매체에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잘라 붙이는 작업이며, 이러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깊어질 수 있다. 또한 언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문제점을 작업과정 및 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고 이해할 수 있다.

미술활동이 카타르시스를 주거나 감각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 이외에 내적 갈등을 승화시킴으로써 좌절을 극복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자아의 힘이 강조된다(주리아, 2014). 특히 콜라주 기법에 대해 잡지를 보며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과정은 자기감정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고 선택자로서의 주체성은 자발성, 자기표현, 자기개방을 촉진한다(이은주, 2008). 따라서 콜라주 표현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통찰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치유력이 발생하는 치료과정이다. 이

7) 키네스테시스(Kinestasis)란 사진은 정지된 영상이지만 그것을 애니메이션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영사 하면 사진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창조하는 것이다(영화사전, 2004. 9. 30)

와 같이 콜라주 미술치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표현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집약적이다. 둘째, 상징적 표현을 얻을 수 있고 내담자의 현실적 감적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그림을 기술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저항이 고착된 내담자에게 도입이 쉽다. 넷째, 언제 어디서든 매체를 활용한 작품실시가 간단하고 연령층의 적용범위가 넓다. 다섯째, 제작 표현방법에 따른 내담자의 성향과 감성적 느낌, 병리성 증상을 파악하며 지적인 작업활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섯째, 치료현장에서 깊은 친밀감으로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형성이 쉽다. 의사소통개선으로는 모자 상호법을 통해 활동이 가능하다. 즉, 치료자, 모, 내담자와의 삼자간 친밀감 형성 및 의사소통이 용이하다. 아홉째, 어떤 심리학적 치료 상담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상으로 콜라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이나 문제점을 표출하여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콜라주는 심리치료기법으로서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양윤정, 2013).

1.4.3 콜라주 미술치료 기법

콜라주 기법은 중세 르네상스의 공간표현 방법으로 원근법 즉, 투시도제작 표현 방법 대한 대안으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된 것들을 한 번에 제시한다. 어떠한 표현 대상과 그에 따른 이미지와의 관계가 동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러한 결실은 근대 환상(illusion) 미학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지고 있다(김은경, 2001).

오늘날 미술치료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잡지그림 콜라주 기법은 1972년 Buck와 Provancher가 미국 작업치료지에 평가기법으로서 게재하면서 정식으로 소개되었고, 이후 일본의 Sugiura(杉浦, 1994)에 의해 치료기법으로서 연구 개발되었다. 1920년경 초현실주의자들의 미술표현에서 하나의 스타일로 확립된 콜라주 기법은 그 후 미국 작업치료의 재활 장면에서 치료(Buck & Provancher, 1972)나 평가법(Lerner, 1982)으로 활용되었다. 일본에서 콜라주

기법은 1990년 전후를 기점으로 모래놀이치료를 모체로 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하나의 기법으로 사용되었다(이근매, 아오키, 2010).

모래놀이치료(sand play therapy)는 Viktor Lowenfeld가 1949년에 개발한 세계기법(world technique)에서 Kalff(1966)가 융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개발한 것이다. Gawai Hayao(河合, 1965)는 스위스 취리히 융 연구소 시절에 알게 된 모래놀이치료기법을 토대로 일본에 모래놀이치료를 도입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이후 모래놀이치료는 임상과 기초연구를 거치게 되었고, 1980년도 후반에 Moritani와 Sugiura(杉浦, 1994)의 모래상자 평면적 활용이라는 발상으로부터 콜라주 미술치료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콜라주 미술치료는 ‘운반할 수 있는 모래상자’, 즉 ‘모래상자의 보급판’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콜라주 미술치료가 모래놀이치료보다 간단하고 손쉽게 작품제작을 구성할 수 있고, 어떠한 장소제한도 받지 않으며 재료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이다. 다양한 색 도화지와 접착제, 그리고 오릴 수 있는 가위로 언제 어디에서 내담자와 함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 작품의 보존도 용이 하여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담자가 작품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콜라주제작은 제작기법과 실시방법에 따라 의식과 무의식성의 표현에 차이가 있다. 내담자의 무의식 표현을 돕기 위해서는 4절지 정도의 백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도화지 화면의 크기가 4절, 8절, A4지, 엽서 및 동그라미 형태의 종이 모양과 크기가 작아질수록 내담자의 방어를 줄이며, 의식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콜라주 박스법 보다는 잡지그림 콜라주법, 풀로 붙이는 작업, 시간제한 없는 자유주제 등이 무의식을 드러내기 쉬운 편이다.

콜라주는 치료자의 의도와 내담자의 증상 및 호소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고안될 수 있고, 성별, 연령이나 장애 경중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작 기법에 따라 집단 개별법, 집단 진단법, 엽서 콜라주법, 집단 원형 콜라주법이 있다(이근매, 아오키, 2010). 이러한 기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속에서 집단 개별법은 개인이 각자의 자신의 콜라주 작품을 제작 완성하는 것이다. 작품 완성 후 작품 후 소감과 치료사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마음의 방어를 풀고 안정된 편안한 마

음상태로 하게 하는 동시에 내담자의 통찰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의식적으로 작성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무리한 분석보다는 내담자의 사후소감과 보여지는 사실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지하며 마무리한다. 또한 투사적 검사하는 세션이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여 흥겨운 작업과정이라는 느낌을 주며 작업실시에 도입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 때로는 검사에 대한 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내담자의 경우에 있어서 분석받는 것이 싫어서 무의식적인 방어적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에서 콜라주를 실시할 때 집단 진단법은 개인작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3~8명의 소집단원이 모듬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공동작품을 제작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콜라주라는 표현작업을 통해 집단 진단법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역동성과 사회성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완성된 콜라주 작품의 분석, 해석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집단 진단법의 경우에는 작품을 완성하는 집단원들의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집단원과의 대화나 교류를 즐기면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작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타인의 주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등의 사회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양윤정, 2013)

셋째, 엽서크기의 화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엽서 콜라주법(post card collage)은 화지의 크기를 통제함으로써 표현제한은 내담자의 의도를 함축된 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심층표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의식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포함한 이미지를 제작하기 때문이다. 작업해야하는 화면종이크기가 작아질수록 내담자의 내재된 큰 의미의 이미지가 작은 화면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기에 종이크기가 주는 의미는 크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작은 종이의 엽서크기는 여러 조각을 붙여 사용하지 않기에 이것을 통해 구성력·통합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후지가케, 2003).

넷째, 만다라 콜라주라고도 하는 집단 원형콜라주법은 종이를 원형으로 잘라서 원형 안 또는 밖에 콜라주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원 형태의 중심성이 있는 원형콜라주는 현실생활을 통찰로 이끌 수 있어 미래의 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집단 원들이 다함께 제작하는 집단 원형콜라주는 상하좌우 어느 방향에서든

작업하고 감상할 수 있다. 종이를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공간 상징을 통한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 작업보다 집단 워크숍 등에서 사용하기 적절하다(아오키, 2009).

이렇듯 콜라주 제작활동 과정은 내담자에게 심리적 퇴행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콜라주 작품 그 자체가 내면을 표현하고 붙여진 매체는 그 내용과 의미가 상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치료과정과 연결된다. 완성된 내담자의 콜라주 작품내용과 의미는 치료자와 공감적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 또 한 내담자는 자신의 완성된 콜라주 작품으로부터 자신의 갈등 상황이나 원인을 파악하기도 한다. 가령 내담자가 작품에서 무엇을 표현했는지 모르고 자신의 갈등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작품활동과정에서의 역동은 자기 치유력이 작용하여, 다음 회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에서 작품의 시작과 마무리 동안 체험하는 긍정적인 정서경험은 긍정적인 자기발견과 자기강화에 효과적이다.(이근매, 아오키, 2014)

아울러 작품을 매개로 한 집단원간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 기술 향상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을 유발한다(이정원, 2013). 이와 같이 콜라주 미술치료의 유효성이 연구 보고되면서 미술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콜라주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콜라주 미술치료는 개별 및 집단으로 제작 활용하면서 그 기법이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는 콜라주 작업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기발견을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촉진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넓어졌다(이근매, 아오키, 2014).

그러므로 콜라주 제작기법과 특징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소근육 발달과 협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작능력의 배양과 우연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

1.4.4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는 심리적 어려움을 미술작업을 통해 방안을 찾는 집단 미술치료의 한 종류로서 쇠붙이, 인쇄물, 나무 조각, 모래, 나뭇잎 종이 천 등

또는 어떤 자연물 혹은 공업 생산된 재료를 캔버스나 화판에 접착제를 활용하여 2차원적 화면이나 부조로 조형 회화적 구성을 이루는 예술 기법이다. 일본에서는 콜라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1987년 도입하여 개인치료 및 학교부적응 등의 등교거부 문제가 있는 학령기 아동부터 장애증상인 섭식장애, 신경증 및 우울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까지 대상이 폭 넓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3년 일본의 Sugiura Gyookko(杉浦京子:스기우라교오꼬) 교수에 의해 콜라주 미술치료가 도입 되었다. 콜라주미술치료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 및 매체 활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콜라주 기법은 학교생활 부적응 아동 청소년을 예방하고 소외된 독거노인의 소통방안으로 확대 선별하는 치유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콜라주제작 과정은 제작기법과 함께 제작과정에서 많은 드라마가 발생 되므로 치료자는 제작절차과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어 주제에 다른 제시 매체를 세션 진행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 내담자는 매체 및 색지, 잡지사진을 오리고 붙이는 과정에서 많은 과거의 일, 사건, 트라우마 등이 회상되기도 한다. 또한 콜라주 제작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치료자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Moritani, 2012)고 하였다. 먼저,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한다. 다음 절차는 자신이 좋아하는 형태대로 자른다. 이어 자른 그림 및 형태 디자인 조각들을 화지위에 구성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풀로 붙인다.

Petzold(1991)에 따르면, 예술치료는 “육체적·영적·정신적 존재이자 삶에서 의식적·무의식적 노력을 하고자 하고 사회적·생태적 조건과 연계를 이루는 총체적 존재인 인간에게 창의적 매체와 예술방법을 이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적용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완화하며, 인간성을 개발하고 운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미술치료의 정의는 예술치료의 정의로 대체되고 있다(정여주, 2014). 즉,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집단 안에서 미술 활동을 통해 미술작품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상징의 의미, 설명, 내용을 발견하게 되며, 미술작품에 개인적인 의미 부여와 자기 자신의 창작 과정 및 집단반응에 주의한다.

이와 같이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속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지할 수 있고 자신의 방향성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왕금미 외, 2016).

집단미술치료의 과정이 갖는 효과성은 ‘시각적 대화가 지니고 있는 효과’이며, 언어는 종종 전체적인 경험을 전달해주지 못하지만, 미술은 언어적으로 반드시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활용하며, 이러한 시각적 메시지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준다(Wadson,1987).

이처럼 미술활동을 통한 심리치료는 내면세계에 숨겨진 인간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출하게 하며, 언어를 통해 서로 부딪히는 정서적 위기를 완충시켜준다. 또한 카타르시스 효과와 더불어 정서교류의 조정역할을 하며(김동연, 2000), 사고나 감정이 구체적인 유형의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므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특히,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는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뛰어 넘어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서로의 시각적 작품 결과와 의미를 통한 상호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의미 속에서 방향성을 깨달게 하기 때문에 사회의 적응과정으로 진지하며 효율적이다. 그러나 미술치료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 간의 위기 상황이나 전문적인 통찰과 이해가 필요한 시기에는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박선화, 2007).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 활동 과정에서 미술매체의 선택이나 색상의 선택,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 의지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집단 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전미향 외, 1998). 이렇듯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는 비언어적 매개체라는 미술매체의 특성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이 안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언어적 표현의 한계성을 넘을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갈등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소통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집단미술치료는 집단의 작품을 통해 상호관계성 촉진으로 치료적 힘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면 및 사회적 갈등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자아관리능력 및 사회성 대인관계에서 더욱 효과적이다(정여주, 201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콜라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은 그림과 콜라주

작품을 통해 자기 자신의 자아 탐색과 더불어 작품의 이미지의 상징이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 삶에 있어서 깊은 의미를 찾게 된다. 따라서 집단내의 상호적 관계형성 경험은 마침내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이상으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양한 콜라주 제작기법의 적절한 활용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잡지 및 오브제를 활용한 매체에서 자르고 구성하는 배치를 하고 풀 또는 접착 매체로 붙이는 과정과 순서를 자유롭게 하도록 집단 원에게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콜라주 제작기법 중 집단 개별법, 집단 진단법, 엽서 콜라주법, 매체 혼합형 조형기법, 원형 콜라주법의 효과성을 근거로 하여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 중도입국 청소년

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이해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한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 외국인 부모와 동반 입국한 청소년, 그리고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에서 태어난 청소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을 말한다(양계민, 조혜영, 2011).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과 달리 성장환경,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오승환, 좌현숙, 2015). 부모의 재혼 및 경제적 활동 이유로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고(류방란, 오성배, 2012), 청소년 후기에 입국한 경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심리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윤향희, 김경제, 2016).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호

작용의 부재로 인해 교육과 근로 보장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손영화, 박봉수, 2015). 이러한 부분은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는 상이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오승환 좌현숙, 2015).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표 II-1>)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가 99만 186명으로 전체 일반학생의 1.68%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취학 중도입국 학생은 7,418명이다. 그 중 초등학생은 4,583명, 중학생은 1,627명, 고등학생은 1,208명이다. 그러나 미취학생까지 합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

<표 II-1> 초·중·고 다문화학생 현황

구 분	초	중	고	합계
국내출생	59,988	11,489	7,657	79,134
중도입국	4,583	1,627	1,208	7,418
외국인가정	9,453	1,989	1,192	12,634
합 계	74,024	15,105	10,027	99,186

(2017 교육부)

<표 II-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등학생 수는 4,583명이며, 중학생은 1,627명이다. 고등학생은 1,208명으로 상급학교 진학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차별과 따돌림과 같은 사회적 배제감을 경험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이유신, 김한성, 2014) 이러한 부분은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부족도 문제지만, 중도입국 학생에 대한 교사의 낮은 이해도가 학교생활을 더욱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부친 혹은 모친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별거, 방임과 방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소외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며 재사회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요인을 갖추고 있다(김영순 등, 2012). 낮은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어려움과 엄마와 동거를 하지 않은 공백 기간으로 엄마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보다는 거리감을 느끼고, 가족의 주변인에게 본국

의 기억과 단절을 강요당하면서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석희정, 하춘광, 2015).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타문화와 낯선 가족들과의 접촉, 부모의 저임금 및 장시간 경제활동으로 청소년으로서 가정에서의 소극적 보살핌 및 정서적·언어적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교육환경과 정서적 지원으로, 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성장하기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2.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

국내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유형 중 하나로 청소년복지지원법 18조에 정의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청소년으로서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제13181호), 2015년 2월 3일 시행. 본 연구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을 국제결혼 재혼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중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로, 이들의 한국어습득 및 학습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개별화, 수준별 학습 방법이 전무하여 한국어습득기회의 배제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를 확인한 연구들을 토대로 이들의 대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이민정책연구원). 이들의 입국 당시 연령대는 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출생국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 최소 1~2년에서부터 최대 10년 이상으로 그 분포가 매우 다양하다(조은희, 2015).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하여 출생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득하였고, 그 국가에서 성장기까지 출생국의 사회문화경험 과정을 거친다. 때문에 한국 입국 이후에는 출생국에서 경험했던 문화와는 다른 한국 문화를 접하

게 되면서 문화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한국 문화에서부터 교육, 진로, 가족관계 형성, 자아정체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1). 또한 부모와의 별거 기간 동안 겪게 되는 소통의 단절과 별거를 선택한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것이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성과 맞물려져 반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류방란, 오성배, 2012). 이와 함께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낯선 환경에서 한국인 양부를 비롯한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를 정립해야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이민정책연구원).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관계정립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신현옥 외, 2012).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출생국으로 귀국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국제결혼 재혼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양부와의 관계는 한국 정착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류방란, 오성배, 2012).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로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오성배, 2012). 이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가정의 해체, 별거, 재결합, 타국으로의 이주 과정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 불안과 위기 경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이민정책연구원).

그러나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거나 극복의 계기를 갖지 못하여 자아정체성 위기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조은희, 2015).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가족 모두가 안정적으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혼 가정 자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류방란, 오성배, 2012).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한국에서 출생한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적응수준이 중도입국 청소년에 비해 양호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도중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어 외국인과 다름없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적응 수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통의 다문화가정 자녀와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IOM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연구원의 중도입국청소년 지역별 지원실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상당수는 학교 밖에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다수가 일반학교 진학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

제 진학후에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오성배 외, 2013).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의 일반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어적 문제이다. 일상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언어와 교육언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낮은 학교문화이다. 문화권별로 학교문화가 다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육시스템 등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의 학교는 모두 낮은 것이다. 세 번째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의 문제이다. 단순히 외국인 학생이라고 인식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주했다는 시각이 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이민정책연구원).

특히, 청소년기에는 부모, 교사, 친구 지지 등 의미 있는 타인들로부터 사랑·보호·수용 등의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사회 적응력과 심리적 적응이 향상된다(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따라서 가족, 또래, 교사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중요한 지원자가 되며,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많은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의 생활적응에 효율적인 요소로 청소년 발달시기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게 한다. 이들의 심리·정서안정을 위한 개입으로서 심리·정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언어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언어적 개입기법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선별적이고 개별화된 심리·정서발달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미 본국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그 나라 국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한국어는 물론 한국 사회의 문화, 정서 등에서 많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오성배, 2012). 더욱이 한국 사회의 경우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역사가 길지 않고, 한국인들에게에 대한 인식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내국인들과 자연스럽게 공존하여 건전한 정체감을 형성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조혜영, 2011).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제도권 안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시킨다면, 이들은 2개의 언어와 문화를 가졌기 때문

에 글로벌 시대에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은 우리사회가 안고 함께 가야할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3.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3.1.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콜라주 미술치료는 자신의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갈등상황이나 원인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콜라주 미술치료는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표출되고 작품 활동 자체로서의 치유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도입국청소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황유경, 2003).

이러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는 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집단 안에서의 관계 형성,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기술을 키우며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언어와 문화적 소통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안정 및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적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콜라주 미술치료는 집단의 역동성과 만나면서 상승적 효과를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콜라주를 매체로 하여 집단원간에 상호교류를 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이나 상호관계를 촉진시켜 집단 활동을 돕거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신동진, 2015).

콜라주 미술치료는 성별 연령, 사회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작품제작과정 그 자체로서 내담자의 심미적 창의성과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즉,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 존중감, 타문화 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콜라주 미술치료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자아탄력 향상, 자기 효능감, 문제해결력, 공감과 수용력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와 섬유매체를 활용하여 낯선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자아 정체감, 억눌린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데도 사용되었다(곽승주, 전순영, 2013; 임선숙, 전순영, 2015).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심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언어 표현의 한계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매우 적합한 기법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3.2.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콜라주 미술치료는 잡지의 그림 및 매체를 활용하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분야의 관심과 흥미를 알게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주제 및 매체 표현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나타낼 수 있으며, 부적절한 감정이나 내면의 갈등 및 욕구 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콜라주 미술치료는 제작과정에서 내담자의 방어기제가 적기 때문에 무의식적 자기 표현이 용이하다. 또한 내담자가 작품을 제작과정 및 완성된 작품의 의미 및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그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즉 치료자는 내담자의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 형태, 내용 등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치료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간 상징과 절편 수와 여백의 분량, 자르거나 붙인 방법 등의 형식과 어떤 내용을 붙였는가에 관한 내용이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알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근매, 아오키, 2010).

콜라주 미술치료의 효과성에 기인하여 Na Kai(中井, 1993)는 콜라주의 치료적 요인으로 안전성과 회피성, 분산과 통일성이 있다고 하였다. 먼저 안전성과 회피성에 대하여 “흔한 도형을 우선 보고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잘라낸다. 싫으면 선택하지 않아도 좋다. 그 이후에라도 버리는 등 얼마든지 회피할 수가 있으므로 양자 공히 높다”라고 설명한다. 콜라주 미술치료는 할까 말까하는 도입의 시기에 내담자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의 분위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곽미정, 2005). 또한 시도된 셋팅에서 내담자의 의도와 연구자의 교감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 하며 내담자의 선택적 의사를 다시 한번 더 확인 할 수 있다.

분산과 통일에 대해서 “인간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 또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모으려는 통일적 방향이 있고, 콜라주에서는 이 통일과 흩트린다고 하는 분산적 방향성 있어 이 두 방향성인 통일과 분산과의 통합, 즉 전개를 가능하게 된다. 정신의 건강 또는 정신의 존립 자체의 가능성은 이 두 개의 방향성의 흔들림을 동반한 동적 평균에 있고, 그에 따라 통일과 분산과의 통합, 즉 전개라는 것을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카운셀링 과정 그 자체이기도 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Na Kai, 1993). 또한 꿈의 자연치유적 의미와 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며 “낮 동안의 가성의식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다 부드러운 논리로 해결하려고 한다. 적어도 미해결 문제를 안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콜라주는 그것에 치료적 의미를 띠게 된다(백외조, 2015). 최후에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시인하고 찬미해 주는 대상(인물)이 필요하고 치료자가 모험적인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콜라주 과정을 치료적인 것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하는 내담자는 미술치료활동 매체재료를 선택은 일상적으로 있는 습관적 선택행동과 집단내 동질적 감정이나 감각적 자극으로 영향을 받는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마주보며, 스스로의 삶의 지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게 된다. 사진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지금 여기(here and now)’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나 ‘진실한 자신’에 다가가는 한걸음이 된다. 그리고 재료를 배치하는 과정에서의 치료적 의미는 여러 개의 재료들을 도화지의 어디에 배치되는지 등으로 내담자의 본연의 모습이나 내적 세계의 밸런스를 알 수 있다. 도화지의 어디 부분에 아이টে를 놓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논리적인 사고나 언어적인 기능을 거의 쓰지 않고 환자의 감각이 최대한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도 내담자가 보다 좋은 감각을 되찾는 것에 의미 있는 내적조정기능이 자연발생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양윤정, 2013).

Sugiura(杉浦, 1994)는 일본 인간성 심리학회 수강자 61명은 콜라주를 작성

한 후 치료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심리적 퇴행이다.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이 열중해서 시간의 금방 흘렀고 즐거웠다는 것이 많았다. 이것은 놀이적 감각이 생기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토요일에 실시한 수강자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라서 나타낸 감상도 있었다. 둘째, 내면의 의식화이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그것을 봄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다 깊은 관계형성과 내면의 통찰을 할 수 있었다. 셋째, 자기표현과 미의식의 만족이다. 잡지의 사진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체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과 불만족감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기쁨과 균형 잡힌 작품이 완성될 때의 기쁨은 자기표현과 미의식의 만족감이다(양윤정, 2013). 넷째, 상담의 보조적 요소이다. 언어로써 감정의 표현이 어려운 세대와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도 유효하며, 자기 통찰이 어려울 때 도입하면 효과가 있을 듯한 상담의 보조적 요소, 카운셀링의 비언어적 표현 수단으로서의 심리치료이다(박상근, 2003). 다섯째, 진단자료이다. 유용한 진단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며 지속적인 관찰로 작성된 경우 그 사람의 심리 변화를 알 수 있다(신다영, 2009). 여섯째, 라포 형성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매개이다. 내담자와 치료자간의 라포 형성 과정에서 이것을 매개로 서로 라포를 형성할 수 있으며, 동시제작법 및 모자상호법 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행할 수 있다(양윤정, 2013). 또한 의식적인 현재의 심정을 외곡 작성함으로써 자기의 상태를 스스로 변화시켜 갈 수 있으며, 내재된 환상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유효하다. 이러한 것을 집중력, 기회와 선택, 그리고 창조력 등으로 자신을 원만한 형태로 이끌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모래상자요법이 주는 치료적 요인과 거의 일치한다(이근매, 아오키, 2010 재인용).

콜라주 미술치료는 색지와 잡지, 다양한 공산품 매체에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잘라 붙이는 작업과정이 곧 자기표현이며, 이러한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깊어질 수 있다. 또한 언어로 소통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문제점을 작업과정 및 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콜라주 표현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통찰함으로써

써 스스로 자기 치유력이 발생하는 치료과정이다.

이와 같이 콜라주 미술치료는 자신의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표현과정에서 갈등상황이나 원인을 알아차리고,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가 표출되고 작품 활동 자체로서의 치유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기법이다.

황유경(2003)은 집단미술치료 종결 2개월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일정 기간 후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 학교 교육현장에서 상담기법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불안요인의 감소에 지속적인 효과를 보여 무기력하고 안정되지 못한 부적응 아동을 위한 상담기법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는 3~7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을 이용하게 된다. 집단 안에서의 관계 형성,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단계적 사회적 소통 문제 해결기술을 키우며,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경험은 내담자의 내적 갈등해소로 인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언어적 자기표현의 한계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매우 적합한 기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시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경험 과정에서 위축된 자신의 내면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하지만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우리사회에 특수한 상황에 처한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자신의 욕구표현의 결과가 원치 않는 그림으로 보여 졌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콜라주 미술치료 기법이 언어적 제한성을 안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콜라주 미술치료 작품에서 나타난 심리변화를 근거로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

소년의 긍정적 심리변화를 위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중 콜라주 미술치료의 필요성 및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본 연구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리·정서 안정의 요인 중 가족, 친구, 심리 치료사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참여자의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심리변화를 회기별로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이에 대한 심리변화분석과 통찰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질적 연구의 한 유형인 사례연구 방법이다.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확실성, 이전 가능성, 의존 가능성, 확증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Creswell, 2010). 사례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구의 신뢰성은 일관성과 타당성과 관련된다(Kvale, 1998). Creswell은 질적 연구 중에서 사례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315). 사례연구는 “제한된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 가능하다(Miles & Huberman, 1994; 김진희, 김영순, 김지영, 2015 재인용). 즉, 하나의 사건 혹은 현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설명과 분석이 필요할 때 사례연구를 하는데, 이는 특정한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례가 갖는 의미를 통찰, 발견, 해석할 때 얻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Merriam, 1998; 김진희 등, 2015 재인용).

2. 연구참여자

연구대상은 인천 서구 다문화 예비지정학교인 B고등학교 한국어학당에 다니는 재학생 및 A시에 거주하는 S초등학교 학생, 중학생 그리고,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 7명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조선족, 고려인, 베트남)이다. 이들의 한국어소통 능력은 간단한 단문으로 일상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받아쓰기에서 받침이나 어려운 철자는 교정을 해 주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교사에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였던 갈등문제를 토로하며 해소하고자 하였다. 주요 갈등문제는 자아표현 및 소통에 관한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기관 회의를 거쳐서 접근이 용이한 예술치료프로그램의 하나인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예비학교 심리정서 특화프로그램이다. 연구참여자는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거나 학교장의 허가로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원래 8명이었지만, 1명이 중도에 베트남 본국으로 귀국하는 일이 발생하여 7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총 7명으로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이며, 입국 시기는 한국에 온지 1년 3개월 이하이다.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특성					주요 어려움 및 호소
	출신	소속	가족구성	입국시기	언어능력	
A (남, 16세)	중국 (조선족)	학교 밖	친부, 재혼모, 남동생	2015년9월	• 대답 • 듣기가능	• 언어소통 • 신체적 외상(화상). • 새엄마 무관심.
B (여, 17세)	중국 (조선족)	재학 (B고)	외조모 친모와 재혼부 (비동거)	2015년8월	• 말하기 듣기 원활. • 어려운 단어 사전이용.	• 외조모와 동거 • 엄마 아빠 함께 살고 싶어함. •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함.
C (여, 15세)	우즈베 키스탄	재학 (C중)	친부, 모, 동생	2016년5월	• 말하기 듣기 가능. • 영어로 소통	• 외향적 성향(질은화장) •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싶음. • 그림을 배워서 잘 그리고 싶 다고 함.
D (남, 11세)	우즈베 키스탄	재학 (D초)	친부, 모, 누나	2016년5월	• 대답 • 듣기가능 • 사전이용.	• 게임을 좋아하며 학교가기를 힘들어함. • 집에만 있고 싶어 함.
E (여, 16세)	베트남	학교 밖	친모, 재혼부	2015년5월	• 대답 • 말하기 사전 이용 전달.	• 한국말을 잘 하고 싶어 함. • 화장하는 것을 좋아 함. •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싫어 한다고 생각함.
F (남, 16세)	베트남	학교 밖	친모, 재혼부, 누나	2015년6월	• 말하기 듣기 원활. • 어려운 단어 사전이용.	• 학교에 빨리 다니고 싶어 함. •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싶음. • 운동 잘 하고 싶어 함.
G (남, 15세)	베트남	학교 밖	친모, 재혼부	2015년4월	• 대답 • 말하기 사전 이용.	• 노래를 큰소리로 부르고 싶 어 함. • 한국말 더 잘하고 싶어 함.

연구참여자 A는 재혼부모의 무관심과 중국에서 학적서류 미비로 인해 학교에 아직 다니지 않고 있다. 거주지의 가톨릭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교실 한국어학습과 제도권 교육기관인 다문화 예비지정학교인 G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교실이 유일하게 학습을 받는 곳이다. A는 한국어로 대화 가능한 편이며, 의사 표현이 매우 적어 대화하는데 천천히 말해야 한다. 또한 어린 시절 모국에서 조모의 실수로 인해 양 팔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한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니고 손을 드러내 놓고 활동하는 것을 꺼려한다.

연구참여자 B는 현재 고1에 재학 중이며, 보통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편이다. 성실한 학교생활로 인해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교실을 열수 있는 열쇠도 가지고 다니며, 선생님의 심부름도 자주하는 편이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과 이야기하며, 본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연구자에게 반갑다는 포옹을 거침없이 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도 자주 한다. 방과 후에는 공부방과 성당을 다니며 생활하고 있다. 그는 연구참여자 A와 사촌관계이며, 연구참여자 A의 출석과 재료준비 및 통역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외조모와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 엄마 아빠랑 함께 사는 것을 기대 했으며, 남들처럼 부모와 함께 살고 싶다고 아쉬움을 표현 하였다.

연구참여자 C는 고려인 3세로 외조모가 우즈베키스탄에 계시며, 2015년 5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한국말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밝은 표정으로 에너지 넘치는 장난을 하며 집단에서 활기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눈치가 빠르며 화장을 좋아하고 예쁘게 치장하는 것을 좋아한다. 학교활동으로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며, 교내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2등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남들에게 우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고 싶어 하며, 영어 말하기와 그림솜씨를 뽐내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D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연구참여자 C와 남매사이로 누나에 비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연구참여자 C의 통역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핸드폰 게임을 즐겨하며, 게임에 몰두하는 바람에 결석하여 회기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추가 보충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술 작업할 때에는 진지한 표정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E는 베트남에서 2015년 5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인과 재혼한 베트남 출신이다. 한국이름으로 개명하였으며, 부모는 펫샵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펫샵에서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주고 있으며, 종종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도 한다. 화장하는 것을 좋아하며, 항상 거울을 소지하고 다닌다. 미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미술치료 수업에서는 매우 섬세한 가위질을 하며 그로 인해 활동 시간 내에 작업을 모두 마치지 못하는 편이다. 집에 일찍 귀가 하면 펫샵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연구참여자 F는 베트남에서 2015년 6월 한국에 입국했으며, 언어발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수업 중 연구자에게 질문을 가장 많이 한다. 작품의 완성도도 높은 편이고, 미술치료 활동을 매우 즐기는 모습이다. 수업을 마친 후에는 정리 정돈과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업활동에 임하고 있는 편이다.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한국인 양부의 노력으로 다문화 대안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연구참여자 G는 베트남에서 2015년 4월 한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다문화 대안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대화할 때는 큰소리로 의사소통하며, 휴대폰 게임과 본국의 가요를 좋아하며, 기분이 좋을 때는 흥에 겨운 표정과 몸짓으로 행동한다. 콜라주 작업 활동에서는 집중도가 높고, 꼼꼼하게 표현하기에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가 드물다. 분위기에 상관없이 본인의 감정대로 행동하여 수업분위기를 방해할 때도 종종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말에는 공손하며 잘 순응하는 편이다.

3. 연구절차와 도구

3.1. 연구절차

중도입국 청소년이 참여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콜라주 미술치료에 대한 선임 연구자의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참여자의 발달 및

인지·정서변화에 따른 작품 분석 및 사후 질문 과정(Post Drawing Inquiry)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미술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을 참여관찰하며, 회기별 변화를 기록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 <표 III-2> 와 같다.

<표 III-2> 연구절차

연구절차	기 간	연구 활동 내용
대상자 선정	2016년 2월 ~ 4월	대상자 선정 및 프로그램 구안
사전 기관 회의	2016년 5월 ~ 6월	3회차: 기관장, 담당교사, 연구자, 동의서
	2016년 7월 ~ 8월	4회차: 연구현장 답사, 연구방향 수정 논의 (학교생활적응)
연구방향 재검토	2016년 9월~10월	학교생활적응 질문지 수정, 번역
사전검사	2016년 11월	K-HTP, 면담기록 관찰일지
연구절차	2016년 12월 ~ 2017년 3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2회기 실시
사후검사	2017년 3월	K-HTP, 면담기록 관찰일지

사전·사후 그림검사는 K-HTP로 진단하였으며, 회기별 콜라주 작품 분석 및 생활적응에 관한 정서적 의미와 그림을 그린 후 질문(사후 질문: PDI)과 소감문을 분석한 후, 참여관찰기록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K-HTP는 Burns(1987)가 기존의 집-나무-사람(House Tree Person: HTP)그림검사에서 독창성을 가미시켜 Burn이 개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검사는 대인 관계와 대물관계, 삶속에서의 그 역할에 대한 개념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Maslow의 발달적 관점을 도입하여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함께 고찰하고 이해하도록 하였다(김동연 외, 2002).

본 연구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관련 연구(김민경, 2011; 양윤정, 2012; 이정원, 2013; 유화정, 2014; 신동진, 2014)와 자아탄력성 집단미술치료 관련 연구(허정선, 전순영, 2013; 이정원, 2013; 김정희, 2014; 이미경, 2013; 신동진, 2014), 다문화가정 자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관련 연구(신동진, 2014)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미술치료수련감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서적 차원, 인지적 차원, 의지적 차원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총 10회기 진행되었다. 미술치료 진행 순서는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로 구

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단계	회기	단계	주제	활동내용	기대경험	출처
초기 단계	오리엔테이션 사전 검사			K-HTP	·자기이해	정여주 (2003)
	1	라포 형성	나 소개 하기	자신의 이름을 제시된 워크 지에 글씨로 표현하며, 작 품의 의미 내용을 설명, 느 낌을 나눔	·라포 형성 ·자기 이해, ·사회적 고립감 감소.	
	2	육구 탐색	문양 만다라	문양만다라에 집중과 고요 체험, 후 콜라주 표현.	·회상과 고요체험 ·정서이완.	
중기 단계	3		나의 나무	나무구성과 함께하는 자신 과 동물콜라주 표현.	·자신의 정체성 객관화. 경험.	최외선 외 (2006)
	4	자기 이해 및 현실 인식	탄생	계란화로 탄생을 이미지화	·탄생의 의미. ·심리전환 인식.	
	5		곡물 만다라	곡물매체의 질감에서 오는 이완을 경험하고 침잠을 경 험	·정서이완 및 집중력 향상 ·창의적 활동 성취감.	
	6		탈	색유점도와 제시된 탈 모형 에 인물표현	·잠재된 무의식 및 내재된 불안 표출	
			선물 (택일)	주고 싶은 선물과 받고 싶 은 것을 콜라주로 표현	·자신 재인식. ·관계 인식. ·긍정적 기억.	
7	구분활법		잡지사 사진을 9개 선택하여 시계방향으로 콜라주.	·자기인식 ·수용적 추진방향	Moritani (1986)	
후기 단계	8	현실 적응 및 미래 비전	필름 그림 (택일)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상을 엽서크기로 제시된 워크지 에 표현.	·현실인식. ·감정해소 및 미래지향.	최외선 외(2007)
	9		동그 라미 가족화	동그라미 안에 가족표현과 주변에 색골판지로 콜라주.	·자기인식·긍정 적 자아 향상.	
	10		나만의 상장 (택일)	선택한 색지워크지에 받고 싶은 상장, 자격증을 표현.	·자아 존중감 향상. ·정서인식 및 성취감.	
			소망 나무 (택일)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소 망하는 것을 표현	·현실적응력 향상	
	사후검사		K-HTP	·자기이해		

위의 <표 III-3>을 살펴보면,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를 초기단계, 중간단계, 종결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순서는 콜라주표현→제목 만들기→내용과 의미를 인식하고, 감상 및 느낌 나누기로 진행된다.

초기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일정과 진행,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의무를 소개하였고, 미술치료 시작 전에 K-HTP 사전검사를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라포 형성, 긴장감 및 정서를 이완하는 목적으로서 개인별 심리상태와 갈등을 공감해 주며, 현재의 상태를 지지해주는 과정으로 시행되었다. ‘나 소개하기’는 자신의 성향과 특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며, 집단원의 성향과 특징을 빠른 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정여주, 2003). 2회기 ‘문양만다라’ 주제에서는 고요를 경험하게 하며 색상과 채색 순서에서 자아 에너지를 끌어내게 하였으며, 외향성과 내향성을 인식하는 경험을 가졌다. 3회기 ‘나의 나무’ 주제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객관화하며, 신체적·정신적·심리적 상태 경험과 창의력 및 상상력을 향상하게 하였다(정여주, 2003).

중기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감정표현의 방법을 훈련하고, 자아상을 알게 하는 자기이해 및 현실 인식을 목표로 4회기부터 7회기까지 진행되었다. 4회기는 ‘탄생’이라는 주제로 계란화 변형 콜라주 활동이다. 계란이라는 물체이미지를 자극하여 발견과 파괴 그리고 탄생이라는 과정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묘사를 통해 현재 심리적인 에너지 강도를 나타낸다(최외선, 김갑숙, 2006). 5회기의 주제는 ‘곡물 만다라’이며, 곡물에서 오는 느낌으로 이완과 고요 및 집중 그리고 창의적인 성취감을 느낌으로서 자신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최외선, 김갑숙, 2006). 6회기에는 ‘탈’이라는 주제로 유점토를 활용한 활동이다. 목표는 인물표현에서 무의식적 자아상 및 타인에 대한 수용적 관점을 경험하게 한다. 7회기의 주제는 ‘9분활법 콜라주’이다. 이 기법은 일본 愛知醫科大學 심리학과 교수인 Moritani(森谷, 1986)가 제안한 기법으로 콜라주를 가미한 활동이다(최외선, 김갑숙, 2006).

후기단계는 8회기부터 10회기까지 자신의 미래 긍정적인 자아상과 자신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현실적응 내면을 통찰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8회기의 주제는 ‘필름그림’이며,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자화상을 표현한다. 이 회기는 회상 및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경험과정이다. 9회기는 ‘동그라미 가족화’가 주제이다. 동그라미 중심 가족화(PSCD: Parent Self Circle Frawing)는 번스에 의해 개발된 투사화이다. 동그라미 중심 가족그림은 부친상, 모친상, 자기상을 따로 그려서 각각 분석하는 방법(Family Centered Circle Drawing technique : FCCD)과 부모상과 자기상을 한꺼번에 하나의 원 안에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PSCD: Parent Self Circle Frawing)이 있다. 인물의 행동 및 거리 내용으로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느껴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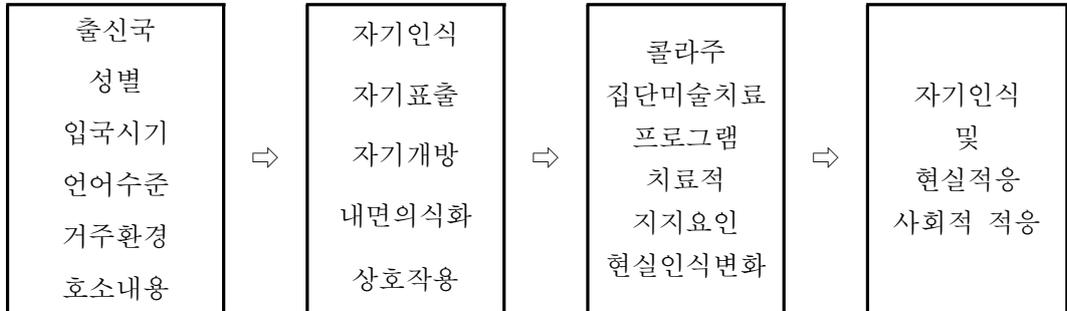
마지막 10회기는 집단별로 ‘받고 싶은 상장’과 ‘소망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진행하였다. 소망나무는 최외선(2007)의 꿈나무를 변형한 김미정(2009)과 양운정, 이근매(2012)를 참고로 하였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에 따른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도하는 현실적응력 향상에 목적을 두었고,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기법은 집단내에서 개별법이며, 콜라주 활동은 모두 함께 꾸미는 활동으로 상호대화와 작품전개에서 교류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집단의 역동성과 사회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또한 미술 작업에 대한 경험이 적은 연구참여자들의 긴장감을 이완하기 위한 주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선호하는 유행패션 감각 등 청소년의 공동관심사를 공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미술활동이 원만하게 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매체로서, 색연필, 사인펜, 점토, 잡지, 반짝이 풀, 스티커와 같이 사용하기 간편한 매체를 활용방법과 제시자료도 공유하면서 자신의 활동의도를 서로 이야기한 후 시작하는 것으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모형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Bronfenbrenner(1997)의 생태학적 이론⁸⁾을 토대로 한 학교생활적응모형(김태

8) 브론펜 브레너(Bronfen Brener, 1979)는 아동발달을 생태학적 모델로 보는 방법을 창안한 사람이다. 그는 아동이 사회라는 큰 틀 속에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발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포괄적으로 아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브론펜 브레너에 의하여 완성된 생태학적 심리학 발달이론은 기본적으로 아동이 참여하게 되는 생활공간과(환경)에서의 경험의 내용이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은 교육실천가와 이론가로 하여금,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아동이 학교에서 갖게 되는 전체적인 생활경험의 총체(인간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가 그 아동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지적

화, 2012)에서 조사도구를 근거로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의 개념 모형을 구축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의 현실적응을 위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모형은 다음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중도입국 청소년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과정

3.2. 연구도구

콜라주 미술치료 분석 기준은 일본의 Sugiura(杉浦, 1994)에 의해 개발된 치료기법으로 내담자의 심적 상태가 드러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이를 근거로 내담자별로 콜라주 미술치료 작품의 제작과정에서의 행동관찰과 작품에 드러나는 형식적 분석, 내용분석, 계열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콜라주 작품 분석 기준은 이근매와 아오키(2010)의 콜라주 미술치료와 Sugiura(杉浦, 2011)의 콜라주 요법, Moritani(森谷, 2012)의 콜라주 요법의 실천 가이드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양윤정, 2012 재인용). 이와 더불어 콜라주 작품 분석은 내담자의 자기치유 효과를 거두며, 콜라주 작품을 통하여 내담자의 현재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갈등을 돕고자 할 경우, 치료자는 콜라주 작품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담자의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이근매, 아오키, 2014). 또한 내담자의 증상과 발달사를 참고하여 현재의 심리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콜라주 분석기준은 콜라주 미술치료의 창시자인 Sugiura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연구자에게는 학교가 아동에게 어떠한 생활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볼 것을 요구한다.

(杉浦, 1994)의 연구와 Aoki(青木, 2005), 이근매(200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근매, 아오키, 2014). 콜라주 분석기준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콜라주 분석기준

영역	구분	내 용
형식 분석	조각 수	화지에 붙인 사진(매체)의 조각 수
	여백	작품이 구성된 화지에 여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
	화지이탈	화지에 붙인 사진(매체)조각이 화지 밖으로 벗어났는지 평가
	뒷면사용	화지의 뒷면을 사용하였는지를 평가
	중첩사용	화지에 사진(매체)조각을 겹쳐서 붙였는지를 평가
	자르는 방법	손으로 찢었는지, 가위로 오렸는지를 평가
	조각 모형	부정형, 사각형, 원형(형태대로 자른 것)
	공간배치	화지여백의 위치(상, 하, 좌, 우, 중앙)
	종이위치	화지를 가로로 사용했는지, 세로로 사용했는지를 평가
	통합성	작품이 균형이 잡혀있는지, 불균형 한지를 평가
내용 분석	사진내용	자연풍경, 인간, 동물, 식물, 불균형한지를 평가
	표현내용	추상적 내용, 명료한 내용인지를 평가
계열 분석	통합성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 평가
	주제	회기별 작품의 주제에 따른 평가
	공간 도식	회기별 작품의 화지의 공간사용에 대한 평가

콜라주 작품의 이해 및 분석기준은 <표 III-4>에 제시한 것과 같이 형식 분석, 내용 분석, 계열 분석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형식 분석은 공간상 배치와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가위사용 및 손으로 찢었는지, 사물을 여백을 두고 잘랐는지, 사물의 선을 따라 잘랐는지, 큰 조각을 붙였는지 작은 조각을 붙였는지 그리고 상하좌우 구분하여 조각과 여백이 어느 쪽에 많이 붙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내용 분석은 내담자가 콜라주 작품에 무엇을 붙였는지를 엄두에 둔다. 풍경, 인물, 음식, 문자, 매체 활용과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상징성은 동일한 사물이라도 민족, 지역,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열 분석에서 콜라주는 상담의 초기면접 또는 매회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해야 한다. 작품을 완성한 후,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담자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소통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콜라주 작품을 살펴보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표현물의 확인 또는 질문 단계이다. 세 번째는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나 완성 후의 느낌 및 감정에 대해 질문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는 치료자의 느낌이나 해석을 전달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는 통찰한 것을 언어화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치료자가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본인이 스스로 통찰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것이다. 또한 심리검사에서 투사검사는 그림이 개인의 정서 및 성격적 측면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용되는 ‘투사그림(Projective drawing)’이다. 투사그림검사는 벡(Buck, 1948)에 의해 ‘사람, 집, 나무(House-Tree- Person Test)’에서 21x27cm 크기의 종이가 제시되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해석이 도출되었다. Burns의 HTP에서는 각각 분리된 해석이지만, K-HTP는 역동성을 부여하면서 상호작용을 보완하여 K-HTP Test기법을 발전시켰다.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K-HTP)는 개인의 이해와 자신, 가족 그리고 생활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김상식, 2001). 또한 HTP는 ‘정신 병리적’ 집단에 대한 프로이트 학파의 이론적 기반인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의 해석과는 달리, 발달적 체계를 적용한 K-HTP의 해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고려한 심리학자 중 Burns의 스승인 Maslow의 욕구체계 모델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욕구 위계설 및 그의 숙련된 통찰력이 적용된 K-HTP의 자료는 Maslow의 ‘개방체계(Open-system)’ 영역과 발달적 초점에서 환원주의적인 프로이드체계를 뛰어 넘는 가설을 산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K-HTP 그림검사의 해석을 위한 Maslow의 발달모형(김지현, 2015)은 다음 <표 III-6>과 같다.

<표 III-5> K-HTP 그림검사의 해석을 위한 Maslow의 발달모형

	집	나무	사람
1단계 욕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요새나 감옥과 같은 구조, 출입구가 없음. 감옥처럼 창살 있는 창, 너무 작은 문 * 집은 보호와 안전을 위한 장소 • 회피형: 붕괴 직전의 집, 공허한 집, 무너질 것 같은 집 * 여기에 속한 사람은 죽음을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갈고리 같은 손톱 모양의 뿌리, 가시모양 나무들, 사슴뿔과 같은 가지 • 회피형: 죽었거나 죽어가는 나무, 줄기가 좁고 잎이 없거나 느물게 나 있음, 아래로 처진 가지와 잎, 가지가 부러지거나 말라죽은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공격적인 표현, 편집증적인 특징, 무기를 가진 인물 • 회피형: 슬픈 표정, 속이 비어 있음, 자기 파괴적
2단계 욕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정밀하게 그려진 촛불 동그라미, 남성기 상징의 장식 * 감각적, 쾌락주의 반영 • 회피형: 종교적 상징, ×표 상징, 길게 음영이 진 지붕, 격자 무늬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남근형상의 나무, 나무껍질이나 잎 강조 • 회피형: 줄기에 ×표, 세밀하게 그려진 나무, 지워지고 생략됨, 뚝뚝하게 옷으로 몸을 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신체가 강조됨, 근육(육체미), 여성의 특정한 신체부위 강조, 조깅하는 사람 • 회피형: 신체부위 생략, 지우거나 생략, 허리 아래 부분에 진할 색깔, 몸 위에 ×표
3단계 욕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크고 좋아 보이는 집, 큰 아파트 * 성공, 지위, 권력, 존경에 관한 욕구 반영 • 회피형: 집이 크기는 하지만 누추하게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크고 화려한 나무, 단단한 떡갈나무 • 회피형: 큰 줄기에 작은 가지, 줄기는 크나 가지는 작고 안으로 향함, 큰 나무에 큰 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 세련되고 값비싼 옷, 보석을 지니고 있음 • 회피형: 반문명적인 모습, 빈곤한 모습
4단계 욕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형이나 회피형의 이분법이 나타나지 않고, 다만 통합된 조화가 있으며, 집은 화목한 가정이 되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곳 • 커튼은 숨기 위한 것이 아니며, 아름다움을 위한 것 장난감, 꽃, 나무들이 가족과 보호의 상징으로 나타남 • 집 입구에는 문과 문고리가 있고, 빛이 비추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된 나무로 그들과 올라갈 수 있는 장소이며, 떨어지거나 상하지 않은 과일과 열매가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은 완성품이며, 양육적이고 보살핌, 지지적이고 도와주는 행위들로 나타남

5단계 욕구 수준	가정은 행복과 환영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것 이 수준에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자아와 비자아 모두를 수용함 가정은 따뜻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나무, 꽃, 새, 태양, 산들이 하나의 생활의 향연으로 포함됨 가정은 신체, 자아, 기타 다른 모든 것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완전함과 창의적인 노력을 반영함 4단계 수준의 모든 가치에 즐거운 손질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가미됨	풍성한 나무로 가지는 위쪽과 바깥쪽으로 향함 부러지지 않고, 생기있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며 새, 태양, 산 등이 있을 수 있음 4단계 수준에 비해 하늘로 향하듯이 상승의 움직임이 보이며, 하늘과 땅의 조화가 나타남	그림은 전체적이며, 강하고, 균형이 잡혀있고, 사랑이 있음
-----------------	--	---	----------------------------------

Burns & Kaufman(1972)은 가로 용지에 행동이 포함된 집·나무·사람을 검사함으로써 발전된 분석방법을 그림에 적용하였다. 또한 사후질문과정(Post Drawing Inquiry)의 대답 내용을 기준으로 함께 평가하기도 한다.

투사그림검사 K-HTP의 해석 기준(옥금자, 2007)은 다음 <표 III-7>과 같다.

<표 III-6> K-HTP의 해석 기준

영역	내용
그림 간의 밀착, 거리, 순서, 크기	그림에서 밀착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거나 실패감을 느낄 때, 피검자는 밀착된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신이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실패 또는 불만족 등의 어려움을 나타내게 된다. 집·나무·사람그림에서 가정 먼저 그려진 그림은 피검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가설이 있다.
활동내용	집 그림에서는 집의 형태가 기울기를 통해 피검자의 안정성을 볼 수 있고, 수직과 수평을 통해 욕구를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그림속 상징은 피검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가설로 ① 수직과 수평적 집 그림, ② 나무속의 동물, ③ 둥지의 새, ④ 집을 향해 있고 아래로 쳐진 나뭇가지, ⑤ 아래로 쳐진 나뭇가지, ⑥ 집을 향해 있는 나뭇가지와 잎이 풍성한 나무, ⑦ 지붕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⑧ 떨어진 과일나무, ⑨ 그네가 있는 나무가 있다.

표현양식	<p>투사그림에서 표현양식은 번스와 카우프만(1972)에 의해 개발되었고, 번스(1982)와 크노프와 프로우트(Knoff & Prout, 1985)에 의해 더욱 확장되고 구체화되었다. 제시된 K-HTP 임상활용에서의 가설에서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① 밀착되지 않고 분리된 경우, ② 나무와 집이 밀착 된 경우, ③ 집, 남, 사람이 밀착 된 경우, ④ 조감도, ⑤ K-HTP에서 선을 그리는 경우와 시작한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하는 경우, ⑥ 검사지보다 크게 그리는 경우, ⑦ 검사지 아래에 K-HTP를 연장하여 그린 경우이다. 그 외에 구분화, 모서리화, 포위 양식에 대해서는 HTP 검사기준을 참고하고 있다.</p>
------	--

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사전·사후 심리검사인 K-HTP 그림검사와 콜라주 미술치료 회기별 작품과 사후질문(PDI), 소감문,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제시하는 콜라주 작업을 위한 오브제 매체를 사용하여 콜라주 미술치료 작업과정은 연구참여자의 현재 드러나는 내적 심리상태를 무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행동, 숨소리, 비언어적 표현은 작품 뒤에서 한편의 드라마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간의 내적 갈등의 민감한 표현은 연구자인 치료사의 훈련된 고도의 전문성과 통찰로 인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찰라에서 발생하는 미술치료 절정 교감순간을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의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심적 내면 보호를 우선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와 지속적이고 비언어적인 소통 및 지지를 통해 치유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노력하였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를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와의 대화, 표정, 행동을 관찰하여 매회기마다 참여관찰을 수행했으며, 이를 일지로 작성하였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작품에서 드러난 작품내용 및 의미 변화를 기록했으며, 집단원의 행동특징을 사전·사후 K-HTP 검사를 실시하였고, 매 회기 시 관찰·기록하여 개인별 질적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와 미술치료임상 감독자 자격을 갖춘 연구자가 참여관찰 일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연구결과의 내용을 점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게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질적 연구의 타당도에 대해 헤머슬리(Hammersley, 1988)는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설명은 근거가 있으며 진실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Creswell, 2000). 이는 질적 연구에서는 결과의 일반화 혹은 객관화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연구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연구했나에 가치를 둔다는 것으로 즉, 질적연구의 기본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전략은 연구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분석에 참여하도록 동기화하는데 있다(박봉수, 2016).

본 연구에서는 연구절차에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메리엄(Merriam, 1998)의 전략 중 일부를 차용하고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 1982)이 고안한 진실성(truth value), 적합성(fitness),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기준을 충족하기(김영순 외, 2014)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신뢰 형성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라포는 연구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참여관계에서 형성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임상연구 현장에서 참여자의 작품을 표현하는 과정과 참여자의 작품내용의 의도, 이미지, 상징이 주는 의미를 연구의 통찰 및 현상을 그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어지는 사후질문에서 의도하는 의미를 참고로 분석을 하였고, 이후에는 분석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의 치료적 지지는 어떠한지, 임의로 의미를 부여했는지, 치료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지시적 질문을 했는지,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의도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치료적 환경을 유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통합적 성찰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회기별 주제와 콜라주 미술치료관점을 설명하고 작품결과와 활동과정에서의 행동특성 의미와 상징을 증명 하며 작품결과

물과 그림그린후 소감자료는 자료수집의 다양화를 위해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확보 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 방법, 연구자와 이론을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하였다.

셋째,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 1982)이 고안한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이다(신경림, 1996).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서의 사례연구이며, 콜라주 미술치료 기법 및 조형활동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관련 분야에서 공신된 식견을 지니고 있고 연구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미술심리상담 수련감독 전문가의 조언으로 연구 분석기준자료와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실에서 개최하는 질적 연구를 위한 콜로키움을 활용하여 공동강의자 및 멘토와 지속적인 코멘트를 통해 공유된 내용을 확보하였다.

넷째, 연구자에 의해 섭외된 임상수련감독 전문가가 연구의 과정과 결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또한 사전면담인 초기면접에서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프로그램의 특징,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심적 변화로 인한 중단 가능성 및 혜택을 사전에 알려주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특히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콜라주작품 및 인터뷰 영상촬영 활용하는 경우에서 작품사진은 개인의 저작권에 관한 것으로 사진을 그대로 제시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만 연구에 활용하였다. 작품내용 비밀유지와 익명성을 설명하고 참여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원할 시에는 언제나 중도에 하차할 수 있음에 대해 알려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만약 연구참여자가 면담 중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면담을 중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속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가 참여를 중단하여도 연구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과 연구자의 사정에 의해 연구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 프로그램의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소감문 그리고 작품결과물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인간 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연구 종료 3년 후 원 자료를 폐기할 것에 관해 설명한 후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치료 교수 1인, 대학에서 질적 연구 전문가 교수 1인, 연구교수 1인으로 구성하여 연구진행을 협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질적연구 전문교수와 개별적으로 신뢰성을 형성하기 위한 콜로키움은 1주일에 1회 3시간씩에 걸쳐 진행 중인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진행과정 발표와 코멘트, 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질적 연구를 위한 콜로키움은 지도교수를 비롯하여 2인의 공동강의 교수, 연구교수로 구성되었다. 또한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에서 주최하는 2015, 2016, 2017년도 질적 연구 방법론 '봄'과 '가을' 캠프 과정에 년 간 2회씩 참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분석 및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관점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연구진행에서 연구자 또한 참여자 확인 작업을 중시하면서 기초 자료인 콜라주 작품과 사후질문내용 및 소감문 자료는 잠정적 연구텍스트와, 완성된 연구텍스트를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절차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연구 기획과정을 통해 주제에 관한 매체 활용 및 제작기법을 확인하고 진행프로그램 주제는 참여자들의 상황 및 성향을 파악하여 정리하여 제작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연구참여자와 원 작품자료 내용과 의미 분석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고, 작품에서 가려진 무의식의 상징성을 확보하여 연구 참여자의 이견이 있거나 불일치되는 연구자의 의문은 후속 개방적인 만남을 통하여 개방적 질문으로 작품의 의도와 시간차를 두는 내용의 변화를 조정하는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회기별 작품 분석과 분석틀에 의한 내용을 참여자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참여자의 의견 및 보호를 먼저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구자료 확인을 검토 받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관계기관 및 IRB 연구결과 제출 후 승인을 얻어 검토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 시마다 연구참여에 대한 활동과정 중 활동 강화와 보상과 참여에 대한 답례의 목적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현재 본 연구자의 연구는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2016년 11월 22일 연구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160412-1A이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참여경험과, 심리·정서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투사검사, 회기별 콜라주작품 분석, 사후 질문(PDI)⁹⁾, 회기별 소감문을 통한 사례별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과정에서 참여자의 현재 심적 상태는 내면의 무의식이 작품에 드러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연구 집단의 참여자별로 콜라주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작품에 드러난 형식, 내용, 색상선택, 매체 선호, 반복된 행동 및 “here and now”¹⁰⁾의 통합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변화 사례

1.1. 사례 내 분석

1.1.1 단계별 사례

단계별 사례에서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개인 사례를 단계별 행동관찰 및 작품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기술하였고, 참여과정에서의 행동적 측면,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을 관찰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미술치료이론에 따른 참여자 A~G의 심리정서 변화과정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9) 사후질문(PDI- post drawing inquiry: 사후질문과정)은 자기상, 신체상, 이상적 자기 성정체감 등 성격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다.

10) 'Here and Now'는 지금여기를 강조하는 게슈탈트 심리치료로서 통합을 중시하고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을 강조한다.

1) 참여자 A의 사례

참여자 A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 과 작품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진행 활동과정으로는 주제제시에 의한 도입과정, 치료실기 활동, 작품 감상, 자아탐색, 치료사지지, 작품제목 제작, 개인별 완성된 작품에 대한 집단 내 느낌 나눔, 활동에 관한 소감문 작성 등으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참여자 A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참여자 A의 초기단계 사례

단 계	초기단계		
	1 회기	2 회기	3 회기
회 기	1 회기	2 회기	3 회기
주 제	나 소개하기	문양만다라	나의나무
제 목	‘하얼빈 소나무’	‘깜깜한 우주에 별과 나비가 날고 있어요’	‘그냥 사람’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제시에서 머뭇거리 는 모습으로 색지를 선택 하였다. 한동안 옆 친구 B의 작업 활동을 지켜보 다가 네임카드 워크지에 자신의 이름을 4B연필로 쓴 다음, 파란색 사인펜 을 사용하여 가장자리 테 를 그리고 오렌지색과 노 란색으로 채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양 만다라콜라주는 문 양을 선택하는데 오랜 시 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나비모양 같다고 혼잣말 로 중얼거리면서 문양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작 전 매체 색유점도 에 대한 관심을 보임. 만 저도 되냐고 묻기도 하였 다. 탈을 꾸미는 작업은 제시된 몇 종류의 탈 선 택 중, 뿔 관을 쓴 남자 탈을 선택함. 점도를 주 무르고 혼합색을 만들. 갈색, 분홍색, 연노랑, 밝 은 파랑색, 유점도로 탈 하반부부터 구분하여 형 태를 꾸미기 시작.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을 나타내는 ‘김’자 오 른쪽에 연두색 세로모양 의 침엽수 나무그림(‘소나 무’라고 함)을 색 사인펜 으로 표현. 네임 카드워크지 세장이 좌우 대칭으로 구성 되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은 분홍, 노란, 빨간, 오렌지색 골판지로 별, 동그라미로 모양을 오려 붙이고 ‘여기는 우주예요’ 라고 이야기함. ‘깜깜한 우주에 별과 나비가 날고 있어요’라고 주제를 정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빨간색으로 코를 드러나 게 꾸밈. 둥글게 구슬모 양으로 색색이 이중 작업 을 꾸밈으로써 작업을 마 무리하였다. 제목은 ‘그냥 사람(men)’ 이라고 함. 전 회기에 비해 자기표

	<p>고, 파랑색 도화지에는 꾸밈이 없이 공백으로 표현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송’자는 소나무 ‘송(松)’자라고 한자를 써 보이고, 성씨 ‘김’자에 소나무를 그린 것은 여기에서 자신이 살았던 고향 하얼빈에는 소나무가 많았다는 것을 설명.</p>	<p>고, 미소를 지음. •첫 회기보다는 전체적 구성이 덜 단조로웠으며, 자신에게 집중과 고요 경향이어서 중심에 문양 만다라를 채색하여 붙이고 비교적 주변을 등글게 골판지로 표현하였다. 색 선택에서 밝고 따듯한 색을 선택한 것은 김정 바탕과의 대비효과를 나타냄.</p>	<p>현에 있어서 자유로운 작업 행동을 나타냄. 탈 열굴의 코 부분을 붉은색으로 강조한 의미는 남성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테일 한 마무리 꾸밈.</p>
<p>활동과정</p>	<p>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p>		

<표 IV-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A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시작 전 주위를 살피며 옆 친구의 행동을 관찰하고 난 뒤에 자신의 작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시된 매체를 접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적 외상으로 가위질 등 손을 사용하는 행동에서 어색해 하지만, 미술매체에 대한 긍정적인 표정을 보인다. 이어진 작품 내용에서는 고향에 대한 소재가 등장하였으며, 점토작업에서는 혼합을 하여 다양한 색을 만들어 인체를 꾸몄다. 이러한 행위는 미술매체에 대한 긍정적인 표정과 접근에서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A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2>과 같다.

<표 IV-2> 참여자 A의 중기단계 사례

단 계	중기단계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회 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주 제	나의 나무	곡물만다라	선물	구분활법
제 목	‘나무에 동물이 살아요’	‘눈 발자국’	‘함께 선물 주고 받아요’	‘시원하고 좋아요’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색지는 진한 남색을 선택하며 세로로 배치함. •나무위크지는 다른 친구들 하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남은 것으로 사용함. •동물 씨트지는 동물형태 표현 부분에서 손과 팔의 외상으로 인한 이유로 가위질에 불편을 보임. •나무에 살고 있는 새들에 대하여 이것저것 질문함. 다람쥐사진은 하단 및 나무기둥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 매체 중 흰색 일회용 접시에 지점도와 흰색 유점토위에 곡물로 꾸며보는 활동이다. •곡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으며, 몇 종류로 꾸밈. •장방형의 형식을 나타냈고, 짙은 손가락사용이 부자유스러웠기 때문에 가장 일찍 작업을 마무리했다. A는 곡물로 미술 활동을 한다는 것이 불편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받고 싶은 선물과 누구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인지를 나타내는 구성적 표현은 전체 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 비율이 비슷하게 나열했다. •사진은 자신이 돈을 벌어서 고급 승용차, 고급 시계, 맛있는 음식, 자동차를 두 번 선택했으며, 재미있는 놀이 사진도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홉칸으로 나눈 후 1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9번까지 나뉘어진 칸에 순서대로 선택. •흰 바탕 도화지 위에 전체 9개 사진 중 6번 사진은 건물 정원 그림이고, 그 외 사진은 실내에 아늑한 패브릭소품 및 정돈된 식당,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밝은 창가, 아동용 침실 등이다. 구성적인 부분은 한 칸에 한 장씩만 선택.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그림도 해도 되냐고 조심스레 물어봄. 나뭇가지에 그네 타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함. 그 외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은 참새라고 하면서 귀여운 그림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국에서의 생활 정서와 다른 매체였고, 음식으로 장난한다고 생각하여 매우 어색해 하였으며, 완성된 작품은 본 작업의 의미와 의도에 방어진인 태도. 다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고 싶은 선물에서는 아빠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함께 휴식과 잠자리를 할 수 있는 단조로우며 편안한 침실을 선택하고, 맛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기 특징으로 남성 사례에서 잘 나타나는 소재로 자동차와 시계를 들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누구로부터 받고자 하는 질문이었으나 본인인 자신이 돈을

	고 웃음을 지음. 다른 친구들 그림도 보며 여유있는 태도로 임함.	집단원들 작품을 보며 빙긋이 웃기도 하였으며 다른 작품들을 손으로 꼭꼭 눌러 보는 행동.	보이는 요리를 아빠와 같이 먹고 싶다고 하였다. 바탕색으로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대비되어 선명한 색상으로 좌우 대비.	벌어 사고 싶다고 하였다. •선명한 초록색 바탕위에 음식과 안락한 침실표현으로 여기서 자고 싶다고 함.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위 <표 IV-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A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여전히 신체적 외상으로 가위로 오리는 활동에 불편함을 보이지만, 초기와는 달리 스스로 하려는 움직임 보였다. 여러 가지 사진그림과 색지에서 오는 호기심이 활동성을 부족인 듯 보였다. 이어진 작품내용에서는 다양한 소재의 사진그림 및 곡물로 화면을 꾸몄으며, 매체 탐색을 함으로 흥미를 느끼며 선명한 색상으로 보색대비로 화면구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내용면에서 자신의 의지를 대변하는 상징적 표현은 음식사진과 가족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의 욕구를 나타냈다. 이것은 현실적 타협으로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A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참여자 A의 후기단계 사례

단 계	후기단계		
	8회기	9회기	10회기
회 기	8회기	9회기	10회기
주 제	탄생	동그라미 가족화	받고싶은 상장
제 목	‘좋은 것이 있어요’	‘가족’	‘자격증’

<p>행동 관찰</p>	<p>•구성적인 측면에서 양 쪽으로 벌어진 계란 조각과 아직은 표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파란색 글씨로 친구, 고기, 돈 그리고 좌측 상단에 사람을 막대형태의 줄라맨이라고 불리우는 형태로 표현.</p>	<p>•먼저 동그라미 원 안에 가족을 표현한 후 선택한 검정 도화지 위에 오려 부치고 주변을 색 골판지로 다양한 형태로 꾸미는 작업이다. 해가 좌측 상단에 떠 있고 그 하단에 가족 네 명이 손잡고 오른쪽 쪽으로 향하는 그림.</p>	<p>•A는 평소에 축구를 좋아하고 잘하며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으나, 마지막 회기에서는 중국말도 잘 하고 한국말도 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직업을 검색해 보니 동시통역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였다.</p>
<p>작품 내용</p>	<p>•어떤 형태 또는 내용으로 사람이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욕구에 대한 상징으로 고기라는 표현과 사회적 소통을 하고, 자신을 꾸미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소재 등장 그리고 정서적 지지와 자신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집으로 표현된 소재는 후기단계로서 본 프로그램 경험이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집은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가족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사람 두상을 붉은 색으로 동글게 채색한 부분과 손과 발 및 얼굴의 이목구비는 생략되었다 바탕 전체에 하늘색으로 상하 구분없이 채워져 있다. 이러한 가족화 표현의 집 그림에서 창문은 있으나 출입구는 작게 표현됐으며, 그 위에 검정 칠로 덧입혔다. 그래서 출입구가 생략된 것처럼 보인다.</p>	<p>•진한 핑크색 도화지바탕에 흰색 도화지를 선택하여 6년 후인 2022년에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무역회사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하고 부자로 살고 싶다고 하였다. 하지만 드러난 무의식으로 하단에 ‘월드컵’이라는 표현은 A가 평소하고 싶은 축구를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무의식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서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한다</p>
<p>활동과정</p>	<p>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p>		

위 <표 IV-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A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어릴 적 꿈이 축구선수였으며 자신은 축구를 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많아야한다고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다. 또한 중국말을 잘해서 한국어와 함께 이중 언어를 사용하여 동시 통역사를 하고자 한다는 의견도 표현하였다. 작품내용에서는 가족, 가정, 축구에 대한 애착을 보이며, 미래의 독립적 요소도 내포되어있다. 후기에서 나타난 이러한 표현에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현실적 접근에 비추어 현재 생활적응에 대한 노력과 미래설계에 대한 계획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 A의 단계별회기 사례분석>

참여자 10회기 프로그램 활동에서 행동특징과 관찰기록 및 작품에 나타난 상징을 회기별로 살펴보면, 초기단계인 라포 형성 및 자아탐색단계인 이름꾸미기, 문양 만다라, 나의 나무 주제에서는 옆 친구의 작품 과정을 관찰하며 하나하나 따라서 그리고, 오리고, 붙이면서 작업했다. 색상지는 하늘색 등 블루계열의 색을 선택하였다. 익숙지 않은 손놀림과 화상으로 드러내기 힘든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사용하면서 신체의 불편함을 작품표현에서 그대로 허술한 완성으로 나타냈다.

색상지는 하늘색 등 블루계열의 색을 선택하였다. 익숙지 않은 손놀림과 화상으로 드러내기 힘든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사용하면서 신체의 불편함을 작품표현에서 그대로 허술한 완성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초기 프로그램 표현은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본국에서의 유아동기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갈등과 한국의 새어머니와의 어색한 만남 그리고 유아기에 헤어진 아버지와의 서먹한 가정 분위기와 언어적 소통의 한계 및 한국에 입국하여 제도권 밖의 학교밖 청소년의 소속감 결여로 매우 위축되고 방어적인 표현을 나타냈다.

중기단계인 자아표출 단계인 탄생, 곡물만다라, 탈, 구분활법, 필름그림 주제로 하는 작업과정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나뭇대로의 소재로 위축된 작 은 크기이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핸드폰, 사고 싶은 옷 등등 마스크 영향으로 보이는 청소년시기의 즉흥적인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모국과는 다른 낯선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소외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양가감정을 현실에서 얻고자 하는 자극적 욕구 표현으로 현재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콜라주 표현이 주는 무의식 탐색과 내면의 자아상 표출은 그대로 자신의 페르조나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 과정과 치료사의 수용적 과정 및 적극적인 지지로 무의식을 탐색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으며,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종결단계인 통찰 및 미래 비전 단계에서는 동그라미 가족화, 상상 만들기 주제에서 나타나는 비행기, 여행, 커다란 아파트, 학교진학 등 본 프로그램의 초기와 중기과정에서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표현

으로 미래에 결혼한 자신의 가족,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사귀고자 하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자신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행동변화에서도 자신의 화상으로 인해 꺼려하는 팔과 손을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편안한 정서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재인식하고, 미래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현실적응, 즉 현실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다음 <표 IV-4>에서는 참여자 A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표 IV-4> 참여자 A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영역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행동적인 측면	무표정과 눈 맞춤이 없는 모습으로 미술매체만 응시하며 머뭇거리고 질문에 대답이 없음. 화상으로 손을 사용하는 가위질은 꺼려 함.	매체에 관심을 보이며, 매체를 반복적인 선택으로 욕구를 표현. 질문에 대답과 주변 정리를 도와 줌.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은 웃으며 기분 좋은 감정을 드러냄.	반갑게 인사를 하며 주제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물어봄. 작품 설명 시 반복하는 면도 있으나 집단원들이 웃어도 자기주장을 마지막까지 설명.
형식적인 측면	콜라주 사진 또는 색지 외 골판지 꾸밈 조각이 단조로우며 대칭으로 표현.	사진형태보다는 자신이 간결하게 네모 형태로 자르며, 화면 안에서만 구성.	네모 형태로 크기도 비슷한 동일면을 사용하였고, 좌우대칭과 중앙에 표현.
내용적인 측면	자신의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신만 표현.	유년기 회상과 미래 기대를 표현하였으며, 가족에 대한 기대욕구를 표현.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지지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나타냈으며, 성인이 되면 직업을 현실적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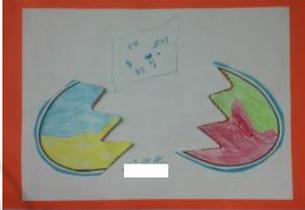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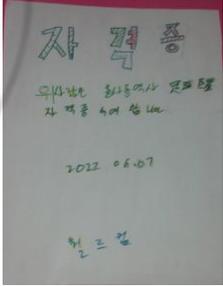
초기단계에서는 입국초기 남자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한 입지와 소외된 정서 갈등 표현, 그리고 익숙지 않은 활동경험으로 정체성 혼란과 사회, 가족, 교우의 지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중기 단계에서는 자기표현에 대한 방어와 이중적 표현과의 갈등적 표현이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 등을 재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변상황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행동은 현실생활적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 단계에서의 행동, 형식,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은 집단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소속감을 확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품과정에서 의도하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로 현재 학교 밖 생활의 무기력한 불안을 극복하고 현실적응에 대한 희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 A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 작품은 다음 [그림 IV-1]과 같다.

1회기	‘하얼빈 소나무’	2회기	‘깜깜한 우주에 별과 나비가 날고 있어요’
	‘나 소개하기’		
3회기	‘그냥 사람’	4회기	‘나무에 동물이 살아요’
			

5회기	‘눈 발자국’	6회기	‘함께 선물 주고 받아요’
			
7회기	‘시원하고 좋아요’	8회기	‘좋은 것이 있어요’
			
9회기	‘가족’	10회기	‘자격증’
			

[그림 IV-1] 참여자 A의 10회기 작품

2) 참여자 B의 사례

참여자 B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 및 작품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진행 활동과정으로는 주제제시에 의한 도입과정, 치료실기 활동, 작품 감상, 자아탐색, 치료사지지, 작품제목 제작, 개인별 완성된 작품에 대한 집단내 느낌의 나눔, 활동에 관한 소감문 작성 등으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참여자 B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5>과 같다.

<표 IV-5> 참여자 B의 초기단계 사례

단 계	초기단계		
	회 기	1 회기	2 회기
주 제	나 소개하기	문양만다라	나의나무
제 목	'내 이름'	'바람개비'	'분홍얼굴'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B는 밝고 웃는 표정의 모습으로 분홍색 지 선택과 네임카드 및 색상지를 신중히 고르는 모습이다. 핑크와 연두색 및 밝은 노란색의 색지와 동일한 색 사인펜으로 네임카드 워크지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그리며 '예쁘게 할 거예요', '놀이공원도 그려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며, 그린 후 가장자리를 곡선과 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꾸미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선이 어우러진 문양을 선택함. 보라색을 규칙적으로 문양에 따라 채색하였다. "예쁜 무늬 바람개비 같아요"라고 말하며,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 계열로 채색하였다. 밝은 분홍, 노란, 빨간, 오렌지 색 골판지로 별, 동그라미, 길 다란 물방울 모양으로 오려 붙이면서 '별이 빛나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 작업 매체는 유점토 활동은 선호하지 않은 듯 보임. 유점토를 물끄러미 관찰하였으며, 탈 꾸미는 작업에서 제시된 몇 종류의 탈 중, 하회탈을 선택하였다. 분홍색, 연노랑, 그리고 갈색으로 혼합하여, 탈 가장자리에 분홍색부터 구분하여 색을 부착하였으며 "저는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탈은 남자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의 형식은 일렬 배열 구성이 아닌 각도를 기울인 구성으로 역동성을 주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이름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방에 별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고요한 체험과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으로 중심에 채색한 문양 만다라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빨간색으로 코를 꾸몄으며 입 주변을 양쪽 아래 볼 부분까지 붉은색으로 덮어서 꾸민 점은 특이하다. 제목은 '웃는 사람'이

	놀이공원의 열차와 둥근 놀이기구를 표현하였으며, “또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해맑은 표정으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붙였으며, 의미는 힘차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와 새싹 잎이 피어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였다. 밝고 온화한 색을 선택하였고, 김정 바탕과의 대비되는 채색과 문양 속의 바람개비 형태를 찾아내어 채색.	라고 하였다. 사람에 대한 성별 선호도를 표현한 것은 반 친구들이 화장에 관심이 있고 본인도 화장을 하고 싶지만 수줍어하며, 엄마가 싫어해서 자신은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B의 행동 관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비교적 원활한 언어 소통과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선호하는 부분을 표현하였다. 이어서 작품내용에서 나타나는 표현의미를 살펴보면, 자신이 표현한 소재 및 매체에 대하여 설명과 의미를 지니는 특징적 표현을 하였다. 즉, 놀이공원, 바람개비, 웃는 사람 등의 작품내용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자신을 두각시킴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체성 존립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B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6>과 같다.

<표 IV-6> 참여자 B의 중기단계 사례

단 계	초기단계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회 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주 제	필름그림	곡물만다라	선물	구분활법
제 목	‘예쁜 내모습’	‘떡’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좋아요’

<p>행동 관찰</p>	<p>•유년기 본국에서 어릴 시절을 회상하며,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며 미끄럼틀과 모래놀이를 하였던 추억을 빨간색으로 표현하였다. 현재는 친구를 만나고 책도 읽고 휴대폰도 들고 있는 그림을 연두색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미래는 배낭을 메고 여러 곳을 다니는 여행을 하는 모습이라고 하며 핑크색으로 표현.</p>	<p>•유점도에 검정색 콩을 먼저 가장자리부터 꾸미고, 점차 중앙으로 정돈된 원을 그리며 차례차례 꾸몄으며, 마지막으로 적색 콩 두 개를 중앙에 놓았다. 어려움 없이 빠른 속도로 활동하였으며, 옆 친구들이 바닥에 떨어트린 콩을 주어 담기도 하였다.</p>	<p>•붉은색 도화지 바탕에 받고 싶은 선물과 분홍색 바탕에 주고 싶은 선물을 꾸몄다. 형식적인 구성은 주고 싶은 선물의 종류가 더 많았다. 누구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지에 대한 표현에서는 커다란 햄버거와 빨간색 자동차, 입고 싶은 옷, 실내 공간 등이었다.</p>	<p>•노란색 도화지위에 전체 9개 사진 중 마지막 9번 사진은 노란건물을 선택하였다. 9번 그림에서의 내용은 노란색이 마음에 들고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넓은 집에서 가족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p>
<p>작품 내용</p>	<p>•여행지는 ‘한국에서 가 보지 않은 곳을 더 가보고 중국도 기회가 되면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 노란색 바탕에 색 골판지를 오리고 붙였으며, 색연필로 상하 부분에 곡선과 점으로 화려한 바탕을 꾸밈.</p>	<p>• ‘먹는 음식을 이렇게 장난하면 우리 할머니가 아시면 혼 날거야’라며 친구들과 함께 웃었다. 자연스러운 곡물표현에서는 정서이완이 내포되어 있었고, 조모에 대한 교육방침도 엿볼 수 있었으며, 순응적인 B의 가정생활환경을 볼 수 있었다.</p>	<p>•주고 싶은 선물에서는 엄마에게 빨간 원피스, 가방, 구두, 액세서리 및 아늑한 실내 공간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따듯한 외투를 선물하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고 다시는 떨어져 살지 않고자 본인이 엄마에게 경제적인 힘이 되고자 한다.</p>	<p>• 구성적인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네모 칸 안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그 외에 1~8번까지는 실내풍경과 강아지, 1번 그림은 설에 맞난 떡 만두국을 엄마와 함께 먹고 싶다고 하였다. 5번 그림은 잘 꾸며진 실내 화단조경에 악보가 연출된 사진그림이며, 여기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였다.</p>
<p>활동과정</p>	<p>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p>			

<표 IV-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B의 행동 관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유년기 자신을 돌보아준 본국에서의 할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었으며, 선물 속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관심받고자 하는 표현으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에 관한 소재와 내용을 나타냈으며, 특히 현재 한국에서 떨어져 살고 있는 엄마에 대한 애착 등을 경제적 힘으로 강하게 표현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엄마와의 분리불안이 무의식에 내포 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B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7>과 같다.

<표 IV-7> 참여자 B의 후기단계 사례

단 계	후기단계		
	8회기	9회기	10회기
회 기	8회기	9회기	10회기
주 제	탄생	동그라미 가족화	받고싶은 상장
제 목	‘미래계획’	‘마작하는 우리가족’	‘자격증’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회기에 제시된 내용 중 여행은 한국과 중국이었으나 영국 여행이라는 시각을 넓게 가지고 표현. •본인은 성인이 되어서 미국같이 좋은 나라도 구경하며 미국친구 영국친구들을 사귀고 싶다고 함. •또한 하루빨리 엄마 아빠와 합쳐서 살고 싶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저 동그라미 원 안에 가족을 표현한 후 선택한 검정 도화지 위에 오려 부치고 주변을 색 골판지로 다양한 형태로 꾸미는 작업이다.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본인이 마작 놀이를 하고 있는 풍경이라고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하고 싶은 장래 직업은 중국어 통역사로 앞으로 4년 후인 2020년에 대학을 졸업하여 훌륭한 사업가로서 통역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자신은 중국어를 잘하니까 문 제없이 잘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였다. 화면 바탕은 노란색으로 선택.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에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여 커피전문점 사장이 되어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와 아빠에게 멋진 집을 사드리겠다고 했다. 6회기까지만 해도 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국에서 하던 놀이 문화 중 마작이라는 놀이를 현재 한국에서도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즐겨하는 놀이문화라고 하며, 본인도 가족과 마작을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B는 평소에도 노란색을 선호하였고, 본인이 강조하고자 할 때도 노란색을 선택한 것은 취향에 맞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바리스타가 되

	<p>마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번 8회기에서는 아빠까지 등장하였다. 멋진 집에는 아빠와 엄마가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본인이 마련하고 싶다고 함.</p>	<p>때가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였다. 외조모와 함께 떨어져 생활했으나 부모와 함께 살게 되어 너무 좋다고 하였다. 가정생활 중 아빠는 엄마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시고, 착하다고 하였다.</p>	<p>길 원했으나 후기에는 통역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p>
활동과정	<p>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p>		

<표 IV-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B의 행동 관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가족에서 벗어나 미래에 세계여행과 미래 직업으로 통시통역사를 하여 경제적 자립을 표현하는 작품 활동을 하였다.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노력으로 경제적 자립과 현재 한국에서의 부모를 편안하게 모시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또한 진로에 대한 계획과 현실적 판단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에서 보이는 의미는 현실적 적응노력으로 자신의 미래성장표현을 통하여 보상심리를 잘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B의 단계별 회기 사례분석>

이상으로 참여자 B의 작품 전체를 살펴보면, 초기단계에서 입국한지 일 년이 되지 않은 중도입국 여학생으로 제도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다. 비교적 언어습득과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적극적인 성향이 있고 술선수범하는 성실한 태도를 지녀서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 상태이다. 본국의 삶에 연연해하지 않고 한국사회생활에 적응도 빠른 편이며 언어소통은 자신이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조금만 틀려도 계속 물어보며 터득해 나가는 행동을 보인다.

초기단계에서 라포 형성 및 자아탐색단계인 나 소개하기, 문양 만다라, 나의 나무 주제에서 노란색, 분홍색 등 밝은 색지 선택과 여성성의 느낌 소재가 강한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표현되었다. 이러한 자아인식단계는 콜라주활동은 가위질에서 손과 눈의 협응력과 소근육 발달에 자극되며 높은 집중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나 소개하기 주제에서 자신의 한국식이름으로 개명한 것에 대하여 쭉뚝거리는 행동을 하였고, 모국식 발음과 간자체로 표기해야 할지 한국에서 사용하는 개명된 이름으로 사용해야 할지 망설이는 태도를 하였다. 치료사의 도움으로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였다. 모국에서와 다른 환경적 영향으로 매사에 조심스레 하며 물어 보며, 질문답변 내용을 몇 차례 확인하는 행동습성을 보이고 있었다.

중기작품에서 중기단계인 자아표출 단계인 탄생, 곡물만다라, 탈, 구분활법, 필름그림 주제에서는 의상, 화사한 인테리어, 레스토랑, 결혼 등의 소재로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작업과정에서 참여자 B는 색지를 오리고 풀로 붙이는 꼼꼼함과 예쁘게 보이고자 고민하는 콜라주 작업 활동에서 흥미를 보였다. 이렇게 초기 때보다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술치료 집단 내의 기대환경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변화를 가져왔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러한 콜라주 표현이 주는 무의식 탐색과 내면의 자아상 표출은 그대로 자신의 욕구나 주장을 여과 없이 분출시키며, 어색한 상황도 인지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는 스스로의 정서를 평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실에 우수한 적응력과 습득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작품에서도 보여 졌듯이 엄마와의 동거를 그리워 하였다. 현재 외조모와의 현재동거는 본인이 기대한 중도입국생활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한국에서 재혼한 엄마와 새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며 남들처럼 청소년시기를 가지고 싶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다. 입학후기단계에서 통찰 및 미래 비전 단계에서는 동그라미 가족화, 상상 만들기 주제에서 항상 함께하는 현재의 세 가족과, 초기와는 다르게 미래 직업이 바리스타에서 동시 통역사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 경험으로 자신의 진로를 재인식하였으며, 미래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현실적응 향상, 즉 학교생활적응 및 현실적응에 도움을 주는 지지요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 경험 과정에서 참여자의 강한 역동성과 자존감향상 변화, 자신의 안정된 정서적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다음 <표 IV-8>에서는 참여자 A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례에서 나타

나는 행동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표 IV-8> 참여자 B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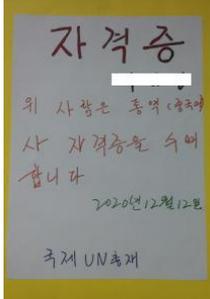
영역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행동적인 측면	표정을 밝게 보이려는 태도와 선택시 머뭇거리는 행동.	집단원들과 매체선택에 도움을 주고받고 익숙해진 과정으로 여유 있는 태도를 가짐.	매체를 덧붙이는 행동으로 거침없는 표현.
형식적인 측면	각도를 기울이게 붙이며 주어진 것만 붙였으며, 화면에 여백이 있음.	화면 전체를 구성하며 그림 크기가 사각으로 화면 가득 구성하여 오려붙임. 화면여백이 없음.	적당한 크기와 내용 및 통합된 작품내용으로 구성되어 중앙을 중심으로 나열.
내용적인 측면	자기중심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표현.	자신과 부모 그리고 외조모를 표현하였으며, 동물도 등장하여 공동체를 표현.	자아상에는 진로 및 직업으로 통역사를 표현.

초기단계에서는 입국한지 일 년이 채 되지 않은 중도입국 여학생으로 제도권 공교육 진학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서 밝은 태도와 작품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며 환경적응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국후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환경적응에 심적 갈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 요소는 불안으로 이어져 매사에 확인하는 강박적 성향으로 표출되고 있었다.

중기단계에서는 집단원들과 가족과의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작품표현과 지지적 욕구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현실적응에 대한 인식을 깨달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타인에 대한 수용보다는 본인의 의도를 수렴해주기를 바라는 자아주체적 입장을 내포 하고 있다.

후기단계의 행동, 형식, 내용적 측면은 작품에서 표현된 상징에서 보여 지듯이 자신의 과감한 도전과 도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확인과 정체성 및 미래직업에 대한 재인식으로 인해 현실적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여자 B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 작품은 다음 [그림 IV-2]와 같다.

1회기	‘내 이름’	2회기	‘바람개비’
	‘나 소개하기’		
3회기	‘분홍 얼굴’	4회기	‘예쁜 내 모습’
			
5회기	‘떡’	6회기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것’
			
7회기	‘다 좋아요’	8회기	‘미래계획’
			
9회기	‘마작하는 우리가족’	10회기	‘자격증’
			

[그림 IV-2] 참여자 B의 10회기 작품

3) 참여자 C의 회기별 사례

참여자 C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 및 작품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진행 활동과정으로는 주제제시에 의한 도입과정, 치료실기 활동, 작품 감상, 자아탐색, 치료사지지, 작품제목 제작, 개인별 완성된 작품에 대한 집단내 느낌의 나눔, 활동에 관한 소감문 작성 등으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참여자 C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9>과 같다.

<표 IV-9> 참여자 C의 초기단계 사례

단 계	초기단계		
회 기	1 회기	2 회기	3 회기
주 제	나 소개하기	문양만다라	나의나무
제 목	'예쁜 내이름'	'화려한 집'	'웃는 탈'
행동 관찰	•네임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 해요”, “난 그림을 잘 그려요”하며 글씨이외에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그림으로 부분적으로 표현.	•사각과 원으로 조합된 문양을 선택하였으며, 계획적 구성으로 문양을 채색해 나갔다. 채색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 하였고, 완성된 문양은 가위로 오려 감정도화지 중앙에 붙였다.	•시작 전 매체에 다가가 는 행동으로 동생에게도 나눠 주며 장난도 하였다. 유점토의 여러 가지 색을 흥미롭게 주무르고 혼합도 하였다. 하회탈을 선택.
작품 내용	•이름 그림은 다양한 색을 사용하였으며, 옆에 앉은 남동생(참여자 D: 초등4학년)도 도구와 매체를 챙겨주었다. 선택한 밝은색상의 네임카드에 강한 곡선으로 다양한 색상을 사용.	•주변에는 색 골판지로 별 동그라미 형태를 오려서 공백 없이 전체에 붙였다. 화려하고 강한 보색 대비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C는 만족한 표정으로 작품 속 형태를 설명.	•먼저 살색을 만들어 바탕을 붙인 뒤 눈과 코를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구분하였다. 점토작업은 쉽고 빠르게 완성하였다. 제목은 “웃는 사람 탈”이라고 붙였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C의 행동 관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외향적 우월성으로 보이는 얼굴화장과 한국어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언어소통으로 친근감을 보였다. 또한 적극적인 친화력으로 금방 집단원들과 장난도 하였다.

작품 내용을 살펴보면, 강한 색상 및 가득 메운 화면구성과 빠른 속도로 작품을 완성하였다. 호전적인 출신국의 정서배경과 부모와 함께 이주한 안정적 가정의 정서적 배경이 참여자의 거침없는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녀로서 남동생을 돌봐야 하는 가족애와 책임감은 한국정서의 뿌리깊은 혈통이 고려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정 환경적 특징은 다른 중도입국 청소년에게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C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참여자 C의 중기단계 사례

단 계	중기단계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회 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주 제	필름그림	곡물만다라	선물	구분활법
제 목	공부해서 미국가요	십자가	가족선물	가지고 싶은거
행동 관찰	<p>•자신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표현하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과거 그림은 아빠가 C에게 휴대폰을 사주어서 기분 좋은 표정이다. 현재는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실 풍경이고, 미래에는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 그림이다.</p>	<p>•흰색 일회용 접시에 지점토와 흰색 유점토를 사용하였고, 다섯 가지 곡물로 꾸며보는 활동이다. 곡물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워 보였다. 검정콩을 십자형과 가장자리에 둥근 원으로 계획하고, 중심과 바깥에 노란콩으로 조화를 이루어 대칭과 절제로 꾸몄다.</p>	<p>•받고 싶은 선물과 누구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인지를 표현하는 양쪽 구성은 전체 양면에 작고 많은 사진으로 붙였다. 받고 싶은 선물은 예쁜 구두와 신발들, 가방, 옷, 티셔츠, 액세서리 등이다.</p>	<p>•1번부터 시계방향으로 9번까지 나누어진 칸에 순서대로 선택한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흰 바탕 도화지위에 전체 9개 사진에서 아늑한 침실과 속도감 있는 자동차 사진을 선택했으며, 몇몇 사진은 흰 도화지 밖으로 노출되었다.</p>

<p>작품 내용,</p>	<p>•미래 그림에서 행복한 표정과 또 “다른 나라도 같거예요”, “나는 영어도 잘 해서 같 수 있어요”라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포부를 밝혔다. 짙은 분홍색 도화지 상하부분에는 군청색 선을 그였으며, 다양한 색 골판지로 차례차례 오려 붙였다.</p>	<p>•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 작품에 대한 호기심은 많아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집단원들의 작품을 보며 참견도 하고 돌아다니며 도와주기도 하는 행동.</p>	<p>•주고 싶은 선물에서는 아빠와 엄마에게 주고 싶다고 하였다. 내용은 자동차, 시계, 엄마에게 드릴 옷, 가방, 구두 등이다. 바탕색으로는 노란색과 연두색 색상으로 좌우 대비.</p>	<p>•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진내용에서 본인의 선호도를 잘 나타내었다. 자동차 및 인형과 사다리와, 실내 침실과 주홍색 긴 소파는 가지고 싶다고 하였다.</p>
<p>활동과정</p>	<p>①도입 ②치료 실기활동 ③작품 감상·자아탐색 ④치료사 지지 ⑤제목 만들기 ⑥느낌 나눔 ⑦소감문작성 ⑧정리 ⑨차기회기알림 ⑩종료</p>			

<표 IV-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C의 행동 관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익숙한 표현으로 작품완성은 빠르게 하였고, 참여자 D를 도와주었다. 작품 활동과정에서 선호도가 분명한 색상을 선택하였다.

가족 선물에 대한 콜라주활동에서 나타난 많은 가짓수의 사진은 주고 싶은 주변인과 가족을 위해 선택하였다.

작품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나타내는 상징을 표현하였으며, 가족, 부모, 그리고 자신의 선호도를 지체 없이 나타냈다.

중기과정에서 나타난 참여자의 특징 및 심리적 환경을 살펴보면, 사춘기청소년에서 나타나는 시각적인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고, 자신의 힘은 물질적 가치에 비교하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반면, 자신의 내면 가치와 자존감을 드러내어 자신의 실력으로 인격적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사회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C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참여자 C의 후기단계 사례

단 계	후기단계		
회 기	8회기	9회기	10회기
주 제	탄생	동그라미 가족화	받고싶은 상장
제 목	‘남자친구와 자동차’	‘세 가족’	‘동시통역사’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쪽으로 벌어진 계란 조각은 강한 보색대비로 채색이 됨. 벌어진 계란에서 탄생되는 것은 돈, 자격증, 남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자동차음악을 표현하였다. 또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높은 음 자리표와 오선지악보를 그림으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그라미 원 안에 가족을 표현한 후 선택한 감정 도화지 위에 오려 부치고 주변을 색 골판지로 다양한 형태로 꾸미는 작업이다. 중앙에 자신과 부모만 그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으나, 마지막 회기에서는 러시아어와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도 잘 할 수 있어서 동시통역사라는 직업으로 바꾸고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닐 것이라고 하였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에 균청색 사인펜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었으며 화면은 전체적으로 다채운 상태이며, 조화와 통합을 이루고 있다. 남자친구 이야기와 자동차 설명은 수줍은 듯 입을 가리고 웃으며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보다는 색골판지 꾸미는데 정성을 쏟았다. 이 중으로 오려서 덧붙였으며 꼼꼼히 다시 한 번 풀을 칠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애착관계를 표현하였으며, 동생을 그리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한 초록색 도화지바탕에 흰색 도화지를 선택하여 앞으로 6년 후인 2022년에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통역도 하여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살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에 살고 있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C의 행동 관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매체선택에서 선호가 강한 색상선택과 빠른 손길로 그림과 콜라주 작품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완성하였다.

작품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선호하는 음악 장르를 악보로 표현하였고, 미래의

이성친구와 세계 자유여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현재의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 미래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작품에 나타냄으로써 현재의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 C의 단계별회기 사례분석>

이상으로 참여자 C의 작품 전체를 살펴보면, 초기단계에서 라포 형성과 자아 탐색 단계인 이름꾸미기, 문양 만다라, 나의 나무 주제에서 자기표현을 강하게 함으로써 화면 전체를 화려하고 울긋불긋한 색 골판지로 가득 채웠다. 이러한 욕구는 넘치는 의욕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본국의 유아동기 삶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갈등과 한국문화적응 및 언어소통의 한계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우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행동관찰에서 눈치와 빠른 행동은 한국에 입국하여 제도권 공교육에 진학하여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뒤처지지 않게 생활하는 노력을 해 왔고, 소속 활동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중기단계에서 자아표출 단계인 탄생, 곡물만다라, 탈, 구분활법, 필름그림 주제에서는 풀장이 있는 화려한 주택 및 화장품, 액세서리와 구두 그리고 안락한 침대 사진을 선택하였고, 미래자신의 모습에서는 미래남자친구와 행복한 결혼에 대한 표현을 하였다. 콜라주 표현이 주는 무의식 탐색과 내면의 자아상 표출은 그대로 자신의 욕구와 의도를 나타내 주었다.

후기단계에서 통찰 및 미래비전 단계에서 동그라미 가족화, 상장 만들기 주제에서 나타나는 상징으로 커리어 우먼인 전문직을 가진 자신의 미래상과 가족의 강한 결속력 및 돈을 많이 벌어서 힘이 강력한 가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에서 나타는 의미는 본 프로그램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환경과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으로 인해 정서적 변화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의 경험은 집단으로부터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재인식하였으며, 미래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현실적응향상, 즉 현재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무

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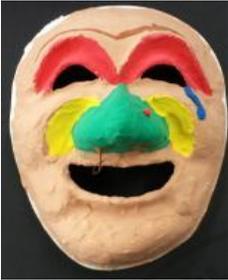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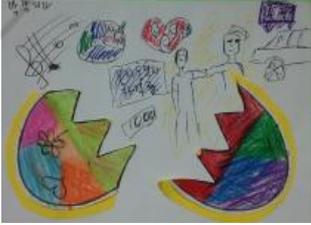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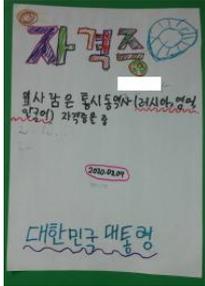
다음 <표 IV-12>에서는 참여자 C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표 IV-12> 참여자 C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영역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행동적인 측면	밝은 표정으로 시선을 자주 마주침. 동생에게 눈치를 주며 행동을 통제하는 모습.	집단원들과 적극적인 행동과 커다란 음성으로 소통을 하며, 수업중 화장실도 자유로이 왕래 함. 자유로운 매체선택 활용.	변복하는 매체 선택과 동생에게 지시적 통제행동 보여줌.
형식적인 측면	화면 전체에 조각을 가득 구성.	욕구표현을 많은 조각구성으로 화면을 가득 채움.	성숙한 방어적 표현으로 구성에 집중.
내용적인 측면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 고자함.	집중과 고요체험도 원만히 하였고, 자신의 소유 욕구표현도 충분히 함.	사회성을 보이며, 성숙된 자아 독립을 나타냄.

초기단계에서는 참여자 C는 시선 맞춤행동과 거침없는 작품표현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입국 초기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한 입지를 감추고자 하는 반응을 볼 수 있다. 중기단계에서는 시각적인 화려한 표현과 욕구를 억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인 모국문화를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사춘기의 화려함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후기단계에서의 행동, 형식,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은 가정정서에서의 지지로 자신의 미래상을 성숙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언어적 한계를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통제된 행동모습은 방어적 현실 적응 및 자아독립성 추구로 볼 수 있다.

참여자 C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 작품은 다음 [그림 IV-3]과 같다.

1회기	‘예쁜내 이름’	2회기	‘화려한 집’
	‘나 소개하기’		
3회기	‘웃는탈’	4회기	‘공부해서 미국 가요’
			
5회기	‘십자가’	6회기	‘가족선물’
			
7회기	‘가지고 싶은 거’	8회기	‘남자친구와 자동차’
			
9회기	‘세 가족’	10회기	‘동시통역사 자격증’
			

[그림 IV-3] 참여자 C의 10회기 작품

4) 참여자 D의 회기별 사례

참여자 D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 및 작품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진행 활동과정으로는 주제제시에 의한 도입과정, 치료실기 활동, 작품 감상, 자아탐색, 치료사지지, 작품제목 제작, 개인별 완성된 작품에 대한 집단내 느낌의 나눔, 활동에 관한 소감문 작성 등으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참여자 B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참여자 D의 초기단계 사례

단 계	초기단계		
회 기	1 회기	2 회기	3 회기
주 제	나 소개하기	문양만다라	나의나무
제 목	'핸드폰'	'별 우주'	'놀이터 나무'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한 주제에 파란색과 다홍색 네임카드 매체를 선택하며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그리기 시작했다. 밝은 표정으로 누나 곁을 떠나지 않고 장난하며 누나를 따라다녔다. 한국말 언어표현은 자신이 없는 듯이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자의 설명을 다 알아듣고 프로그램진행에 순순히 잘 따랐다. 누나와 콧속말로 러시아어로 들어서 종종 이야기를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단조로운 문양을 선택 했으며, 색칠은 대충 대충 급하게 하는 모습이였다. 화면 배경에는 집단원들이 오리다만 색 골판지 조각들을 주워서 자신의 검정색 도화지위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붙였으며, 옆에 있는 누나 참여자C에게 콧속말(러시아어)로 “누나가 오려줘”라고 말하였다. D는 가위질이 익숙지 않았고, 선호하지 않은 듯했다. 완성된 작품에 제목을 “별 우주”라고 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지 및 동물사진에 관심을 보였으며, 전 회기와는 달리 비교적 가위질도 잘했다. 화면 구성에서 형식적 배열은 나무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무와 어우러진 그네를 타는 줄라맨 형식의 사람 그림도 흥미롭게 그려나갔다. 왼쪽 하단에 멧금류인 올빼미를 오려붙인 것은 특이하다. 이는 제시된 사진워크지 내용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동물의 등장으로 동기유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은 밑그림을 4B로 그리지 않고 즉석에서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회기보다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구성이 단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의 등장은 친근하게 다가갔을 것으로 보인다.

	사인펜을 사용하여 거침 없이 그렸다. 이름 옆에 선호하는 캐릭터 인물 그림과 사탕 그리고 바탕화면에 커다란 휴대폰을 그리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임 카드워크지 네 장 중 세장을 상단에 왼쪽부터 나열하고, 나머지 한 장을 화면 오른쪽 하단에 각도를 기울여 붙여 마무리하였다.	웠으며,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중심에 문양만 다라를 채색하여 붙이고 비교적 주변을 등글게 색 골판지 조각을 나열하는 표현을 하였다. 단조로운 색 선택은 있는 조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검정 바탕과의 대비를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단 좌측에 옹크리고 있는 뿡금류의 등장은 청소년발달로 진입하는 본인의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으며, 조심스런 자신의 현실을 구성한 배치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13>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D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참여자 C에게 의존하는 태도와 껌속말, 휴대폰, 그리고, 장난으로 작품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작품내용에서는 자신의 관심사인 캐릭터 및 뿡금류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자신의 시각적인 내용적 표현은 연령으로 보아서는 아동기이나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단계의 남성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D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14>과 같다.

<표 IV-14> 참여자 D의 중기단계 사례

단 계	중기단계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회 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주 제	필름그림	곡물만다라	탈	구분활법
제 목	‘미국가요’	‘옥수수 피자’	‘웃는 사람’	‘선물 주려구요’
행동 관찰	•그림을 표현하는 과정은 초기에서와 같이 머뭇거리며	•흰색 일회용 접시에 지점토와 흰색 유점토를 사용하였	•시작 전 매체에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며, 색 유점토	•1번부터 시계방향으로 9번까지 누어진 칸에 순서

	<p>옆 누나의 그림을 결눈질로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사람을 처음엔 줄라맨 형태에서 연구자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세요”라고 하니 그 이후에 조금 두꺼운 막대모양으로 표현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아빠가 휴대폰 사주는 모습.</p>	<p>고, 곡물로 꾸며보는 활동이다. 곡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였고, 몇 종류의 곡물과 튀긴 옥수수를 사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반짝이 풀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정돈된 장방형적인 형식이었고, 작품의 특징으로는 원테두리를 강하게 이중으로 꾸몄다. 제목은 ‘맛있는 피자’라고 하였다. 본 회기의 매체는 곡물을 다루는 과정.</p>	<p>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유점토를 만지려 하지는 않았다. 탈 꾸미는 작업은 제시된 몇 종류의 탈 중, 하회탈을 선택하였으며, 점토를 주무르고 혼합하여 다른 색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살색은 갈색에 가까운 진한 살색으로 혼합되었고, 그 이후에는 혼합하지 않고 원색을 사용.</p>	<p>대로 선택한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흰 바탕 도화지위에 전체 9개 사진 중 3번의 커다란 햄버거사진과 6번의 손목시계사진은 화지이탈 형식.</p>
<p>작품 내용,</p>	<p>•현재그림에서 학교수업 중 엮드려 잠자는 모습을 노란색으로 단조롭게 그렸고, 미래그림은 누나와 상의한 후 누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비행기타고 미국에 가는 모습을 그렸다. 전체 화면에서 상하 필름 형태의 선을 그렸으며, 초록색 바탕에 잘 대비되는 색깔판지 조각을 오려붙였다.</p>	<p>•제시된 매체 중 곡물과 가공식품 옥수수로도 활용하였고, 반짝이 풀을 사용하였다. 4회기에서 보여준 그림을 그리는 표현보다는 매체를 활용한 콜라주활동에 더 흥미를 보였다.</p>	<p>•전체적으로 살색을 입힌 후 파랑과 빨강 및 노란색으로 눈과 코, 이마 부분을 꾸몄다. 제목은 ‘물라요’라고 하였다. 전 회기에서와 같이 자기표현에 집중하였고,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얼굴의 코 부분을 노란색으로 강조하여 익살스런 이미지를 연출.</p>	<p>•사진크기 배열은 통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제각각 형태이다. 하지만 가위로 상세하게 오려낸 것은 자신의 관심 품목이다. 내용분석에서는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와 금속성의 자동차, 시계 그리고 1번의 침대등 표현은 생활에서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함.</p>
<p>활동과정</p>	<p>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p>			

<표 IV-1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D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자신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매체를 질문하며, 선호하는 색상의 점토를 선택하며, 프로그램 매체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작품내용에서는 단조롭지만 의미있는 그림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에서 참여자의 발달적인 접근으로는 자신의 주장과 의도를 표명하고자 하는 청소년 사춘기의 특징적 요소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후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D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15>과 같다.

<표 IV-15> 참여자 D의 후기단계 사례

단 계	후기단계		
	8회기	9회기	10회기
회 기	8회기	9회기	10회기
주 제	탄생	동그라미 가족화	받고싶은 상장
제 목	‘컴퓨터 게임’	‘집으로 가는 우리가족’	‘프로게이머’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쪽으로 벌어진 계란 조각과 가운데에서 탄생된 내용은 컴퓨터, 패스트푸드, 학교 휴대폰 그리고 Box라고 표현한 자신의 비밀박스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저 동그라미 원 안에 가족을 표현한 후 선택한 검정 도화지 위에 오려 부치고, 주변을 색 골판지로 다양한 형태로 꾸미는 작업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작품과정은 옆에 있는 누나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보고 관찰하고 흉내를 내는 것도 하나의 관찰 학습이므로 비록 흉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 결과를 표현했다면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란 겉 표면은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직선을 사용하였고, 빨리 색칠하려고 한 흔적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그리기와 채색에 대한 불편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하고 커다란 노란색 해가 좌측 상단에 떠 있고, 하단에는 네 명의 가족이 서 있으며 오른쪽에 집 그림이 있다. 가족 중 왼쪽에 있는 자신은 두 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소게임을 좋아하며 본인은 하루종일 게임만 하고싶다고 하였다. 지금은 게임하지만 성인이 되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였다.

	표현은 본국에서 자라면서 유아동기 및 초등 저학년시기의 인지발달 및 정서발달과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이다.	을 치켜 올렸고, 기저선을 사용했으며, 공간에는 하늘색으로 채색하였다. 집은 창문과 출입문도 있고, 지붕 위 동그란 창도 표현.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D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질문하는 횟수가 줄었으며, 매체관찰과 선택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활동하려는 주도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작품내용에서는 현재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휴대폰과 게임 등을 표현하며, 내면의 불안이 무의식을 통하여 기저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에서 참여자 D는 초기에 비해서 참여자 C에 대한 의존도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매체에 대한 관심과 작품활동에 흥미를 갖는 태도로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과 퇴행 및 양가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 D는 학습능력의 습득 단계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가정정서에서 가족간의 원만한 소통으로 가족의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D의 단계별 회기 사례분석>

참여자 D는 한국에 입국한지 약 5개월째이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부모님은 고려인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몇 년 전부터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자로 지내다가 본국의 남매를 한국에 입국시킨 전형적인 중도입국 청소년에 해당한다. 현재 누나와 함께 방과 후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에너지는 높은 편이고 신체발달은 원만하며, 부모의 관심과 소통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상으로 작품 전체를 살펴보면, 참여자 D는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회기진행에서 다른 집단 원들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외에 간식을 먹으며 회기를 마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시간관리 소홀로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휴대폰 게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휴대폰에 매달리는 D에게 누나인 C가 데려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집단 또는 누나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진행이 이루어졌다.

초기단계부터 의존적 성향은 후기단계까지 이어졌다. 초기단계인 라포 형성 및 자아탐색단계인 이름꾸미기, 문양만다라, 나의나무 주제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 필압 및 형태 표현은 자유스러웠으며, 가위로 오리는 작업은 귀찮아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개인별 차이는 사례별로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언어적 소통의 한계에 있는 아동에게 방과 후에 방치된 시간은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소속감 결여로 매우 위축되어 방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났다.

중기단계에서 중기단계인 자아표출 단계인 탄생, 곡물만다라, 탈, 구분활법, 필름그림 주제에서 탈 점토작업을 지루해 하였으며, 잡지콜라주에서 는 자동차, 햄버거, 시계, 등으로 내면의 욕구를 표현 하였다. 콜라주 표현이 주는 무의식 탐색과 내면의 자아상 표출은 그대로 자신의 장점과 흥미를 충분히 이끌어냈다. 이는 치료사의 수용적 과정과 적극적인 지지로 무의식 탐색에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으며,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후기 단계에서는 통찰 및 미래 비전 단계이다. 동그라미 가족화, 상상 만들기 주제에서 나타나는 표현으로는 프로그래머 라는 표현을 두각 시켰다. 이러한 표현에서 참여자는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드러났다고 본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의 경험은 자신의 장점을 재인식하였으며, 미래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현실적응향상, 즉 현재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다음 <표 IV-16>에서는 참여자 D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표 IV-16> 참여자 D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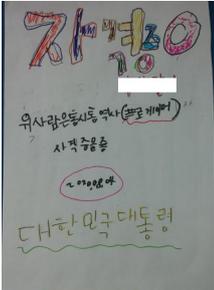
영역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행동적인 측면	간간히 웃음과 눈마춤을 회피하며 매체와 주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음.	누나와 소통하며, 때때로 집단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본인의 작품설명.	주제에 따라 자연스레 매체 선택과 자발적인 작업 수행.
형식적인 측면	공간 각 각 조각이 구성.	곡물만다라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임	공간구성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통일성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	유아기를 회상으로 퇴행 및 본능으로 표현 .	욕구에 대한 갈등을 소유하고픈 소재로 표현.	지금현재를 재인식하는 자기를 발견.

초기단계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가족과의 소통 부족으로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이는 시선 맞춤을 회피하는 모습과 의존하려는 발달적 퇴행으로 볼 수 있다.

중기단계에서는 상호소통의 의지가 보이며, 작품 활동의 미술매체에 호기심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국에서 다양한 선택적 기회 부재로 인해 현실에서 만족을 채우려는 심리적 요구이며, 현재 학교생활 활동범위와 소속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단계에서의 행동, 형식,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 공간구성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작품 활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언어적 한계를 넘어 작품에서의 다양한 표현은 현재의 상황을 재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미래지향적 가치관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D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 작품은 다음 [그림 IV-4]와 같다.

1회기	핸드폰	2회기	‘별 우주’
	‘나 소개하기’		
3회기	‘놀이터 나무’	4회기	‘미국가요’
			
5회기	‘옥수수 피자’	6회기	‘웃는 사람’
			
7회기	‘선물 주러 구요’	8회기	‘컴퓨터 게임’
			
9회기	‘집으로 가는 우리가족’	10회기	‘프로게이머’
			

[그림 IV-4] 참여자 D의 10회기 작품

5) 참여자 E의 사례

참여자 E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 및 작품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진행 활동과정으로는 주제제시에 의한 도입과정, 치료실기 활동, 작품 감상, 자아탐색, 치료사지지, 작품제목 제작, 개인별 완성된 작품에 대한 집단내 느낌의 나눔, 활동에 관한 소감문 작성 등으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참여자 E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참여자 E의 초기단계 사례

단 계	초기단계		
	1 회기	2 회기	3 회기
회 기	1 회기	2 회기	3 회기
주 제	나 소개하기	문양만다라	나의나무
제 목	'우리 동네'	'하트꽃'	'나무 집'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중한 표정으로 자신의 개명된 한국이름을 그리며, 바탕배경에 본인이 그리고 싶은 여러 가지 풍경그림으로 채웠다. 매우 꼼꼼하게 그렸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에게 익숙한 문양을 선택하였고, “커다란 예쁜 꽃”이라고 하며, 대비가 강한 보색계열로 채색한 후 동그란 주변에 하트를 오려 붙이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트를 좋아해요”라고 말하며, 작업과정을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름을 자랑스럽게 흰색으로 오려붙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지 및 동물사진에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나비사진그림을 선호 하였다. 꼼꼼한 성격과 섬세하게 가위로 오리는 작업은 전 회기와 마찬가지로 집중력이 뛰어났으며, 화면 배경에는 집, 사다리, 고양이, 그네타고 노는 자신의 모습, 친구들, 그리고 꽃들을 하단에 그렸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빨간색, 다홍색, 파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 가장자리 테두리를 그리고 채색하였다. 바탕그림은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출입문이 활짝 열린 집, 나무와 고양이, 병아리, 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고 따듯한 색 선택은 검정 바탕과의 대비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자신에게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문양 속 색 배열은 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은 공간구성에서 날아다니는 새와 나비들로 채워졌으며 집을 출입할 수 있는 입구에 길을 표현 함. 분홍색 도화지를 세로로 그렸으며, 전체적인 형식과 구성은 내용과 통합되게 표현하였다. 역

	이 있고, 하늘에는 해와 구름 및 새무리가 떠 있다. 그리는 과정에서 반듯한 선을 그으려고 자를 사용하였다. 두 개의 집 그림은 자신이 살았던 고향 베트남 집과 한국에 있는 집이라고 설명하며 미소를 띤 표정에서 현재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획적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베트남문화에서 오는 생활 속에서의 색상으로 문화적 감각 표현을 있는 그대로 지지하는 듯이 보인다.	시 시간 초과 되었지만 느긋한 태도였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E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언어소통보다는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제시된 주제에 다른 참여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모방하는 행동을 보였다.

작품내용으로는 본국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그림으로 나타내며, 자신이 선호하는 하트 형태와 밝은 색상의 매체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표현에서 참여자 E는 사춘기소녀의 특징적인 표현요소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언어적 소통은 프로그램 활동의 특성상 작품교류와 상호관계의 친밀함이 언어능력의 활용을 증가시켜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E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18>과 같다.

<표 IV-18> 참여자 E의 중기단계 사례

단 계	중기단계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회 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주 제	선물	곡물만다라	탈	구분활법
제 목	‘모델’	‘피자’	‘토끼’	‘예쁘게 화장해요’

<p>행동 관찰</p>	<p>•가족이 펫살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 E는 샵에서 잔심부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참여자 E는 이주민 센터에서의 한글공부와 오후프로그램인 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받고 싶은 선물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시기인 E는 패셔니스트한 여성 세 명을 오려붙였다.</p>	<p>활•동매체를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흰색 일회용 접시에 지점토와 흰색 유점토를 사용하고 곡물로 꾸며보는 활동이다. 곡물에 대한 관심과 다른 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곡물을 계획된 원모양을 따라 콩 색깔 별로 동글게 구성.</p>	<p>•제시된 몇 종류의 탈 중 토끼모양을 선택하였다. 유점토를 핑크색으로 혼합하여 만들고 탈 전체에 붙였으며, 다양한 색으로 화려하게 꾸몄다. 특히 가장자리에 동그란 모양으로 테를 두르며 완성하였다. 전 회기와 마찬가지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표현에 자연스럽게 역동적으로 작업.</p>	<p>•1번부터 시계방향으로 9번까지 나눈 칸에 순서대로 선택한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분홍색 도화지를 선택.</p>
<p>작품 내용,</p>	<p>•주고 싶은 선물은 엄마에게 맛있는 음식과 화장품을 주고 싶다고 하였다. 주고받는 것에 익숙지 않은 현재 생활을 표현.</p>	<p>•반짝이 풀을 사용하여 화려한 장식으로 마무리하였다. 작업을 마친 후 반짝이 풀에 관심을 보이며 “하나 가져도 되냐”고 물었다. 완성된 작품을 센터 직원 및 학습자들에게 자랑하며 전시.</p>	<p>•완성된 탈을 써보기도 하며 집단 원들과 웃으며 놀이를 하였다. 토끼 얼굴 탈의 섬세한 점토 꾸밈은 본인의 섬세한 작품 꾸밈은 즐기는 듯 보임.</p>	<p>•전체 9칸 속에 붙여지는 사진은 의류, 신발, 시계, 가방, 악세서리, 화장품, 아이스크림 등 평소 E의 관심분야이다. 화지이탈은 없었으며, 한 칸에 두 개 이상 오려붙였다. 가정에서는 E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p>
<p>활동과정</p>	<p>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p>			

<표 IV-1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E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매체관찰을 통한 자신의 의도와 선호하는 사진과 색지를 선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거울을 자주 들여 보며, 휴대폰으로 본인의 작품 활

동과정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정해진 활동시간을 초과하여 작품구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작품내용으로는 유행에 민감한 반응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선택하여 내용구성을 하였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펫샵에 대한 의미를 그림속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참여자 E의 행동과 작품내용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매체의 소유 욕구는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E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표 IV-19>과 같다.

<표 IV-19> 참여자 E의 후기단계 사례

단 계	후기단계		
	8회기	9회기	10회기
회 기	8회기	9회기	10회기
주 제	탄생	동그라미 가족화	소망나무
제 목	‘가지고 싶은것’	‘바쁜 우리가족’	‘선물 나무’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적 측면에서 양 쪽으로 벌어진 계란 조각과 가운데 탄생된 말풍선 위크지는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내용적으로는 강아지, 컴퓨터, 자동차, 드레스, 휴대폰 등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저 동그라미 원 안에 가족을 표현한 후 선택한 검정 도화지 위에 오려 부치고, 주변을 색 골판지로 다양한 형태 꾸미는 작업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된 자료는 나무그림 위크지와 말풍선 입체하트, 반짝이 풀, 구슬 스티커 그리고 동물그림사진이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란 껍질에도 “사랑해”라고 썼으며,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꽃그림으로 꾸몄다. 이것은 욕구에 대한 상징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에 본인을 그렸으며, 아빠와 엄마를 양쪽에 배열하고 역할에 대한 내용을 맵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내용으로는 여행, 중국, 베트남, 아기, 쇼핑 등 여러 단어가 등장했다. 둥근 원 안에 본인이 좋아하는 하트도 오려 넣었다. 검정색 도화지 바탕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려하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E는 초록색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택하고, 그 위에 제시된 매체를 활용하여 꾸미는 작업을 하였다. 특히 하트 말풍선에는 본인이 원하는 소품을 적었고, 작업 중 구슬스티커 활동에 높은 흥미와 관심을 보였다.

		주변으로 크기가 일정한 꽃잎 모양으로 색골판지를 오려붙였다.	
활동과정	①도입 ②치료 실기활동 ③작품 감상·자아탐색 ④치료사 지지 ⑤제목 만들기 ⑥느낌 나눔 ⑦소감문작성 ⑧정리 ⑨차기회기알림 ⑩종료		

<표 IV-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단계의 참여자 E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작품과정에서 상징되는 의미를 말로 되새기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작품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자신의 의도에 긍정적 내용과 현재의 가족과 본국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애착을 말풍선과 하트에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 E의 후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의 우월성과 미래 계획, 그리고 상호교류 하는 모습에서 현재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과 수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참여자 E의 단계별 회기 사례분석>

이상으로 참여자 E의 작품 전체를 살펴보면, 참여자 E는 초기단계에서 중도입국 여성청소년으로서 한국에 입국 한지 일 년이 되지 않는 시간으로 제도권 소속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에 해당한다. 본국에서의 유아동기에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다가 청소년기에 한국의 엄마와의 어색한 만남, 새아버지와의 새로운 가족구성형성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이 심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실을 이용하며, 방과 후 수업으로 미술과 음악 그리고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색하고 지루한 가정환경을 보다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한다.

중기단계에서 콜라주 표현이 주는 무의식 탐색과 내면의 자아상 표출은 그대로 자신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 주었으며, 이러한 표현 과정과 치료사의 수용적 과정 및 적극적인 지지로 인한 무의식 탐색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으며,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후기 단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의 경험은 자신의 장점을 재인식하였으며, 미래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현실적응향상, 즉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다음 <표 IV-20>에서는 참여자 E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표 IV-20> 참여자 E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영역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행동적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표정하며 화장을 하고 거울을 항상 들고 있음. •주제와 매체 설명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밝은 표정으로 매체 선택과 작업을 반복하면서도 시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원들과 장난도 하며, 상호교류.
형식적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면 가득 메우는 작업시간 즐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한 그림 조각 몇 개만 특징적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을 가득 메우고 그림이 자주 표현.
내용적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서욕구 표현으로 집 그림과 따뜻한 마음으로 하트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선호하는 화장품의 의상 표현과 자아표출에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상황을 인식하여, 자기표현에 집중.

초기단계에서는 어색한 미소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미술매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긍정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중기단계에서는 집단 내에서 언어적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말로 인사와 질문하는 행동적 태도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자아표출은 집단 내에서의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기단계에서의 행동, 형식,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에서 집단원과의 고향이야기와 작품에서 나타나는 모국향수 표현은 현재 미해결된 감정을 작품에 투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도를 방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현실적응 및 사회를 재인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 E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 작품은 다음 [그림 IV-5]와 같다.

1회기	‘우리 동네’	2회기	‘하트 꽃’
	‘나 소개하기’		
3회기	‘나무집’	4회기	‘모델’
			
5회기	‘피자’	6회기	‘토끼’
			
7회기	‘예쁘게 화장해요’	8회기	‘가지고 싶은 것’
			
9회기	‘바쁜 우리가족’	10회기	‘선물 나무’
			

[그림 IV-5] 참여자 E의 10회기 작품

6) 참여자 F의 사례

참여자 F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 및 작품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진행 활동과정으로는 주제제시에 의한 도입과정, 치료실기 활동, 작품 감상, 자아탐색, 치료사지지, 작품제목 제작, 개인별 완성된 작품에 대한 집단내 느낌의 나눔, 활동에 관한 소감문 작성 등으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참여자 F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참여자 F의 초기단계 사례

단 계	초기단계		
회 기	1 회기	2 회기	3 회기
주 제	나 소개하기	문양만다라	나의나무
제 목	'내 이름'	'우주 꽃'	'신나는 나무'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제시와 함께 매체활용을 설명한 후, F는 민트색 색지와 네임카드 위크지 4장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름을 빨간색, 파란색, 다홍색, 노란색으로 꾸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양 만다라콜라주는 위에서 본 꽃잎 문양을 선택하였고, 통합된 색 조화와 통일된 색 배열을 나타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크지 및 소재로 동기를 줄 수 있는 콜라주 활동이다. 참여자 F는 위크지 및 동물사진에 관심을 보였으며, 다양한 동물로 꾸몄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탕에는 자동차, 구름, 십자가, 배 그리고 풍선 등으로 꾸몄다. 화지이탈은 없고, 구성배치는 양쪽에 붉은색으로 강하게 통합을 이루었다. 내용은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경은 규칙적으로 배열된 문양으로서 확산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매우 역동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강한 보색대비를 이루는 채색과 주변의 하트 문양은 이중으로 콜라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무위에 서있는 자신을, 배경에는 강을 표현하였다. 강과 강 속의 돌 그리고 나뭇가지위에 당당하게 서있는 자신의 표현은 강한 역동성과 삶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 F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특징으로는 언어소통이 가장 원활한 참여자로서, 본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매체를 나누어주고, 집단원들을 자신의 모국어로 집중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작품내용으로는 주제에 따른 다양한 내용의 의미있는 소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에서 참여자 F의 작품은 자신의 욕구표현과 매체 활용으로 완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F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표 IV-22>과 같다.

<표 IV-22> 참여자 F의 중기단계 사례

단 계	중기단계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회 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주 제	필름그림	곡물만다라	탈	구분활법
제 목	‘내 모습’	‘별’	‘이쁘니’	‘좋아 하는 거’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표현하는 과정이다. 과거 유년기 그림은 빨간 연을 날리는 모습이고, 현재는 컴퓨터와 휴대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생활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매체를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흰색 일회용 접시에 지점토와 흰색 유점토를 사용하고, 곡물로 꾸며보는 활동이다. 곡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으며 성실한 자세로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번부터 시계방향으로 9번까지 나누어진 칸에 순서대로 선택한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란색 바탕 도화지위에 전체 9개 사진 중 9번 사진은 화초가 있는 소품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F는 돼지 탈을 선택하였으며, 유점토를 혼합하여 민트색으로 만들고 색이 마음에 든다고 하며 탈 전체에 붙였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는 사장이 되어서 검정 승용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여행가고 쇼핑도 하는 모습이다. 바탕배경에는 여러 색 골판지를 오려서 꾸며보는 표현으로 매우 화려하고 성의 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물로 커다란 별 모양을 표현했고, 가장자리에 검정콩을 원모양으로 둘러서 형태를 마무리하였다. 최종적으로 반짝이 풀을 사용하여 빛이 나는 별을 만들었다. 손잡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산악운동화, 가죽슬리퍼, 시계, 선 그라스, 휴대폰, 자동차 등이 있다. 구성 배열은 정돈되고 깔끔한 형식으로 꾸며졌다. 내용과 형식적인 구성에서 살펴보면 F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한 원색, 파랑, 초록, 빨강으로 이목구비를 테로 둘러 강조하고, 그 위에 등그런 모양으로 강조하면서 반짝이 풀로 마무리하였다. 매회기에 자신 있는 표현과 제시어를 빨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표현하였으며, 자신은 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조심스런 성향과 반듯한 성품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리 이해했기 때문에 작품결과는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 F의 중기에 나타난 행동적 특징으로는 제시된 주제에 따른 매체 선택에서 자신의 선호도에 맞게 매체선택을 빨리하였으며,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작품 완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품내용에서는 밝은 보색대비의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자신의 소품으로 선호하는 시계, 휴대폰, 선글라스 등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중기과정에서 표현된 참여자 F의 표현에서 과거보다는 현재 환경에 적응을 두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에서 자신의 성장 발달과 욕구변화에서 오는 갈등을 대응하고자 하는 긍정적 심리변화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F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참여자 F의 후기단계 사례

단 계	후기단계		
회 기	8회기	9회기	10회기
주 제	탄생	동그라미 가족화	받고싶은 상장
제 목	‘친구들과 함께’	‘좋은 가족’	‘비밀트리’
행동 관찰	구성적인 측면에서 양 쪽으로 벌어진 계란 조각과 가운데 말풍선 위크지에는 내용구성이 짝 차있다.	동그라미 원 안에 가족을 표현한 후 선택한 검정 도화지 위에 오려 부치고 주변을 색 골판지로 다양한 형태로 꾸미는 작업이다.	제시자료는 나무그림 위크지와 말풍선 입체하트, 반짝이 풀, 구슬 스티커 그리고 동물그림사진이다.
작품 내용	•먼저 계란 껍질에 꾸며진 기하학적 무늬, 그리고 탄생된 본인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말풍선 속에	•본인은 여행을 가고 싶고, 아빠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라 하고, 엄마에게는 베트남 여행가세요.	•참여자 F는 초록색 나무 위크지를 선택하였으며, 말풍선에 본인은 여자 친구의 남자친구라고 하였

	는 의류, 컴퓨터, 배드민턴, 침대, 카드, 자동차, 폴러스케이팅, 일본여행, 고등학생 등이 있다. 현재 입학 을 소원하고 있고 기다리는 과정이다. 잘 되기를 염원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다. 가족의 각자역할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모에 대한 배려를 잘 나타내주는 내용이다.	다. 하트 말풍선에도 본인의 소원을 적어 넣었으며, 구슬스티커로 마무리를 하였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2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 F의 후기단계에서 행동적 특징으로는 원만한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게 자신의 원활한 언어 소통능력으로 집단원들을 집중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결시 정리정돈과 연구자에게 집단원들을 인사시키는 행동을 보였다.

작품내용에서는 말풍선과 비밀 트리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학, 엄마에 대한 사랑, 경제적 자립을 담은 소망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내용에서 참여자 F의 후기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응에 대한 노력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F의 단계별 회기 사례분석>

이상으로 참여자 F의 작품 전체를 살펴보면, 초기단계 작품에서부터 자신감과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지지로 예견되고 계획된 진학을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원만한 정서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본국에서의 유아동기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갈등과 한국에 입국해서 엄마와의 어색한 만남을 가졌지만, 자아가 건강하여 원만히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기단계에서 콜라주 표현이 주는 무의식 탐색과 내면의 자아상 표출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자아를 나타내 주었다. 이러한 표현 과정과 치료사의 수용적 과정과 적극적인 지지로 무의식 탐색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졌으며, 높은 자신감으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후기단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의 경험은 자신의

장점을 재인식하였으며, 미래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현실적응향상, 즉 현실 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다음 <표 IV-24>에서는 참여자 F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표 IV-24> 참여자 F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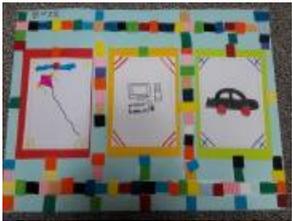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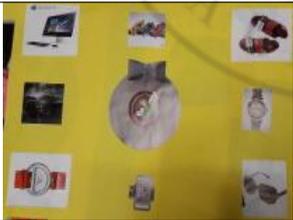
영역	초기단계	중기단계	후기단계
행동적인 측면	언어소통이 가장 잘 되는 참여자 이다. 집중하는 자세와 설명에 잘 따름.	집단원들에게 부연 설명을 모국어로 전달하며, 매체선택과 방법도 도와줌.	자신감을 나타내지만 겸손한 태도와 섬세한 작품성을 보임.
형식적인 측면	화면 전체 규칙적이며 진출하는 구성을 함	단조롭게 보일 수 있으나 선호하는 것을 강조함.	대칭 구성으로 공간여백을 나타냄.
내용적인 측면	도전하는 이미지와 생명력을 나타냄.	현실에서의 자신의 욕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함	하트 말풍선 속에서 매우 절제된 성숙한 내용을 표현함.
종합적 분석 견해	원만한 언어소통능력 및 또래집단에서의 원만한 상호작용가능 할 듯.	미술활동을 흥미롭게 하며 자신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표현 할 수 있음.	자신의 미래상을 사회적 소속감으로 끌어내어 현실 적응을 인지함.

초기단계에서는 집단내에 원만한 언어소통능력 및 또래집단에서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작품에 나타난 매체활용과 구성적 요소는 규칙적이며 계획성이 보인다. 이는 입국 초기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적 발달이 학습 및 인지능력에서 원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기단계에서는 흥미로운 미술활동 태도로 자신의 욕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언어적 소통의 한계를 작품에서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기단계의 행동, 형식,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은 입국 후 가정정서에서의 지지로 자신의 미래상을 성장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미래상은 현실 속에서 집단 내 안정된 소속감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 F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 작품은 다음 [그림 IV-6]과 같다.

1회기	‘내 이름’	2회기	‘우주 꽃’
	‘나 소개하기’		
3회기	‘신나는 나무’	4회기	‘내 모습’
			
5회기	‘별’	6회기	‘이쁘니’
			
7회기	‘좋아 하는 거’	8회기	‘친구들과 함께’
			
9회기	‘좋은 가족’	10회기	‘비밀트리’
			

[그림 IV-6] 참여자 F의 10회기 작품

7) 참여자 G의 사례

참여자 G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 및 작품내용을 초기, 중기, 후기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진행 활동과정으로는 주제제시에 의한 도입과정, 치료실기 활동, 작품 감상, 자아탐색, 치료사지지, 작품제목 제작, 개인별 완성된 작품에 대한 집단 내 느낌의 나눔, 활동에 관한 소감문 작성 등으로 기술하였다.

초기단계에 나타난 참여자 G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다음 <표 IV-25>와 같다.

<표 IV-25> 참여자 G의 초기단계 사례

단 계	초기단계		
회 기	1 회기	2 회기	3 회기
주 제	나 소개하기	문양만다라	나의나무
제 목	'내 이름'	'태양'	'놀이터'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제시와 함께 매체활용을 설명한 후, 참여자 G는 민트색 색지와 네임카드 워크지 4장 빨간색, 다홍색, 에머럴드색, 노란색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름을 꾸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배경에 색으로 중심을 주었으며, 뽀족산 문양으로 직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그라미 주위에 삼각형으로 오린 다양한 색골판지는 원을 강조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자료와 워크지 및 소재로 동기를 줄 수 있는 콜라주 활동이다. 학교로 진학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집단원 중 연령이 어린 편에 속하지만 목소리가 크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탕에는 새, 구름, 해, 집 그리고 강아지와 꽃등으로 꾸몄다. 화지이탈은 없고, 구성배치는 오른쪽을 붉은색으로 강조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색배열로 통일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배경은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문양으로서 현재의 예민한 심경을 내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화면 전체에 대한 느낌은 매우 역동적이며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지 및 동물사진보다는 나무기둥에 관심을 보였으며, 나무위에 집을 그리고 나무와 연결된 미끄럼틀, 그네 등 주변 배경으로 토끼와 나비를 구성하였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2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 초기단계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프로그램과정 중 본국의 가요를 크게 흥얼거리며, 비교적 큰 목소리로 다른 참여자와의 이야기하는 행동을 하였다. 또한 활동지를 오리고 난 자투리를 주변에 널려 놓으며 산만하게 작품구성을 하는 모습이다.

질문은 참여자 F를 통하여 본국 언어로 통역을 하였다.

작품내용으로는 블루와 민트색 계통의 색상을 선호하였고, 본인의 작품에는 의도한 내용을 선택 또는 그림으로 세심하게 구성하였다. 이러한 초기단계의 표현은 환경적응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지속적인 사회화과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G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참여자 G의 중기단계 사례

단 계	중기단계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주 제	필름그림	곡물만다라	탈	구분활법
제 목	‘미국 여행’	‘생일케익’	‘귀요미’	‘기분 좋아요’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표현하는 과정이다. 과거 유년기 그림은 잠자리모양의 연을 날리는 모습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흰색 일회용 접시에 지점도와 흰색 유점토를 사용하고, 곡물로 꾸며보는 활동이다. 곡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지만 성실한 자세로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돼지 탈을 선택하였으며 유점토를 혼합하여 에머럴드 색으로 만든 후 탈 전체에 붙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번부터 시계방향으로 9번까지 나누어진 칸에 순서대로 선택한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다.
작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는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도 가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는 그림이다. 바탕배경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곡물로 커다란 별모양을 표현했고, 가장자리에 검정콩을 원모양으로 둘러서 형태를 마무리하였다. 최종으로 반짝이 풀을 사용하여 빛이 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한 원색 초록으로 이목구비와 리본모양을 만들어 이마에 장식했으며, 노란색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탈 가장자리에 둘러가며 붙였다. 귀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트색 도화지위에 전체 9개 사진 중 시원한 맥주가 등장했으며, 자동차, 만년필, 정수기, 실내정원, 육조, 안마의자, 키워그림, 부채 등이

	여러 색 골판지를 오려 꾸며봄으로써 가득 찬 조각은 매우 화려하고 강한 욕구 표현으로 보인다.	별을 만들었다. 손잡이도 표현하였으며, 자신은 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분은 흰색으로 하였고, 그 위에 반짝이 풀로 마무리하였다	있다. 평소에 덩다고 하였으며 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있었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2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 G의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행동적 특징으로는 매체에 관심을 보이며 연구자에게 한국말로 매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반짝이풀과 색유점토에 관심을 보였다.

작품내용에서는 비행기, 신발, 자동차 등 동적인 소재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중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G의 표현은 현실적 환경을 적응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자신의 욕구와 수용은 다르게 느껴지며, 이러한 양가감정의 갈등을 미술매체에 전달함으로써 욕구를 희석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G의 행동관찰과 작품내용으로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 참여자 G의 후기단계 사례

단 계	후기단계		
	8회기	9회기	10회기
회 기	8회기	9회기	10회기
주 제	탄생	동그라미 가족화	받고싶은 상장
제 목	'고등학생'	'가족나들이'	'하트나무'
행동 관찰	•워크지와 매체를 활용한 계란 조각과 가운데 말풍선 워크지에는 내용구성이 가득하다.	•먼저 동그라미 원 안에 가족을 표현한 후 선택한 검정 도화지 위에 오려 부치고 주변을 색 골판지로 다양한 형태로 꾸미는 작업이다.	•제시자료는 나무그림 워크지와 말풍선 입체하트, 반짝이 풀, 구슬 스티커 그리고 동물그림사진이다.
작품 내용	•계란 껍질에 꾸며진 별 무늬와 로봇 장난감, 그리고 탄생된 본인의 소원	•왼쪽부터 아빠, 본인, 엄마, 동생을 그렸다. 부모 사이에 본인을 배열하였	•연두색 나무 워크지를 선택하였으며, 말풍선하트걸 표지에 구슬스티커로 장

	이 담겨져 있는 말풍선 속에는 베트남, 컴퓨터, 돈, 중학생, 휴대폰, 자동차, 강아지 등이 있다. 현재 입학에 기다리는 과정이 지루하고, 빨리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있다.	고, 동생은 오른쪽 엄마 옆으로 구성하였다. 배경 색깔판지 조각은 다소 정돈되지 않아서 제각각 형태를 띠고 있다.	식하였다. 하트 말풍선 위 크지에 본인의 소원을 적어 넣었으며, 절대 보지 말라고 하였다. 구슬스티커로 마무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본인은 시간이 많아서 늦게까지 해도 괜찮다고 하였다.
활동과정	① 도입 ② 치료 실기활동 ③ 작품감상·자아탐색 ④ 치료사 지지 ⑤ 제목만들기 ⑥ 느낌나눔 ⑦ 소감문작성 ⑧ 정리 ⑨ 차기회기알림 ⑩ 종료		

<표 IV-2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단계에서 나타난 참여자 G의 행동적 특징으로는 제시된 주제에 따른 매체선택에 집중하는 행동과, 소재표현에서도 중얼거리며,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품내용에서 말풍선, 가족, 소원 등에서 나타난 본인의 소망을 가족, 진학, 여행, 언어능력향상으로 표현하며 구성하였다. 이러한 후기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과 연구자의 지지적 치료과정에서 긍정적인 사회화과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 G의 단계별 회기 사례분석>

이상으로 참여자 G의 작품 전체를 살펴보면, 초기단계 작품부터 자신만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본국에서의 유아동기의 삶은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갈등이 한국에 와서 엄마와의 상봉으로 현재 마냥 행복해 하는 모습이다. 아직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이나 정서발달은 유아기 정서가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현재 부모의 사랑과 지지로 곧 회복될 것으로 본다.

중기단계에서 콜라주 표현이 주는 무의식 탐색과 내면의 자아상 표출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자아를 그대로 나타내 주었다. 이러한 표현과정과 치료사의 수용적 과정 및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무의식 탐색은 참여자 G를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생활적응 안정으로 이어졌으며, 원만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욕구표현에서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후기단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재인식하고 긍정적 표현으로 하는 과정

의 경험은 미래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통찰과 현실적응향상, 즉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다음 <표 IV-28>에서는 참여자 G의 초기, 중기, 후기, 단계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표 IV-28> 참여자 G의 콜라주 작품 이해 및 분석

영역	초기단계(1~3)	중기단계(4~7)	후기단계(8~10)
행동적인 측면	큰 목소리, 신체 활동이 크고 이어폰을 꽂고 있음. 매체선택은 시간을 요함	매체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보여짐	노래를 흥얼거리며 여유있는 태도와 자발적으로 정리정돈 함.
형식적인 측면	뾰족한 끝조각을 사용하여 예민하고 즉흥적인 면 구성 함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절제된 화면 구성.	대칭구성과 공간여백으로 규칙성을 보여 줌.
내용적인 측면	안정적인 정서 내면을 요구하는 나와 나무 콜라주 작품	솔직한 자신의 욕구표현으로 아동의 순수함을 나타냄.	가정 정서를 표현하며, 자신의 욕구로서 욕구표현을 정확히 전달 함.

초기단계에서는 거침없는 행동과 인정받고자 하는 작품 내용 및 결과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강하고 예민한 구성적 요소를 내포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는 욕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기단계에서는 절제된 화면을 구성함으로써 표현과 욕구를 제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자발적인 행동과 집단 원들에게 배려하는 모습은 인정받고 소속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모국(베트남)에서 당당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사춘기의 영웅 심리적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후기단계의 행동, 형식, 내용적 측면에서 변화된 모습은 집단 내에서 자발적 행동과 작품구성에서 규칙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효과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확인함으로써 미래의 진로 방향성을 확신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요구를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집단내의 강한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G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회기 작품은 다음 [그림 IV-7]과 같다.

1회기	‘내 이름’	2회기	‘우주 꽃’
	‘나 소개하기’		
3회기	‘신나는 나무’	4회기	‘내 모습’
			
5회기	‘별’	6회기	‘이쁘니’
			
7회기	‘좋아 하는 거’	8회기	‘친구들과 함께’
			
9회기	‘좋은 가족’	10회기	‘비밀트리’
			

[그림 IV-7] 참여자 G의 10회기 작품

<참여자 A~G 작품 미술치료이론 분석결과>

다음 <표 IV-29>는 참여자 A~G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미술치료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IV-29> 참여자 A~G의 미술치료이론 분석결과

참여자	미술치료의 이론 적용
A	<p>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회상에서 나타난 본국의 생부와 고향집 표현은 유·아동기 발달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양육의 필요충분조건을 억압이라는 방어기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현재 가정생활정서에서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림 표현은 회상을 통한 내적 대리만족감으로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보호하려는 자기애적 합리성이 내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외상이 있는 신체일부를 드러내는 행위는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자신의 아픈 콤플렉스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 의개방과 수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속에 나타난 상징과 참여자의 사후질문(PDI)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경험이 현실인식을 도와주고 자신을 직시하게 하는 과정으로 자아탐색 및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p>
B	<p>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가족구성원과 한국이름으로 한국사회 적응 및 소속감에 대한 노력은 융의 개성화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개성화는 자기인식 과정으로 ‘인간이 심리적으로 나눌 수 없는 개인’이다. 이는 무의식 내용을 인식하는 행위로서 즉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자기로부터의 소외’에서 오는 상실감에 대한 극복이다. 이러한 극복 과정은 보다 높은 성숙의 기회를 얻고자 함이다. 따라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작품에서 나타난 상징 및 사후 질문(PDI)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경험이 자신의 분열된 내적 트라우마를 격리하는 방어기제로 자신을 보호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결과로 학교생활에 원만한 적응력을 높이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작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도출하는 경험으로도 볼 수 있다.</p>
C	<p>참여 연구자 C의 문양 만다라 콜라주 작품에서 이국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표현과 신체적 행동 및 외적차림새에서 보이는 것을 인지학적 미술치료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슈타이너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였다. 인지학적 측면에서 미술치료는 심미적 예술이 목적이 아닌 창의적 활동을 중시하며, 교육적 중재를 통한 예술 치료적 방법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미술 행위는 ‘자유로운 자기성찰’의 의미를 갖게 하는 과정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터득하여 자기인식과 현실 인식을 깨우쳐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환상적 모델 선망에 대한 동일시로 자신의 의도와 다른 현실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반동형성 방어기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즉, 언어와 문화에 대한 미적응 상태의 자신을 회피와 합리화라는 방어기제의 무의식적 발현 현상이라고 볼</p>

	<p>수 있다. 따라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경험은 작품에서 나타난 상징 및 의미 등은 이러한 불안 극복 및 강한 에너지 표현인 자아를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바람직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p>
D	<p>참여자 D의 나와 나무그림 콜라주작품에서 나타난 그네 타는 자신의 모습과 웅크리고 앉아 있는 맹금류의 등장 및 언어소통과 미술매체 활동 선택을 누나에게 의존하는 행동 모습에 나타난 것을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나타난 폰에 대한 현실집착은 자신의 정체성 방향 및 마음 컨트롤이 어려운 상태로 분리불안과 현실적응에서의 퇴행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힘이 세다고 강조하는 맹금류의 등장에서 퇴행과 남성성 및 공격성이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페르조나는 우리가 ‘사회’나 ‘현실’과 관계를 맺고 적응해 가는 가운데 인간에게는 각종 사회적인 역할과 태도가 부여된다. Jung은 집단이 개인에게 준 역할, 의무, 약속, 그 밖의 여러 행동양식(윤기봉, 2002)을 ‘페르조나’라고 불렀다. 자아가 페르조나와 지나치게 동일시되면 내적인 정신세계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주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만 부응하는 인간이 된다. 바람직한 페르조나의 모습은 내면세계와 외부세계 사이에서 효과적인 조절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불안과 공허 속에서 또 하나의 페르조나를 드러내는 심리학적 유형중의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E	<p>가면 점토작품과 문양만다라 콜라주 작품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였으며, 매회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에 몰두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표현보다는 웃는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 태도와 무응답으로 자신의 답변을 거부하는 행동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참여자 E의 특징적 행동 및 표현을 인지학적 미술치료와 게슈탈트 미술치료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Steiner(2001)는 ‘모든 사람은 정신 활동의 어느 한 구석에 정상이 아닌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 가능한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지학적 미술치료는 치료적 차원과 예방적 차원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치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미술치료 작품에 나타난 상징을 게슈탈트 미술치료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her and now)’를 강조하는 인간의 개체성과 현재의 욕구처리 중심에서 욕구이론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게슈탈트치료에서 미해결 과제를 들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유기적인 욕구를 받았을 때 게슈탈트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해소를 방해받았을 때, 개체는 게슈탈트를 완결하려는 경향에서 미완결로 떠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미해결 과제가 나타난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여기’에 회피하지 않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콜라주 집단미술활동 경험은 감정을 작품 속에 심도 있게 나타내며, 집중하는 태도에서 자신의 의무와 무거운 책임을 현실 회피와 완성된 작품에 대한 만족으로 승화하는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p>
F	<p>동그라미 가족 콜라주작품에 나타난 작품내용에서 엄마의 본국인 베트남 방문을 권유하는 엄마와의 마음을 공감하려는 듯한 애착 관계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공유된 남성성을 공유하며 스포츠 활동을 함께하고 있었다. 진학이라는 아버지의 높은 관심과 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엄마의 마음에 다가가는 모자간의 정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관계를 정신분석학적 미술치료 관</p>

	<p>점에서 살펴보면, 모에 대한 애착 관계는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현상이라고 보인다. 또한 현실적응과 아버지와의 대등한 성적 대결로 스포츠를 하면서 가정내에서 엄마를 보호하고자하는 힘의 균형과 강한 역동성으로 삶의 에너지와 당당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은 심상을 통한 무의식과 의사소통에 대한 통찰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p>
G	<p>4회기 작품인 필름콜라주 작품에서 나타난 과거, 현재, 미래의 자신의 모습표현에서 과거의 긍정적 회상과 미래의 역동성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현재의 모습에서는 소외된 정서와 정적인 생활이 자신의 성향과 대립되는 억압적인 행동양식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억압에 대한 분출로 작품에서 욕구로 표현되어 나타났다.</p> <p>프로이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기술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심상을 통한 무의식과 소통에 대한 통찰력과 미술치료기법을 함께 사용한 나움부르크는 내담자의 미술작품을 ‘상징적 언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미술이 보조도구라기 보다는 주된 치료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이 내면의 억압을 해소하는 표출작업 활동과정으로 자신의 재발견과 통찰 그리고 훈습과정은 치유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표 IV-29>에서 미술치료이론 분석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A~G의 결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참여자 A의 분석적 특징으로는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이 자아인식을 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위축된 자아를 직시할 수 있게 하는 치유적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B의 분석적 특징으로는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승화시키는 긍정적 표현수단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 C의 분석적 특징으로는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은 작품 속에 상징 및 의미를 부여하고 대리만족이라는 현실극복을 함으로써 해소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D의 분석적 특징으로는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은 자신의 역동적 에너지를 작품 속에 심도있게 나타내는 에너지표출과 우월적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 E의 분석적 특징으로는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은 자신의 감정을 작품에 집중하며 작품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승화하려는 방어기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F의 분석적 특징으로는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이 무의식에 내포된 엄마와의 애착이 작품결과로 승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G의 분석적 특징으로는 콜라주 미술치료 경험이 내면의 억압을 해소하며 자신의 재발견과 통찰하는 치유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심리·정서적으로 회기별 변화에서 현실적응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례별 맞춤 프로그램으로써 질적 사례연구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

1.2. 사례 간 분석

다음 <표 IV-30>은 참여자들의 콜라주작품에 나타난 그림의 상징, 사후질문(PDI), 소감, 발표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참여자 A~G의 개인별 작품에서 나타난 심리·정서변화 및 자아표출의 변화과정에 따른 변화요인의 공통점 및 특징을 초기·중기·후기단계로 살펴본 것이다.

<표 IV-30> 참여자들의 단계별 심리·정서변화

단 계		공통점	특징
초기	친밀감 형성 및 자아욕구 탐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국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 마을에서 보냈던 유년기 경험을 회상 • 한국어 소통에 대한 부족함을 의식하여 자기감정 표현에 소극적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어적 자기표현 • 초기개입에서 소극적인 태도 • 머뭇거리는 언어표현
중기	자기이해 및 현실인식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매체에 대한 호기심, 특히 곡물매체에 대해 사용가능을 반복하여 확인 • 자신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다라활동에 진지한 태도 • 출신 국적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자 함

후기	현실적응 및 미래 비전 제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을 촬영한 후 가족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함 •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에 도입 • 자신의 꿈 또는 진로 변화를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직업선택 • 경제활동 질문 • 가족부양 책임의식 • 이중언어에 대한 자신감 • 학업욕구
----	----------------------------	---	---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초기단계는 친밀감 형성 및 욕구탐색단계이며, 중기단계는 자기이해 및 현실인식단계, 후기단계는 자아존중감 및 현실적응력 향상과 미래 비전 제시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초기에 나타난 모국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방어기제가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프로그램 활동과정 중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중기에서 표현된 공통점과 특징을 살펴보면, 활동과정에서 미술매체에 대한 호기심과 창작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조건에 적응하고자하는 집중력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후기에서 드러나는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공통적 표현은 자신의 작품을 간직하고 가족과 지인들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자신의 작품 존중감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학업성취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초기와는 달리 구체적인 진로선택과 가족의 소중함, 책임, 등 소속감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와 이중언어 능력을 발휘하고자하는 의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활동 경험에서 나타난 작품의 변화사례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증명해 주며, 지속적으로 연구할 특별한 의미를 증명해 준다.

2. K-HTP 심리변화

2.1 사례 내 분석

동적-집·나무·사람(K-HTP: Kinetic-House·Tree·Person) 그림검사(K-HTP: Test)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생활과 구성원들과의 관계된 감정을 이해하는 데 상호 관련되어 유용한 자료가 되며, 정신분석학적인 관점 및 발달적 체계를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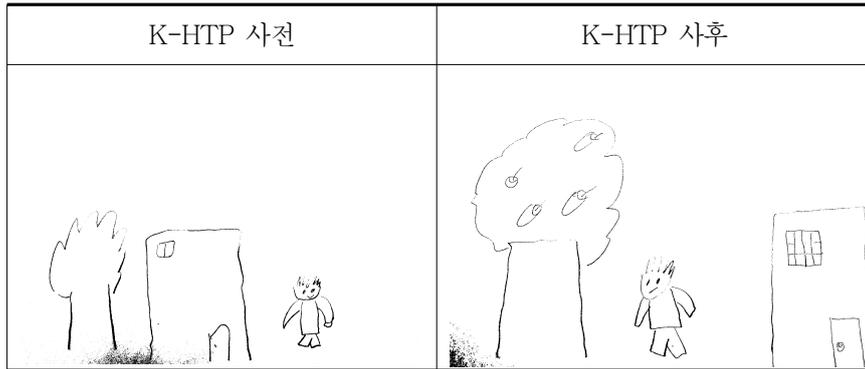
K-HTP의 단계적 해석에 있어서 매슬로우의 모델을 적용시켰다. 매슬로우의 모델은 ‘욕구체계’를 포함하였으며, 매슬로우의 발달적 모델은 인간의 성장과 잠재력을 고찰하고 이해하는 개방체계다. 따라서 K-HTP는 그림 진단도구로 많이 사용되며, 사전과 사후 검사에도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인 중도입국 청소년 참여자 A부터~G까지 7명의 개인별 K-HTP 사전·사후검사로 변화과정 및 변화요인을 참여자가 그린 그림의 이미지 및 상징, 공간 해석과 사후질문(PDI)¹¹⁾, 소감,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1) 참여자 A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A의 콜라주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타난 K-HTP 사전·사후변화는 다음 [그림 IV-8]과 같다.

11) 사후질문(PDI- post drawing inquiry: 사후질문과정)은 자기상, 신체상, 이상적 자기성정체감 등 성격 구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다.



[그림 IV-8] 참여자 A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A의 K-HTP 사전검사에서의 행동관찰 및 그림 상징을 살펴보면, A는 머뭇거리며 자신의 모국인 중국 신앙에서는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A는 집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으며, 나무그림에서는 왼쪽 하단에 강약이 있는 필 압으로 수관과 나무기둥을 한 선으로 변형된 열쇠구멍 형태로 표현하였고, 사람 그림 역시 그리기를 망설인 후 손과 발이 없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집 그림은 지붕이 납작한 슬라브 형태이며, 작은 창과 출입문이 있다. A가 사전 검사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그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좌측하단에 매우 불안한 필 압으로 표현한 것은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없는 환경에서 현재의 경험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 퇴행과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집단원의 옆 친구 그림을 힐끗 힐끗 보면서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집을 기저선 위에 좌측에 배치하였다. 나무는 열매 4개를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욕구를 선명하게 나타냈고, 사람 그림에서는 발과 한 손이 생략됨으로써 인지발달 및 정서발달에 퇴행적 발달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사후검사 시에서도 행동관찰은 연구자 및 집단 원들과의 편안한 눈 맞춤, 미소와 함께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들릴 정도 대답하는 변화를 보였다. 반소매로 참여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피부를 노출하며, 연필을 잡을 때 손을 드러내는 것에도 개의치 않았다. 집단원들은 지난 주말에 다 함께 다문화 예비 학교 체험 프로그램인 2박 3일 하회마을 한옥체험을 다녀와서 더욱 친근해 보였다. 그림 중앙 하단 오른쪽에 지붕이 없는 납작한 슬라브 네모형태의 집 그림과 창문은 왼쪽 상단에 창살이 많은 형태이다. 오른쪽 하단에 출입구에는 동그

란 손잡이가 있다.

나무그림은 좌측으로, 나무기둥은 세로로 두껍고 튼튼하게 그렸다. 수관 필압은 바람에 날리듯이 사용하였으며, 사과 열매는 4개가 달려있다. 사람 그림은 좌측 나무와 우측 집 그림 중앙에 발과 한 손이 삭제된 몸체로만 표현하였다.

흔들리는 나무 형태로 표현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집, 나무, 사람 그림과 강한 필압 및 속도감은 비교적 안정된 정서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사전검사시 행동의 관찰로는 연필을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을 당황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다른 집단원들과의 눈 맞춤에 어색해하며 고개를 아래로 수그리고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이상으로 사전검사 및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참여자 A의 K-HTP 그림검사 변화를 살펴보면, 나무크기의 변화와 집 그림 위치변화 그리고 집과 나무중앙에 인물 그림의 변화는 크기와 형태 및 공간구성 상징과 같이 가조그이 정서와 가족간의 소통에서 향후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나무의 크기와 열매상징은 자신의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결과로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새로운 가족형성에 대한 어색함이 불편한 입장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생부의 관심으로 현재생활이 익숙해짐에 따라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여 자신의 욕구를 투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통이 부족한 답답한 현실표현으로 창문의 창살이 촘촘히 표현되어있다. 이러한 욕구 표현은 인간에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활로가 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소외된 정서를 지닌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은 K-HTP 그림 검사 변화에서도 나타났듯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은 가위로 오리고, 풀 작업 등 자신의 내면을 콜라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내면의 갈등이 완화되었으며, 해소가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참여자 A의 심리·정서 변화는 그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구도 형태 상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참여자 B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B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타난 K-HTP 사전·사후변화는 다음 [그림 IV-9]와 같다.



[그림 IV-9] 참여자 B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B의 K-HTP 사전검사에서의 행동관찰 및 그림 상징을 살펴보면, B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선을 반복하며 자유로운 곡선으로 천천히 그렸다. 표정은 밝은 미소를 보이며 간간히 겸연쩍은 웃음을 보였다. 참여자 B 상대방의 음성을 정확히 경청하기 위하여 입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였다. 사후검사 시 행동관찰에서는 종종 늦게 오는 참여자 A때문에 휴대폰에 온 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았다. 또한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에 애정을 가지며, 연필선에 정성을 기울이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붕과 집 모양은 둥글고 불규칙한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창문은 없고 출입구는 집 중앙에 그렸다. 중국 하얼빈에서 어릴 적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던 고향집을 회상하며 그렸으며, 제목은 ‘고향집’이라고 지었다. 나무는 우측에 길게 세워졌고, 기둥에 세로 음영선을 그렸으며, 가지는 구불구불하게 불규칙하게 나타냈으며, 음영 선으로 나무수관을 표현하였다. 집과 나무 가운데 사람을 그렸으며, 머리가 긴 원피스 차림의 여성은 미래의 자신이라고 하였다.

사후그림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과 그림구성은 머뭇거리며 연필을 잡았으며, 집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리기 어렵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름답리 커다란 나무위에 있는 통나무집 그림은 창문과 출입문이 있고, 출입할 수 있는 사다리로 지면과 나무위의 집을 연결하였다. 그 옆 나뭇가지에는 그네를 타고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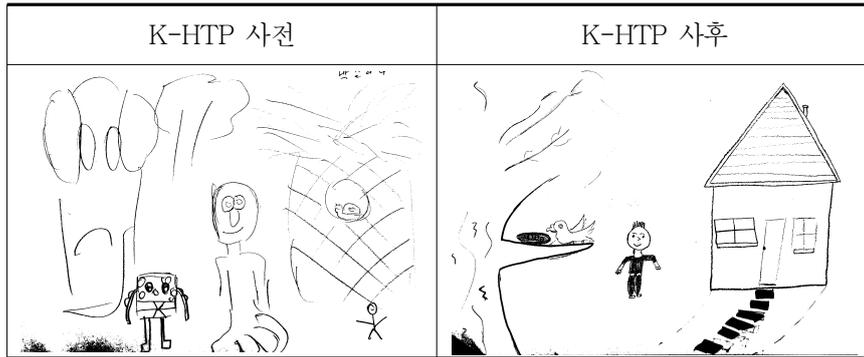
신의 어릴 적 모습을 표현하였다. 통나무로 지은 집과 그네 그림의 필압과는 대조적으로 흐리고 속도가 빠른 필체로 나무기둥과 수관을 그렸다.

사전검사 및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참여자 B의 K-HTP 그림검사 변화를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불규칙한 선으로 나타난 ‘고향집’ 오른쪽에 나무그림은 중도입국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회상표현으로 집에 대한 과거의 이미지와 마치 몽골 유목민의 전통가옥인 게르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회상 속에서 나타난 과거 유년기의 경험이거나, 직접 접해본 현상물의 영향으로 현재 한국사회 문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징물로 볼 수 있다. 나무는 또 다른 자아로써 비록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구도에서 우측에 그리기는 하였지만, 오른쪽이 잘려진 표현은 자신의 정체성에 미완된 심리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떨어진 필압과 완성도 있는 자신의 미래 인물상은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막연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심리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심리상태는 심리적으로나 사회 정서적으로 소외된 대상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후변화에서 나타난 상징으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족관계 및 학교생활을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일반 교우와 매스컴을 통한 물질문명 속에서 자신의 현실생활과는 괴리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적 자극이 아름답리 커다란 나무위에 범접하기 어려운 사다리를 통하여야만 통나무집으로 안착 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정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그네 타는 유아동기 자신의 모습은 포위를 통하여 정서적 고립과 자기방어에 심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징은 자아에 대한 강한 방어와 숨겨진 고립된 정서가 그림 속에 투사되었으며, 회상을 통한 유아동기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경험 및 기억이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자아상에 대한 희망과 염원의 욕구를 피상적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참여자 C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C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타난 K-HTP 사전·사후변화는 다음 [그림 IV-10]과 같다.



[그림 IV-10] 참여자 C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C의 K-HTP 사전검사에서의 행동관찰 및 그림 상징을 살펴보면, 진한 화장을 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작업 활동에 참여하며, 시선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이 좌우 방향으로 관심을 보였다. 용지 우측에 거대한 파인에플모형의 집 그림은 화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저는 파인에플을 좋아해요’라고 자신이 그린 집 그림을 자신의 의도된 주장으로 명료화하였다. 파인에플 집 속에 둥근 구멍 모양이 있으며, 그 속에 달팽이가 그려져 있고, ‘달팽이는 우리 할머니여요’라고 말하였다. 좌측에 둥근 곡선으로 이루어진 나무형태는 눈과 입 모양을 그려 넣었고, 둥근 나무 우측상부에 작은 나무그림을 표현하였다. 중앙 하단에 머리카락이 없고, 큰 눈과 손발이 생략된 사람 그림과 스폰지 캐릭터로 보이는 사람 그림을 함께 그렸다. 스폰지 사람은 ‘제가 아니고 동생이에요’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강한 필 압으로 우측하단에 줄라맨 형태의 사람 그림을 그려 넣었다.

사후그림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과 그림구성은 화장을 즐기하며 밝고 반가운 표정으로 집단 원 모두에게 ‘안녕 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였다. 함께 온 동생에게도 인사하라고 명령하듯이 말하였다. ‘어제 엄마가 학교가면 선생님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라고 하셨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용지 좌측에 나무가 반만 그려져 있으며, 나무기둥은 강한 필 압으로 그려졌으며, 가지는 끊어졌다 이어지는 반복된 구불구불 한 선으로 그렸다. 수관은 생략되어 있고 나뭇가지에 새의 등지와 그 속에 새알이 있으며, 어미 새인 듯한 새 그림이 표현되어 있다.

중앙에 그린 사람을 표현하는 정확한 선과 몸체는 음영으로 채색되어 있다. 위로 치켜 올린 머리는 자신감과 출세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측에 반듯한 직선으로 표현된 지붕이 높고 뾰족한 가로 줄 무늬의 세모형 태 지붕은 강한 경쟁욕구를 갖고 있으며, 그 위 우측에 조그마한 굴뚝이 그려져 있다. 집 창문은 중앙출입구 양쪽에 있으며, 십자모양의 창틀로 이루어져 있다. 출입구로 향하는 디딤돌에 강한 음영을 넣었다. 집 그림에서는 가족에 대한 애착과 그에 따른 사춘기의 건강하고 독립된 자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전검사 및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참여자 C의 K-HTP 그림검사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 사전그림과 사후그림은 다른 사람의 그림으로 보여 질 정도로 형태, 필압, 선 등 매우 다른 표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참여자의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심한 감정기복이 그림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행동관찰에서 나타나는 사춘기 소녀 중학생의 짙은 화장과 성숙한 원피스 차림으로 당당한 자세는 자신을 환경으로부터 방어하고자 하는 의도적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치료사의 질문에 ‘네’, ‘아니오’를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언어적 한계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어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작품 활동 중 연구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이해하였다는 의사표현이며,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오케 오케”하며 즉시 응답하면서 서로 소통하였다. 사전그림에서 나타난 내용은 동생과 만화에 관심을 기울일 때였으며, 참여 초기에 동생을 보살피기 위하여 그림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때였다. 그로 인해 그림내용은 장난스럽게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인에 플 형태 속의 달팽이는 우즈베키스탄에 홀로계신 친할머니라고 하였다. 이는 집 그림에서 나타나는 본국에 계신 할머니에 대한 회상에서 작고 힘없는 달팽이로 투사되었으며, ‘달팽이처럼 천천히 연세를 드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유아동기에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긍정적인 회상과 미래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현재 자신이 노력해야하는 것에 대한 힘의 원동력으로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 안에 있는 할머니를 달팽이형태로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성장 및 독립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후검사 시 행동관찰에서 좀 더 과격하고 거침없이 손으로 동생의 등을 밀치는 행동과 때로는 섬세하

게 매체를 챙겨주며 모국어로 자세히 통역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시 ‘빨리 그려서 해치워야겠다’는 태도로 거침없이 자기를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과제를 제시해도 해낼 수 있다는 의욕적인 행동을 보였다. 작품과정에서 항상 작업을 완성하는 시간과 그리는 시간이 다른 집단 원들보다 빨랐다. 이는 과정보다 결과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속도감이 빠르며, 우월감을 상징하는 태양과 자동차 및 강한 필 압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특이하다.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이 집단 내에서 가장 빠르며,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사후그림에서 나무의 등지와 새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구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새로운 문화적응과 언어적 소통의 한계가 본인의 외적 욕구 표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후에서 나타난 형태의 선 필 압은 참여자의 끈고 확실한 성향을 볼 수 있다. 출입구에 놓인 디딤돌은 본의의 의사 ‘우리 집도 TV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집으로 꾸미고 싶어요’에 따른 가족 내에서 주된 역할과 지지를 받고자 하며, 우월적 가정생활을 누리며 그에 따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징은 자아에 대한 현실적인 강한 방어와 숨겨진 고립된 정서가 그림 속에 회피로 투사되었으며, 회상을 통한 유아동기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경험 및 기억이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미래의 자아상에 대한 우월적 자신감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춘기의 건강하고 강한 에너지로 표출함으로써 안정된 정서와 자존감 형성을 나타내고 있다.

4) 참여자 D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D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타난 K-HTP 사전·사후변화는 다음 [그림 IV-11]과 같다.



[그림 IV-11] 참여자 D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D의 K-HTP 사전검사에서 행동관찰 및 그림 속에 나타난 상징을 살펴보면, 행동관찰에서 집단 원들과의 눈 맞춤보다는 함께 온 누나에게 의지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또한 언어적 한계로 웃음에 의존적이며 장난스러운 눈짓과 몸짓으로 누나에게 설명 및 통역을 원하는 “응~ 응~” 하는 중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러시아어 또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종종 중얼거리고 있었으며, 연구자가 궁금해서 ‘뭐라고 말 했니 같이 듣고 싶다’고 말하면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예요’ 라고 하였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집에서 낙서를 잘한다고 하였다.

사전검사에서 집 그림은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라고 말하며, 출입구와 동그란 네모창이 함께 어울리게 그렸다. 또한 집 건물 옥상에는 자동차가 있으며, 지상으로 내려 갈수 있는 자동차도로를 사선으로 연결해 놓았다. 나무그림은 좌측과 우측에 자연스러운 선으로 수관과 함께 표현하였다. 사람은 단선으로 연결된 그림자 형태로 자신과 아빠를 그렸다. 우측 상단에 태양이 있고 눈과 입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제목은 ‘우리 집’ 이구요 ‘자동차 여행을 할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니’라고 질문하면, D는 ‘미국도 가구요, 우즈베키스탄도 갈 거예요’라고 웃으며 대답하였다.

사후그림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과 그림구성은 좌측에 열매 세 개가 달린 가느다란 나무그림과 여러 반복되고 흐린 선으로 이루어진 집 그림 형태이다. 동그란 손잡이가 달린 집 그림에는 집 크기에 비해 커다란 출입문이 있으며, 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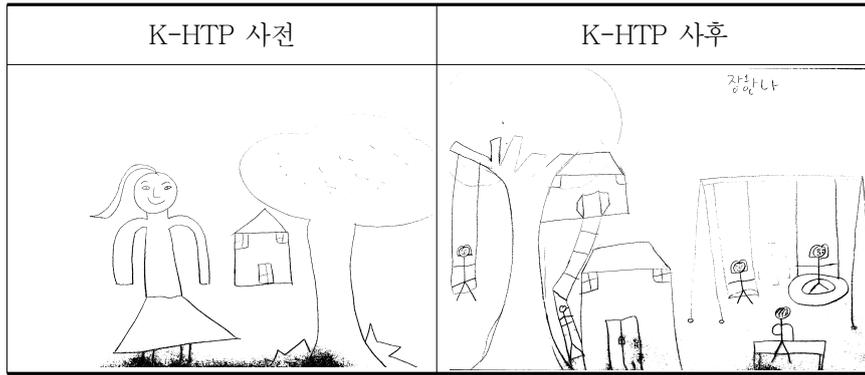
창살이 있는 창문은 지붕에 있다. 우측에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청소년을 그리면서, 머리는 쭈뼛이 위로 향하고 있고, 커다랗고 짙은 눈을 표현하였다. 집 그림과 사람가운데 날카로운 귀를 가진 토끼를 그렸다.

사전검사 및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참여자 D의 K-HTP 그림변화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 우리 집의 의미와 역할 및 사후그림의 의미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 발달변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람표현에서는 아빠가 사라지고 청년의 모습과 예민하고 공격성이 내포된 토끼등장은 D의 반항적인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사춘기에 접어든 발달단계로서 자기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바지 속에 두 손을 넣은 사람그림 표현은 불편한 언어소통에서 또래집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인 위축감을 반대로 강한 자신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에 있는 날카로운 두 귀를 쫓긋 세우고 있는 토끼와의 관계에서 마치 또 다른 자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재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누나의 말에 의하면, 'D는 게임할 때 말시키면 화를 내요' '아주 나빠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 다른 자신, 즉 페르조나로 볼 수 있다. 집 그림에 있는 지붕꼭대기에 위치한 창살이 많은 창문의 상징은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이상향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사전검사에서의 장난스럽고 해맑은 표현과 대비되는 변화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징은 자아에 대한 강한 욕구표현과 때로는 방어로 숨겨진 소외된 정서가 그림 속에 투사되었으며, 유아동기의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경험 및 기억이 무의식에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미래의 자아상에 대한 우월적이고 현실인식에서 오는 두려움을 자기성장과 지적자극을 통해 희망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었다.

5) 참여자 E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E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타난 K-HTP 사전·사후변화는 다음 [그림 IV-12]와 같다.



[그림 IV-12] 참여자 E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E의 K-HTP 사전검사에서의 행동관찰 및 그림 상징을 살펴보면, 먼저 E의 행동관찰로는 작품 화동에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지만, 말은 없었다. 집단 원들 간에는 장난치며 베트남어로 소곤대는 모습을 보였다.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손거울을 책상에 놓고 얼굴을 자주 비추어 보곤 하였다.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고개를 끄덕였으며, 작품 활동에서는 매우 집중력이 있어 보였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사전검사 그림에서 우측에 크게 나무가 단선으로 표현되었고, 좌측에 머리를 위로 묶고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 그림을 그렸다. 사람그림에서 두 손은 삭제시켰지만, 표정은 씩씩하고 기분 좋아 보였다. 집 그림은 사람그림과 나무그림사이에 매우 작게 그렸다. 작은 집 그림에는 출입구와 창문이 양쪽에 하나씩 두 개를 그렸다. 그림 제목은 ‘놀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사후그림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과 그림구성은 사전그림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야깃거리가 풍부하였다. 그림은 좌측에 나무를 그렸으며, 나무에는 사다리로 연결된 나무위에 집 그림과 사다리를 타고 가는 줄라맨 형식의 사람 표현 그리고 나뭇가지에 그네를 타는 사람그림을 그렸다. 나무 옆 하단에 있는 집 그림은 출입구가 양문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작은 십자형 창문도 양쪽에 그렸다. 우측에는 두 개의 그네에 사람이 타고 놀고 있으며, 그 앞 벤치에도 사람이 앉아 있는 그림이다. 그림 제목은 ‘놀이터에서 베트남 친구와 한국 친구가 놀고 있어요’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베트남 친구들이 보고 싶겠네’라고 말하니 까, ‘괜찮아요.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서 베트남 가서 만날 거예요’라고

말하며 의연하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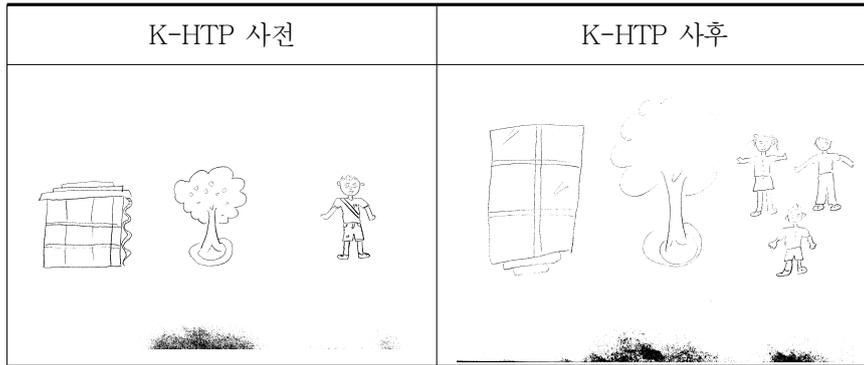
사전검사 및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참여자 E의 K-HTP 그림변화를 살펴보면,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그림의 여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하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다가갈 수 없는 자아를 표현하였다. 삭제된 두 손은 현실에서 자신감의 결여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작은 집 형태 표현은 가정정서에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생활로 무의미한 가정의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친엄마는 장시간 경제활동으로 딸과의 소통시간이 짧다고 하였으며, 한국인 아빠는 펫샵을 운영하는데, D가 샵에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D는 샵에서 한국인 아빠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어색한 이유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D를 아빠가 ‘빨리 한국말 배워’ 라고 다그치듯 말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라고 말하고 있다. 우측에 단조로운 나무도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인 아빠의 결정권이 지배하는 가정생활의 구조를 엿볼 수 있었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나타난 사후그림을 살펴보면, 나무위의 이상적이고 독립된 집과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 표현은 자아표현에서 자신감을 자극시킨 결과로 역동적인 내용과 상징으로 가득 표현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본국의 어릴 적 친구들을 회상하는 것을 보면, 현재 이뤄지지 않는지만 미래에 만남을 기약하며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 E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상징은 프로그램 전후에 자아성장에 높은 변화를 가져 왔다. 고립된 정서가 그림 속에 인물삭제 등으로 투사되었으며, 그림속에서의 본국에 대한 회상은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미래에 희망을 품고 현실적응에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참여자 F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F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타난 K-HTP 사전·사후변화는 다음 [그림 IV-13]과 같다.



[그림 IV-13] 참여자 F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F의 K-HTP 사전검사에서 행동관찰 및 그림 상징을 살펴보면, 행동 관찰로는 작품 활동 중에 항상 가장 앞자리에 앉으며, 연구자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대답을 잘하며 제시내용에 따라 그림을 그리려는 모습을 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세련된 머리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어소통이 가장 원활한 친구이다. 옆에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집단원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대신 말을 전달하였다. 작품 활동 종료 후에 정리정돈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칭찬받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전 그림검사에서 나타난 집 그림은 좌측에 아파트 형태이며 베란다를 표현하였다. 나무는 용지 중앙에 열매가 가득한 나무를 그렸다. 사람그림은 우측에 대각선으로 가방을 메고 반바지를 입은 남자아이를 표현하였다.

사후그림에서 나타나는 행동관찰과 그림구성은 좌측에 아파트를 그렸고, 중앙에 나무그림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에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친엄마, 중앙에 본인을 그렸다. 제목은 ‘엄마랑 아빠랑 배드민튼을 하기 위하여 공원에 가요’라고 말하며,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토요일에는 롤러브레이드를 타러 공원이나 운동장에 가요’라고 하면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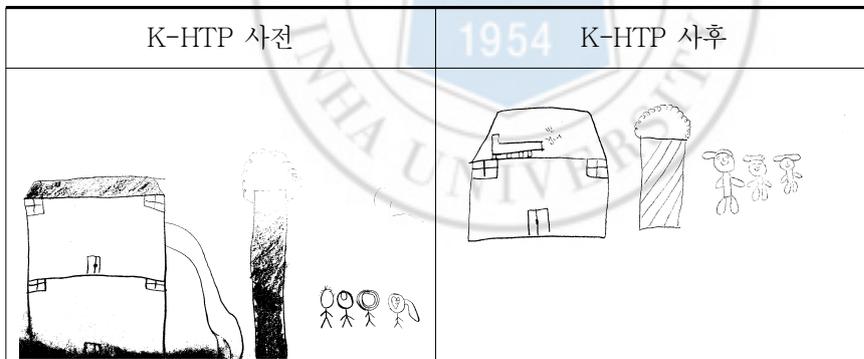
사전검사 및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참여자 F의 K-HTP 그림검사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 그림에서는 제시내용에 따라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자신을 표현하였다. F는 고등학생이 되는 꿈을 기대하고 있으며, 3월에 oo학교에 입학하기로 되어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기대와 설레는 마음은 본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활동과 집중으로 나타냈다. 항상 모

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은 언어습득과 가위로 오리고 붙이는 콜라주 미술치료활동에서도 완성도 높은 작품결과로 성취감을 높이고 자신감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국인 아빠의 사랑과 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한국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아빠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관심을 나타내며, F의 학습과 진로에 대하여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욕구와 갈등의 상징은 미술심리치료에서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여 심리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친엄마와 새아빠의 적극적 지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생활적응과 미래설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7) 참여자 G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G의 콜라주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에서 나타난 K-HTP 사전·사후변화는 다음 [그림 IV-14]와 같다.



[그림 IV-14] 참여자 G의 K-HTP 사전·사후변화

참여자 G의 K-HTP 사전검사에서의 행동관찰 및 그림 상징을 살펴보면, G는 같은 또래에 비해 신체조건이 큰 편에 속한다. 큰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행동반경도 크게 나타나 집단원들을 통제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베트남 노래를 좋아하며 따라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항상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잘하는 편이다. 한국말을 빨리 배우려고 말을 따라 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자주 한다. 사전그림에서 나타난 집 그림은 용지 좌측에 이층집으로 그려져 있고, 이층과 연결된 통로를 표현하였다. 지붕은 기와로 그렸으며, 음영으로 칠하였다. 나무는 중앙에 세워져 있고 수관은 뾰글거리는 형태로 그렸고, 나무기둥은 막대 형태로 음영이 칠 해져있다. 우측에 식구라고 하며, 줄라맨 형태의 사람들 네 명이 그려져 있다.

사후그림에서 나타나는 그림구성은 좌측에 집 본체크기에 버금가는 지붕 크기의 집 그림이 있다. 집 그림의 지붕 부분은 투명하며, 침대가 놓여 있다. 놓여진 침대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혼자서 잘 거라고 말했다. 나무는 중앙에 사선 빗금으로 표현하였으며, 수관은 사전그림과 같이 뾰글거리는 연필 선으로 되어 있다. 나무형태보다는 아이스크림 형태에 가까운 나무그림이다. 우측에 가족 세 사람을 그렸다.

사전검사 및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 후 사후검사에서 나타난 참여자 B의 K-HTP 그림검사 변화를 살펴보면, 콜라주 미술치료 활동은 가위로 오리고 붙이는 우연의 결과와 사진 및 매체활용으로 창의적 활동이다. 또한 손 근육 강화와 눈과 손의 협응력 자극으로 참여자 D의 심리·정서적인 변화는 집 그림에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무그림에서 사선의 의미는 현재 채워지지 않은 욕구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사람그림변화에서도 인물화 발달단계를 한걸음 앞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발달현상은 본국에서 인지학습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지 발달적 자극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흡수력이 뛰어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 G의 사전·사후검사 그림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발달 상징은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이 청소년 정서발달에 직접적이고 긍정적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지지는 언어소통에 한계를 가진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활동과 또래집단에서의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A~G의 K-HTP 사전·사후변화: 번스의 해석기준 적용>

다음 <표 IV-31>은 Burns의 해석기준에 따른 참여자 A~G의 K-HTP 사전·사후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영역별 해석기준에 적용된 참여자들의 해석 내용은 다음 <표 IV-31>과 같다.

<표 IV-31> 참여자 A~G의 K-HTP 사전·사후변화: Burns의 해석기준 적용

영역별 해석 기준	참여자	해석 내용
<p>1. 그림간의 밀착, 거리, 순서, 크기에 의한 해석</p> <p>그림에서 밀착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거나 실패를 느낄 때, 피검자는 밀착된 그림을 그림으로서 자신이 현실적으로 경험해야하는 실패 또는 불만족 등의 어려움을 나타내게 된다. 집 나무 사람그림에서 가정 먼저 그려진 그림은 피검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가설이 있다. 그 가설에는 ①나무가 가장 먼저 그려진 경우. ②집이 가장 먼저 그려진 경우. ③사람이 가장 먼저 그려진 경우이다.</p> <p>2. 소재 활동 내용에 의한 해석</p> <p>집 그림에서는 집의 형태와 기울기를 통해 피검자의 안정성을 볼 수 있고 수직과 수평을 통해 욕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림 속 상징은 피검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가설로 ①수직과 수평적 집 그림. ②나무속의 동물 ③둥지의 새 ④집을 향해 있고 아래로 처진 나</p>	A	동적인 집, 나무, 사람그림 중 나무에서는 열매가 등장하였다. 집은 우측에, 사람은 중앙에 위치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사물의 크기와 사후 질문에서 사전 검사에서는 '그냥요'라고 대답했다가, 사후 검사에서는 '놀아요'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그림의 변화를 가져왔다.
	B	크기 및 위치가 변화된 집, 나무, 사람그림이 상징하는 참여자의 의도에서 현실의 책임과 의무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포위' 의미는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강박적인 방어기제의 성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방어를 합리화하였으며, 그네 타는 자신의 우월을 보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C	현실적인 그림의 변화는 해학적인 표현에서 과거의 미해결과제인 조모를 등장시키면서 무의식에 내재된 본국에 홀로 계신 조모를 파인애플 집 속의 달팽이로 상징했다. 이는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투사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후변화에서 새와 둥지는 현실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과제를 양육해야 하는 알로 투사함으로써 자신의 현재 상황, 즉 게슈탈트적인 현상인 힘겨운 'here and now'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	현재 이 그림은 아동화에서 사춘기 청소년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가족에서 혼자만의 자신을 표현한 빨이 긴 동물표현은 자신의 가면으로써 공격성, 그리고 프로이드의 성격구조의 세 요소 중 초자아를 지붕위의 답답한 창문으로 표현하여, 강한 독립적인

<p>못가지. ⑤ 아래로 쳐진 나뭇가지 ⑩나무 ⑥집을 향해 있는 나뭇가지와 잎이 풍성한 나무 ⑦지붕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⑧떨어진 과일 나무 ⑨그네가 있는 나무가 있다.</p>		<p>욕구가 나타났다. 또한 무의식적인 표현에서 성적인 상징인 나무 열매의 의미는 자아 찾기와 자아발달 등 강한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페르소나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p>
<p>3. 표현양식에 의한 해석 투사그림에 제시된 K-HTP 임상활용에서 표현 양식의 가설 이해는 ①밀착되지 않고 분리된 경우 ②나무와 집이 밀착된 경우 ③집, 나무, 사람이 밀착된 경우 ④조감도 ⑤ K-HTP에서 선을 그리는 경우. 시작한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하는 경우 ⑥검사지보다 크게 그리는 경우 ⑦검사지 아래에 K-HTP를 연장하여 그린 경우. 이 외에 구분화, 모서리화, 포위 양식에 대하여는 HTP검사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p>	E	<p>집, 나무, 사람의 간단한 그림에서 놀이터 및 막대 형태가 다수 등장한 사람그림은 제시된 주제에 따른 자유연상으로 표현된 그림이다. 이것은 언어적 소통의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 그림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저항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함으로써 무의식 속의 내면과 억제된 자신의 내면을 의식화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p>
<p>위의 영역별 해석의 기준을 토대로 참여자의 PDI와 소감문에 나타난 개인별 주관적 의견을 반영하여 해석해야 한다.</p>	F	<p>자기중심적인 그림에서 가족과 운동이라는 집단의 역동적인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의 형성을 하는 노력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라는 가족집단의 무의식을 자신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잠재되어있는 에너지를 사회적인 역동성으로 이끌고 싶은 욕구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p>
<p>위의 영역별 해석의 기준을 토대로 참여자의 PDI와 소감문에 나타난 개인별 주관적 의견을 반영하여 해석해야 한다.</p>	G	<p>현재의 우월적인 욕구표현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중심적인 발달 의식을 고취했다고 볼 수 있다. 자기만의 세계를 꿈꾸는 이상향은 정신분석학에서 ‘이상적인 자아’인 초자아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닮고자 하는 대상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p>

Burns의 영역별 해석기준에 적용된 <표 IV-31>의 참여자 A~G의 K-HTP 사전·사후변화에서 1. 그림간의 밀착, 거리, 순서, 크기에 의한 해석, 2. 소재 활동 내용에 의한 해석, 3. 표현양식에 의한 해석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참여자 A의 특징적 요소는 무의식적인 자아의 성장으로 표현되는 나무크기와 열매등장에서 자신의 심적 변화가 현실의 발달적 욕구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적인 내용에서 놀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의도는 대인관

계측면에서 매슬로우가 주장한 ‘소속의 욕구’가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B의 특징적 요소는 강박적인 방어기제의 성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그네타는 자신을 포위함으로써 자신에게 방어라는 합리화와 우월성을 보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C의 특징적 요소는 투사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했으며, 사후변화에서 새와 등지표현은 현실에서의 문제 상황을 등지새알로 투사함으로써 'here and now'에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D의 특징적 요소는 성적 및 욕구의 상징으로 열매와 강한 욕구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강한 페르소나를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E의 특징적 요소는 현실에서 저항이라는 방어기제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양가감정 및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F의 특징적 요소는 가족과 사회에서 집단무의식의 힘을 얻고자하는 잠재된 에너지를 역동적으로 끌어내고자하는 욕구로 볼 수 있다.

참여자 G의 특징적 요소는 현실에서의 만족할 수 있는 초자아의 현상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참여자 A~G의 발달수준 및 심리정서에서 각기 다른 개별화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2.2 사례 간 분석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실시 사전과 사후에 K-HTP 투사검사를 실시하였다. K-HTP 투사그림검사의 해석은 Burns의 해석기준에 의해 그림에 나타난 상징, 사후질문(PDI), 소감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다음 <표 IV-32>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참여자 A~G의 개인별 그림검사에서 나타난 심리·정서변화와 발달적 공통점 및 특징을 K-HTP 사전·사후로 살펴본 것이다.

<표 IV-32> 참여자 A~G의 K-HTP 사전·사후 변화 특징

참여자	사전	사후
A	불안한 필압으로 집·나무·사람 그림이 하단에 일렬로 구성되었고, 사람그림에서 손과 발이 생략됨	익숙한 필압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며, 사람보다 집의 크기가 커짐. 사람그림에서 손과 발이 생략됨
B	우측 나무그림은 수관이 아래로 처진 형태, 집은 창문이 생략되었고, 출입구는 중앙에 위치, 긴 머리의 성숙한 여성 그림을 표현	중앙에 나무위의 집과 그네를 타고 있는 여아, 계단을 통한 출구, 집은 나무를 포개어 지은 형태
C	사람은 캐릭터로 등장, 열매형태의 집 그림과 등지를 튼 달팽이	나무와 집이 좌우로 분리정돈 됨, 새의 등지 등장, 음영된 남자아동
D	건물위의 주차장, 좌우 나무배치, 나무열매와 연결된 사다리	거주가옥 형태로 지붕에 창문 위치, 좌측에 반쪽 나무와 두 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청소년, 큰 두 귀를 가진 토끼
E	두 손이 생략된 긴팔 소녀, 작은 형태의 집 그림, 우측 가지가 없는 나무	좌측에 그네가 있는 나무, 집과 나무는 밀착, 우측 놀이터 그네 타는 아이들
F	단조로운 집·나무·사람 구성이 완성된 형태	공원에 가고 있는 가족과 사람보다 큰 집 나무 형태
G	좌측 이층구조의 지붕이 있는 집, 중앙에 음영이 있는 나무, 사람은 막대기 형태로 3명	집안 이층에 자신의 침대, 빗금 친 나무 그림, 손과 발이 삭제됐지만 세 명의 사람 그림

<표 IV-32>에서 사전·사후변화를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 K-HTP 사전·사후변화에서 개별적 성향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온 참여자 A와 B는 성별, 양육환경차이로 개별화가 크게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3세 C와 D는 남매로서 해학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이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참여자 E와 F와 G는 본국의 학업 경험 수준 별 그리고 현재 가족의 지지도에 따른 차이와 본인의 의도 및 추진방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검사의 연구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현

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지지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3. 회기별 사례와 K-HTP의 상관관계

다음 <표 IV-33>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별 사례와 사전·사후 투사그림검사인 K-HTP 그림 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상관성을 살펴본 것이다.

<표 IV-33> 회기별 사례와 K-HTP의 상관성

참여자	회기별 사례 특징	K-HTP 분석특징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위 사용 불편 • 그림보다는 사진구성 용이 • 강한 매체 그림 선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압 및 형태 생략 • 소재의 스토리 연결 미숙 • 집-창문위치와 그물망 형태 • 나무-가지생략 • 사람-얼굴표현과 손, 발 생략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 꾸미는 활동 흥미 • 다양한 매체사용 선호 • 작품 만족도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필압 • 소재의 의미있는 스토리 연결 • 집-다양한 형태와 구조 • 나무-자아 에너지 표출 • 사람-섬세한 행동적 특징묘사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 꾸미는 활동 우월한 속도 • 새로운 매체사용 활용 선호 • 완성작품 의미와 내용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약이 있는 필압 구성 • 흥미로운 소재 구성 • 집-창의적 형태 • 나무-감정적 형태 구성 • 사람-다양한 감정 소유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 꾸미는 활동 소극적 • 선호하는 매체만 사용 • 작품 만족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숙한 필압 • 상상 속 소재 다룸 • 집-다양한 욕구 형태 표현 • 나무-왜곡 또는 퇴행 표현 • 사람-강한 자아 표현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 꾸미는 활동 집중 • 다양한 매체사용 선호 • 작품 만족도 높음 • 활동속도 느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필압 • 자유로운 소재로 의미표현 • 집-정서적 감정 스스로 억압 • 나무-강한자아 표현 • 사람-막대 형태로 자신 방어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 꾸미는 활동 흥미 • 다양한 매체사용 선호 • 작품 만족도 높음 • 활동의 의미를 정확히 인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가 있는 필압 • 소재의 스토리역동성 포함. • 집-우월 하고픈 욕구표현 • 나무-안정 된 표현 • 사람-높은 인지발달 표현.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고 꾸미는 활동 흥미 • 다양한 매체사용 선호 • 작품 만족도 높음 • 활동속도 느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민한 필압 음영사용 • 소극적 소재사용 • 집-작고 상부에 위치함 • 나무-음영사용, 가지 생략 • 사람-미발달된 형태

<표 IV-33>에서는 참여자 A~G의 회기별 사례와 K-HTP 사전·사후변화에 나타나는 특징을 상관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참여자 A의 회기별 사례와 K-HTP 사전·사후검사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사람그림에서의 삭제된 표현과 회기 사례에서의 대상관계 및 발달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B에서는 내재된 갈등이 회기사례에서 회상을 통한 표현과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현실적응의 노력에서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승화단계의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C에서는 소외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작품에서 화려하고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현실적응의 노력과 문제해결을 도전이라는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참여자 D에서는 우월하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역동적인 작품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왜곡을 회피하려는 방어적 표현이 작품결과를 통해서 보이고 있다.

참여자 E에서는 소외된 가정정서를 작품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검사와 회기사례의 관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참여자 F에서는 발달적 측면과 심리·정서적 측면을 작품과정과 결과에서 찾

아 볼 수 있다.

참여자 G에서는 단계별 변화와 심리검사로 이어지는 변화에 대한 의미가 상호적 연관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체적으로 본국에서 받은 학업기회와 모국의 문화정서환경으로 개별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콜라주 미술치료의 가치는 참여자들의 감각을 다시 되살렸으며, 소근육 발달 및 창의성을 일깨워주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활동과정에서 집단의 역동성과 잠재된 무의식을 발현하게 함으로써 후기에 가서는 자발적이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표현되었다. 이에 따른 K-HTP 사전·사후 그림결과에서 나타난 상징인 집, 나무, 사람 형태와 거리, 이미지의 의미는 각기 다른 발달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콜라주 미술치료 활동이 서로 관계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심리·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V.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긍정적으로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콜라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의 K-HTP 투사검사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참여로 진행 과정을 관찰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실시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초기, 중기, 후기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단계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작품에 나타난 그림의 상징, 사후질문(PDI), 소감, 발표 내용을 형식적 분석, 내용적 분석, 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검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A부터~G까지 7명의 개인별 작품과, K-HTP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심리·정서변화 및 자아표출의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변화요인의 공통점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집단미술치료 경험 과정에서 나타난 그림변화는 초기단계인 친밀감형성 및 욕구탐색단계에서 공통점으로는 회상을 통한 모국에서의 유년시절 경험을 상기하여 내면의 욕구 등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세션 별 특징으로는 이름 및 이미지표현 그림과 문양만다라 콜라주활동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보이며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여 현실과 스스로 비교하려는 무의식적 현상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은 가정의 정서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집 그림에서 모국의 문화적 배경이 드러났으며, 가족 간의 역할과 본국에 두고 온 남아있는 가족에 대한 회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이해 및 현실인식 단계인 중기단계에서의 공통점은 미술매체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활동에 호감을 나타냈으며, 상호간의 협력으로 공동체에 강

한 소속감을 드러냈다. 또한 매체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창의활동과 작품에 대한 공유는 집단내의 역동을 발현시켰다. 특징으로는 곡물만다라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문화적 자극으로 인해 현실에 직면하는 태도는 현실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서는 위축된 심리·사회적인 정서로 인해 가정에서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기의 진로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자아를 상징하는 나무는 강한 방어적인 표현과 무기력 및 위축된 자아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림으로 나타났다.

후기단계인 자아존중감 및 현실인식 적응력향상 단계에서 나타난 공통점으로는 집단 내 상호간 작품내용을 교류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계란화에 나타난 특징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스스로의 미래 비전제시와 신체적 성장발달에 따른 개인의 독립적 의지와 자세,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양 등을 나타냄으로써 한국으로 이주해온 자신의 입지를 진로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표출을 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탐색 및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이중언어 구사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집단원들의 공통점은 학업에 대한 욕구와 한국사회에서의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이와 같이 콜라주 미술치료 작품과 K-HTP 결과에서 나타난 상징 및 발달은 참여자들이 모국의 문화 정서적 환경에서 경험한 학업과정과 유년기 양육환경 조건에 따라 개별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콜라주 미술치료과정에서 심리적 변화를 작품에 특징적으로 투사되는 결과를 인지하고, 느낌을 경험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의 정서적 감각을 재탄생시켰으며, 창의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콜라주 미술치료 활동과정 및 K-HTP 사전·사후 그림검사 결과는 서로 상호검증관계가 됨으로써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프로그램 성취도에 의미있는 과정이며, 타당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은 작품에서 드러난 변화적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정서적인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은 다른 언어, 이중문화, 그리고 대상관계 등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에 참여한 참여자의 K-HTP 투사검사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참여과정을 관찰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변화과정은 어떠한가?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서 사회적 편견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정 이 회기별 작품내용의 변화에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A~G의 미술치료 초기, 중기, 후기에서 나타나는 작품변화는 참여자들의 미래계획에 대한 현실적응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이주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용이하다는 곽승주(2013) 등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 2: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K-HTP 사전·사후 검사에서 심리·정서적인 변화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은 K-HTP 그림에서 정서적 표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전검사에서 집과 사람의 형태가 부분적으로 삭제되었거나, 집의 형태가 이국적인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K-HTP 검사에 있어서 구성요소인 집, 나무, 사람의 요소가 행동과 함께 구체적으로 그림에 표현되었다. 이는 작업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을 인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보인다. 또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행동은 다른 집단원들과 작품을 교류하거나, 그림에 대한 질문도 서슴없이 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참여자 A의 경

우 초기에는 작품 활동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손을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였지만, 종결단계에서는 신체 팔이 드러나는 반팔의 상의 옷을 착용하고 자연스런 상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콜라주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방어적인 태도가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있어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활동과정에서 작업적인 요소로 오리기, 붙이기, 자르기 등과 같은 신체적 자극을 주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참여자들의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을 해소하였다. 이러한 점에 있어 콜라주 집단미술치료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언어적 한계, 낮은 환경, 본국과 상이한 교육체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왕금미 외, 2016).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변화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것은 미술치료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표현과 매회기 참여관찰을 하면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표정에서 정서변화를 탐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콜라주 집단미술치료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K-HTP 검사의 경우, 참여자의 언어표현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소통이 아닌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심리적 변화 상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질적연구 사례 분석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콜라주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 경험과정은 소집단 내에서 보호적이고 안정된 집단구성 형성으로 타인과의 교류가 정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토 작업과 콜라주 미술 활동이 집단 내 상호작용 행동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승미(2007)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통해 학교생활 부적응, 가족과의 대화 관계, 친구와의 호전 관계를 밝힌 김혜진(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콜라주 미술치료 작품에서 나타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심리정서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콜라주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경험 통하여 그들의 안정된 정서와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으로 성장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래·이근매(2005). 「콜라주중심의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 개념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1), 126- 156.
- 강경선(2011). 「음악과 정신분석」. 인문과학연구, 29, 301-323.
- 강근이(2016). 「콜라주 이미지에 나타난 무의식적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준기(2015). 「성인 성범죄 재소자의 집단미술치료를 계호·참관한 교도관의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정아·권선진·이근매(2008). 「콜라주집단미술치료가 생활재활교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4(1), 1-25.
- 곽승주·전순영(2013). 「난화를 활용한 이야기 만들기 미술치료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서표현 및 이야기 구성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5), 991-1012.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명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복순(2009). 「한국어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김경수(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연(2015). 「미술치료의 범제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연·이성희(1997). 「결손가정 아동의 집단미술치료연구」. 미술치료연구, 4(1), 1-24.
- 김명정(2011).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17(2), 55-76.

- 김미순·이미정(2016).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한 멘토의 진로지도 유형과 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7(4), 677-693.
- 김미진(2014). 「미술치료의 치료적 요인별 미술매체 분석」.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아·이재희·라미영·김기현(2014). 「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청소년 학교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21(9), 147-175.
- 김민정·김선희(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적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성인교육의 과제」. 한국성인교육학회, 15(4), 113-147.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베트남 필리핀 아내의 사례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76.
- 김서안·권영란(2012). 「콜라주를 활용한 단기 미술치료가 품행장애 청소년의 공격성과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6), 1437-1454.
- 김선현(2006). 「한국의 미술치료 현황 및 전망」. 임상미술치료학연구 1(1),
- 김선현(2006). 「통합의학에서의 미술치료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독·미·일 미술치료 프로그램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형·박미경·천성문(2016).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위축청소년의 자기표현, 자기 효능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109-136.
- 김영순·박봉수·팜티웬짱(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중심 재사회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언어와 문화, 8(3), 37-63.
- 김영순·방현희·홍정훈(2014). 「자녀 학습 멘토링 참여 대학생 멘토의 열린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2(4), 1-22.
- 김영순·임지혜·정경희·박봉수(201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유대관계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이론, 10(3), 36-96.
- 김옥경(2003). 「치유로서의 미술: 순수미술의 치유적 속성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4)1, 39-49.
- 김용환(2003). 「이혼, 별거 아동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2014). 「디자인 전공자의 진로성숙도를 중심으로 한 취업스트레스영향요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유형근·남순임(2015).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221-241.
- 김은주·김지현(2010). 「한국 대학생 진로준비유형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733-752.
- 김은지·이근매(2014). 「쉽터 거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문제행동감소를 위한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21, 51-75.
- 김은희·김봉환(2010). 「진로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과 타협과정연구」. 상담학연구, 11(4), 1451-1468.
- 김의연·김미순·황해영(2015). 「다문화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1(5), 145-177.
- 김인선(2009).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습동기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인간중심 미술치료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31.
- 김인숙(2010).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모자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2), 205-227.
- 김인자(2012). 「발달시경심리학적 분석에 의한 미술치료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옥(2015).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1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5), 967-981.
- 김주남·윤선아(201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의미와 필요성 : 아동기를 중심으로」. 뇌교육연구, 7, 89-108.
- 김지현(2015). 「긍정심리학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유방절제 환자의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고영건(2009). 「긍정 임상 심리학: 멘탈 휘트니스와 긍정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15(1), 155-168.
- 김창기·이진선(2014).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

- 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230-242.
- 김태성(2012).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화(2012). 「청소년 학교적응 영향 요인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향미·김혜정(2014). 「집단미술치료가 해외 귀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문화 간 감수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5(3), 1125-1144.
- 김현미(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6, 57-78.
- 김호·김재철(2012). 「방과후 학교 참여가 아동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의 매개효과».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1(2), 172-199.
- 김효은(2008).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공부방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4(2), 175-197.
- 김효정(2015). 「성인 미술치료에서 심상체험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남현우·이지현(1999).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 미술치료연구, 6(1), 57-72.
- 노현미(2009). 「치료놀이를 병행한 인간중심적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 서 사회적 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방란·오성배(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 구, 5(1), 29-50.
- 민병기·박영신·김의철(2002). 「靑少年의 生活滿足度 形成에 관한 研究 : 社會的 支援과 自己效能感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8, 161-202.
- 박공주(2016).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모형 구축».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 박봉수·김영순·최승은(2015).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 한 부모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2), 331-355.
- 박봉수·선곡유화·이영선(2014). 「일본의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제

- 도 고찰: 학교 적응 및 지원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40. 61-91.
- 박선희(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 박선희(2012).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2(1), 53-72.
- 박수정·최연실(2009). 「가족상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521-2538.
- 박행자(2012). 「아동의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카오스, 죽음, 재탄생».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주(2014).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ADHD 아동의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183-204.
- 변윤연·권요한(2010). 「콜라주를 활용한 일반유아와의 협력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유아의 언어능력, 대인관계 및 주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4), 119-144.
- 석희정·하춘광(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설미정·이근매(2011). 「콜라주 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자율신경계 활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8(6), 1247-1258.
- 성상환·류방란(2010). 「다문화가정 동반 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손영화·박봉수(2015).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1(1), 75-102.
- 신동진(2014).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계민·조혜영(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19(11), 195-224.
- 양윤정(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콜라주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윤정·이근매(2013). 「콜라주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6),
1225-1246.
- 오지연·김영순(2015). 「청소년 미술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의 문화예술활동
경험의 의미」. 문화예술연구, 10(4), 33-57.
- 오승진(2012). 「분석심리학과 미술치료에 대한 토론-미술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2012(11), 57-59.
- 오승환·좌현숙(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6, 1-27.
- 오영훈·허숙(2012).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교재 분석 연구 - 새날
학교와 아시아공동체학교의 한국어교재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회, 33,
409-433.
- 오은경(2014). 「학교밖 청소년 유형별 사회적지지,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배제
및 우울간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청소년학연구. 12(2), 65-80.
- 옥선형(2016). 「대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콜라주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왕금미·김영순·김미순(2016).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참여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
서변화에 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4(10),
1017-1039.
- 왕금미·오영훈(2016).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 동북
야문화연구, 49, 173-192.
- 원길수(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미술치료프로그램에 의한 행동변화연구」. 조
선대 조형연구소논문집, 7(2), 185-194.
- 원희량·김영란(2010). 「인간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유방암 환자의 자아존
중감, 우울, 불안,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2), 415-442.
- 유옥현(2008). 「우울성향이 있는 부-자가정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콜
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5(3), 513-532.
- 윤기봉(2002). 「종교안에서의 수행과 무자기와 상관성 의미 소고」. 대순사상논총,
13. 101-133.

- 이가영·김신영(2009).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망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 능력개발연구, 2(2), 21-45.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근매(2009). 「초등학생 풀라주 표현에 대한 학년별 형식특성 분석」. 미술치료연구, 16(2), 171-188.
- 이근매(2011). 「다문화 가족 상담과 미술치료 유효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상담, 1(2), 57-71.
- 이미승·김갑숙(2008). 「집단미술치료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4), 123-143.
- 이선경(2007). 「초현실주의의 총체적 원형을 통한 미술치료요인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미(2007). 「점토를 통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신·김한성(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학교사회복지, 29, 263-282.
- 이은영·황혜원(2016). 「가족환경스트레스가 중도입국자녀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397-423.
- 이은혜(2011). 「장애아동 어머니의 행복결정 요인과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개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원(2013). 「유아기 어머니의 자아탄력성 회복을 위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효과」.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하·정현희(2015). 「지적장애청소년의 진로탐색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술치료연구, 22(2), 339-361.
- 이혜선(2014). 「미술치료전문가의 윤리적 딜레마와 실천행동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명화·홍종관·임신화(2002). 「콜라주 기법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정서학습장애연구, 18(1), 127-154.

- 임선숙·전순영(2015). 「섬유매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이중문화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2(5), 1417-1438.
- 임수진·오수성·한규석(2009).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 장미성(2017). 「R. Steiner 인지학을 기반으로 한 Formen의 미술치료적기능 탐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숙(2015). 「콜라주중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성숙·이근매(2013). 「청소년의 문제행동 미술치료에 대한 국내 학위논문 분석」. 예술심리치료연구, 9(4), 395-418.
- 장성숙·이근매(2016).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한 콜라주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23(5), 1319-1345.
- 전미향·최외선(1998).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5(1), 75-90.
- 전영숙·제석봉(2005). 「인간중심이론을 적용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2(1), 235-253.
- 정여주(2016). 「미술치료에서 미술의 특성과 창의적 과정의 치료적 의미」. 미술치료연구, 23(5), 1221-1237.
- 정은주(2016). 「ADHD 성향 아동의 문제 행동 감소를 위한 인간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3(2), 341-386.
- 정은주·양정혜(2016). 「탈북가정 아동의 불안과 위축행동 감소를 위한 인간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3(5), 1291-1317.
- 정은진(2015).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긍정적 탐색(AI)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숙·이근매(2010).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콜라주 미술치료가 요양시설 치매 노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1), 131-148.
- 좌동훈(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좌동훈(2013). 「중도입국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21(1), 97-126.
- 최상열·이근매(2015). 「우울 청소년의 콜라주 반응특성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11(2), 115-136.
- 최윤숙·최외선·김갑숙(2011).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의 운영 형태가 여고생의 몰입,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8(4), 845-873.
- 최홍엽(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승민·고미옥(2011).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기표현과 미술표현능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연구, 9(2), 21-39.
- 하춘광·석희정(2015). 「호주이민 한인 중년여성의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63-80.
- 한은진(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문화적응과정과 유형 분석」. 한국가족자원 경영학회지, 17(2), 195-218.
- 허정선·전순영(2013). 「긍정심리에 근거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20(1), 187-213.
- 홍은미·이근매(2010). 「콜라주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장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6(3), 213-231.
- 홍은주·서창원(2012). 「콜라주 소집단미술치료가 정인지체학생의 사회적 위축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6), 1377-1394.
- 황선영(2011).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향상을 위한 이야기 만들기(Story making) 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영식·왕유진·최성욱(2013). 「초등영재학급 수업프로그램이 영재학생들의 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심리행동연구, 5(2), 39-54.
- 황유경(2002).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윤미(2014). 「진로 의사결정의 방법, 단계, 유형이 대학생 진로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Burk, R. E. & Provancher, M. A.(1972). Magazin picture collage as an evaluative techniqu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6(1), 36-39.

Fristad, M. A., Goldberg-Arnold, J. S. & Gavazzi, S. M.(2003). Multi-family psychoeducation groups in the treatment of children with mood disorder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 491-504.

Gross, J. J. & John, O. P.(1997). Revealing feelings: facets of emotional expressivity in self-reports, peer rating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435.

Hermann, K. S. and N. E. Betz(2006). Path Models of the Relationships of Instrumentality and Expressiveness, Social Self-Efficacy, and Self-Esteem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10), 1086-1106.

Klohn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Luther, S. S., Cicchetti, D. & Becker, B.(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Petzold, H.(1991). Überlegungen und Konzepte zur Integrativen Therapie mit kreativen Medien und einer intermedialen Kunstpsychotherapie. In. Petzold & I. Ort(Hrsg.), *Die neuen Kreativitätstherapien*, Bd. II,

- pp. 585-638. Paderborn: Junfermann.
- Serlin, Ilene A.(2007). The Arts Therapies: Whole Person Integrative Approaches to Healthcare. *The California Psychologist: Psychology and the Arts*, 40(6).
- 近噴ふじ子(2001). コラージュ制作が精神,身体に与える影響と効果—日本版 POM Sと エコグラムからの検討. 日本芸術療法學會誌, 31(2), 66-75.
- 藤掛明(2003). ハガキを使ったコラージュ技法について. 犯罪心理研究, 41(特別号), 78-79
- 鈴木康明(1999). 利文化間カウンセリングにおける「サラダボール コラージュ. 様々な心理臨床分野での活躍—教育分野.現代のエスプリ, 386, 211-218.
- 杉浦京子(1990). 「コラージュ療法の事例とその精神分析的解釈の試み」. 日本医科大学 部基礎科学紀要, 11, 47-55.
- 杉浦京子(1990). コラージュ療法の事例とその精神分析的理解の試み. 日本医科大学 基礎科学紀要, 11, 47-55.
- 杉浦京子(1991). コラージュ療法の治療的要因と特徴について日本. 日本医科大学 基礎科学紀要, 12, 21-28.
- 鋤柄 のぞみ(2005). コラージュアクティビティに伴う内的体験の変化—. 孤独感を製作テーマにして. 心理臨床學研究, 23(4), 492-497.
- 石口貴子,島谷まき子(2007) コラージュ制作体験と気分変容. 昭和女子大学. 生活心理研究所紀要, 9, 89-98.
- 佐野友泰(2001). コラージュ作品に表現されるストレスコーピングスタイル. 神奈川精神医学學會誌, 51, 19-24.
- 竹下美恵子,吉本弥須子(2008) 看護短期大學生のコラージュからみるストレス傾向の分析. 愛知きわみ看護短期大学紀要, 4, 91-99.
- 中井久美(1993). 登校拒否児とその母親のケース—コペント/ラージコ. 私身コラージュ 技法入門(共著). 創元社, 67-72, 137-146.
- 増田美香,小山充道(2006). コラージュ制作過程における内的変化に関する. 臨床心理研究, 信州心理臨床紀要, 5, 11-22.
- 青木智子(2003). グループにおけるコラージュ技法導入の試み—コラージュエ. ク

- ササイズを用いたグループエンカウンターと氣分変容についての検討. 日本
 芸術療法學會誌, 32(2), 26-33.
- 青木智子(2009). マンダラ・コラージュ ―自己理解の可能性―. 文京学院大学保
 健, 医療技術学部紀要, 2, 31-40.

[서적]

- 강갑원(2012). 『상담심리학: 이론과 실제』. 양서원.
- 고미영(2009). 『질적사례연구』. 청목.
- 공마리아 외 9명 공저(2006). 『미술치료개론』. (공마리아, 김갑숙, 박경규, 이근
 매, 임호찬, 전순영, 전영숙, 정현희, 최선남, 최외선). 학지사.
- 공마리아 외(2006). 『미술치료 개론』. 동아문화사.
- 구정화·박윤경·설규주(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동문사.
- 김동연(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 김동연·최은영(역)(2004). 『아동임상미술치료』. Cathy A. Malchiodi(1999) 외
 공저. 학지사.
- 김상식 역(2001). 『동적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K-H-T-P 그림검사의 해석
 지침서』. 로버트 번스(시애틀 인간 개발 연구소). 하나의학사.
- 김영천(2013). 『질적연구방법론 4』. 아카데미프레스.
- 김진희·김영순·김지영(2015). 『질적 연구 여행』. 북코리아.
- 류방란·김정애·이재분·송혜정·강일국(2012).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
 녀 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 여성결혼 이민자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
 지부.
- 신현옥·양계민·서윤정·김미라(2013).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무지개청소년
 센터.
- 양계민·조혜영(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옥금자(2007). 『미술치료평가방법의 이론과 실제』. 하나의학사.
 유기웅·정종원·김영석·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이근매(2008).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양서원.
 이근매·아오키(2010). 『상담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교사를 위한 콜라주미술
 치료』. 학지사.
 이근매·아오키·도모코(2014). 『콜라주 미술치료』. 학지사.
 이근매·양종국(2015). 『콜라주 진로상담』. 학지사.
 이근매·정광조(2005). 『미술치료 개론』. 학지사.
 이부영(2011).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유경준·이규용(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장명선·송연숙(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
 재단.
 정여주(2014). 『미술치료의 이해』. 학지사.
 정여주 (역)(2002).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 학지사.
 조수경(2008). 『심성계발을 위한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한국심성교육개발원.
 주리에 역(2001). 『이구동성 미술치료』. 학지사.
 최선남·김갑숙·전종국(2008). 『집단미술치료』. 학지사.
 최외선·김갑숙(2006). 『미술치료의 이해』. 중문출판사.
 최외선·김갑숙·최선남·이미옥(2007). 『미술치료 기법』. 학지사.
 최외선·이근매·김갑숙·이미옥(2006).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학지사.
 한국교육심리학회(2014).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한국미술치료학회(2000).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동아문화사.

Abraham Maslow(1954). *Motivation und Persönlichkeit*. Hamburg: Rowohlt.
 Banks, James A.(2001). *Approaches to Multicultural Curriculum Reform*.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 Perspectives. James A. Banks.
 Cherry A. McGee Banks(Ed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Bennett. C. I.(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sixth editio*. NY: Allyn and Bacon. 김옥순 외 역(2009). 다문

- 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 Burns, R. C.(1987), *Kinetic-House-Tree-Person Drawings(K-H-T-P): An Interpretative Manual*, Los Angel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Carlson, D. S. & Kacmar, K. M.(2000). *Work-family conflict in the organizational assessment questionnair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 Creswell, J. W.(2007).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10, 학지사)*.
- Gerald Corey(2004).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조현재 역, 2006, 시그마프레스).
- Guba, E. G. & Lincoln, Y. S.(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Kramer V.(1971). *Therapy with Children*. NY: Schocken Book.
- Kramer, E.(1991). *Kunst Therapie mit Kindern*. München, Reinhardt.
- Liebmann, M.(1986). *집단미술치료(최외선, 김갑숙, 전종국, 최윤숙 역, 학지사)*.
- Malchiodi, Cathy. A. and F. L. Coolidge(2000). *Art Therapy. In Vol. 1 of Encyclopedia of Psychology, edited by A. E. Kazdin*. Washington D. C. and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Oxford Univ. Press.
- Merriam, S. B.(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San Francisco: Jossey-Bass.
-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CA: Sage.
- O'Connell-Higgins, R.(1983a).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O'Connell-Higgins, R.(1983b). *Minority education and caste*. New York: Academic Press.
- Strauss, A. & Co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c.

Wadson, H.(1987). *The 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ley & Sons.

Yalom, I. & Leszcz, M.(2005).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해림, 장성숙 공역, 2008, 서울: 하나의학사).

杉浦京子(1994). *컬러쥬療法*. 東京: 三島書店.



[통계]

교육부 보도자료(2017.01.12).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교육부(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발표.

교육부(2016). 2016년 교육기본 통계 주요내용.

법무부(2016). 2016년 9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통계청(2015).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

행정자치부 보도자료(2017, 01. 11). 2017년 업무계획 보고.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Collage Art Therapy for the Migrant Youth

Geum-Mi, Wang

Master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Young-soon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August, 2017

This research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transition of immigrated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collage group art therapy. The research participant implemented twelve collage group art therapy sessions on four migrated adolescents who took part in a Korean class of 'G' Highschool located in 'I' City and three migrated adolescents who were part of a Korean class hosted by an migration center in the same city between the period of November 2016 to February 2017. The tool used to examine participants' mental and emotional change was K-HTP. The composition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In Chapter 1, the motivation and necessity of this study is delineated. This chapter suggests that collage group therapy is greatly efficient in terms of mental and emotional stability for migrated adolescents whose linguistic and cultural communication is limited and that the therapy has

a positive influence in relieving physical and mental stress especially of immigrated adolescents who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limitations in verbal expression.

Chapter 2 mention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llage group art therapy. This chapter deals with the origin and importance of the four art therapy theories: psychoanalytic art therapy, analytical psychology art therapy, cognitive art therapy, and Gestalt art therapy. Also, the concept,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projective test, which is utilized in this research, and symbolization of space and collage art therapy is stated. This chapter specifically describes the present condition and difficulty of migrated adolescents.

Chapter 3 suggests research methods.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the case study method which is categorized as qualitative research. A case study is needed when an intensive and comprehensive explanation and analysis of an event or phenomenon is needed, which is a research method to gain deep understanding of a particular case and its implications. Retaining these characteristics, case study has been selected as the most appropriate research method in that it enables examination of each individual research participant by providing a common experience (art therapy) to migrated adolescents who go through difficulties in verbal communication. Furthermore, this study used part of Merriam's (1998) strategies in order to secure validity and severity of the research process while legitimately processing this study to fulfill Guba and Lincoln's (1982) norms of truth value, fitness, consistency, and neutrality. Lastly, data processing and research ethics are described.

In Chapter 4, first, research results of the alterations per therapy session is deducted. The premise of this chapter is that research participants' current state of mind is unconsciously reflected in their art work. This study focuses on the integrated view of "here and now" such as the formality, content, color selection, media preference, reversed behavior, etc.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collage works of individual research participants.

Second, psychological alterations are analyzed through the individual K-HTP pre- and post-test of participants A to G. K-HTP psychological changes are analyzed as symbolization, subconsciousness and defense mechanisms on the basis of results of the projective test mentioned in Chapter 2. The exotic characteristics exposed in the drawings of research participants during the collage group art therapy program and pre-test & post-test signify their unstable mentality and lack of belonging due to the absence of parents. This shows that the emotion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homeland experienced in early childhood remains unresolved. Also, the reciprocal role of the current family can be seen as a reminiscence for the family that remains in the home country. This sort of isolated psycho-social feeling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s the adolescent's future career path due to intimidated psycho-social emotions. Symbolizing another self, tree drawings displayed strong defensiveness, lethargy, and a depressed ego. Furthermore, the behavioral expression of the person was expanded from self to family or peer group. This appears to be an isolated emotional behavior resulting from immigrated adolescents' linguistic and cultural communication limitation during the collage group art therapy. This expresses positive growth by acquiring unconscious energy occurred from the group rather than from individual actions.

Third, the correlations were described based on the analysis of psychological changes shown in the cases of each session and on the contents of K-HTP pre- and post-test.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ictorial results in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change of the study participants and specialties of the projective test are described.

In the conclusion of Chapter 5, the significance of sustainable research on collage group art therapy program is discuss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language communication that migrated adolescents are experiencing through psychological changes revealed in the collage art therapy program. Furtherm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basic data to judge the ability of migrated adolescents to cope with language and culture adaptation while also measuring the possibility of restoring their social stress.

<부록 1> 연구참여 설명서

연구참여 설명서(학생용)

본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000의 참여요청과 함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경험은 사춘기 청소년에게 또래와의 원만한 소통과 학업성취능력 향상과 심리·정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 참여는 사춘기 청소년에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발달측면에서 정서적 안정으로 사회적응과 청소년기의 바른 가치관 형성프로그램으로 필요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더욱 창의적이고 심미적 활동으로 매회기마다 다양한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흥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로서 2015년 12월에 기획하고 준비하여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기관장, 담당교사와 3차에 걸친 회의와 의결을 가지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주 1~2회, 총 10~12회기이며 1일 약 1시간 40분가량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참여는 본인이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면담과 작품내용(작품사진)을 연구 자료(논문게시)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음과 작품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참여 청소년들에게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상품(매 회, 당일 프로그램 종료 후에 1만원 상당의 식사

대응에 준하는 간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작품 활동에 익숙한 교실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중 모든 내용은 기록할 것이며 해당 작품은 촬영하여 보관할 것입니다. 기록하는 중에 개인 정보 또는 신상과 관련한 정보가 발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후에도 연구자 윤리 의무로 누설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 참여에 의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소중한 자료는 향후 3년 동안 보관하여, 본 연구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것이며, 이후 모든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에는 어떠한 강요도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에 동의했다더라도 차후에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과 이에 따른 어떠한 불편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안전 및 권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ha.ac.kr 032-860-9158)에서 확인,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 왕 금 미 드림

책임연구자: 왕 금 미(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 박사과정)
연 락 처: 010-2204-538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32-860-9158

연구참여 설명서(학부모)

본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하여 000 학생의 참여를 요청 드리면서, 이에 대해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내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콜라주 집단미술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청소년 심리·정서 변화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으로 사회 적응과 청소년기의 바른 가치관 형성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참여 의사를 의뢰합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능력 향상 및 현실적응과 심리·정서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발달 교육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정서발달 프로그램 중 미술매체를 이용한 체험활동은 언어적 표현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프로그램과정에서 자기치유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소통 및 정서적 갈등해소 정서적 차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로 2015년 12월에 기획하기 시작하여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기관장, 담당교사와 3차에 걸친 회의와 본격적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으며, 프로그램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2017년 4월까지 추가 사후상담 기록 작성 및 수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미술표현활동은 인간에게 말로써 표현하지 못한 내면을 이미지로 떠올려 그림으로 나타내어지는 창의적 의미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카타르시스 해소와 심미적 충족은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에 연구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경험을 통한 심리진단과,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의미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청소년 시기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연구의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집단 프로그램 참여는 주 1~2회, 총 10~12회기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이며, 연구에 참여하시는 연구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상품(매 회, 당일 프로그램 종료 후에 1만 원 상당의 식사대응에 준하는 간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1일 약 1시간 40분가량 소요될 것이며, 면담과 작품내용(작품사진)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과 작품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구합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작품 활동에 익숙한 교실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기록의 질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촬영된 작품결과 내용을 기록할 것입니다. 기록 및 촬영하는 중에 개인 정보 또는 신상과 관련한 정보가 연구자 윤리 의무로 발설되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도 누설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연구참여에 의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얻어진 소중한 자료는 향후 3년 동안 보관하여, 본 연구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로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것이며, 이후 모든 자료를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연구참여는 별개이며 프로그램엔 참여해도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혹은 도중에 중단하더라도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습니다.

본 연구의 참여에는 어떠한 강요도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참여에 동의하셨더라도 차후에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지할 수 있음과 이에 따른 어떠한 불편도 끼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연구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안전 및 권익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inha.ac.kr 032-860-9158)에서 확인,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 왕 금 미 드림

책임연구자: 왕 금 미(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 박사과정)

연 락 처: 010-2204-538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32-860-9158



(중국어-학생용)

研究参与说明书 (学生版)

本人正进行有关“中途入学青少年贴图美术治疗的案例研究”的相关研究。为此，诚挚邀请（ ）的参与。

拼贴图集体美术治疗活动以提高青春期青少年与同龄人的沟通能力，促进其学习能力的提高和心理情感的成长为目的。参与拼贴图美术治疗有助于引导青春期青少年对自身行为负责，在心理情感发展方面，通过情感上的安定来实现社会适应以及培养正确价值观是非常有必要的。因此，对于青少年来说，拼贴图集体美术治疗活动是兼具创意性和审美性的活动，每次采用各种美术媒介，开展各种有趣和能感受到成就感的活动。

本研究是研究者攻读博士学位的学术论文，自2015年12月起开始筹划，2016年2月至10月间与机关负责人、指导教师进行过三次深度讨论，于2016年12月至2017年3月之间进行研究。

活动需要每周参与1~2次，共计10~12次，每天需要花费1小时40分。参与研究的集体成员有4~7名。为将面谈和作品内容（作品照片）用作论文研究，需征得同意进行录音和作品拍摄。作品和调查问卷、个人信息保存和管理将被保存于本人研究室资料保管室内保管，3年后作废处理。本研究参与以自愿为原则，若本人不愿意可以不参与研究。

考虑到参与人员的参与便利性，活动场定于进行作品创作熟悉的教室。活动内容进行记录和录音，相关作品拍照保存。我保证录音中的个人信息以及相关信息不会被泄露，并将遵守研究者伦理义务保证以后也绝不会被泄露。同时再次承诺研究参与的信息绝对不会被用于除研究目的以外的用途。本次研究过程中获得的珍贵资料将被保存3年，在需要对本研究活动进行补充时将会再次使用，此后所有资料作废处理。

在此声明，参与本研究，不存在任何强迫性，依据本人的意愿，即使同意参与此

研究，之后无论何时都可以终止继续参与，并且不会因此产生任何不便。若需要获取研究参与人员的安全及权益相关的附加信息，可以向‘机关生命伦理委员会 (irb.inha.ac.kr 032-860-9158)’进行确认或者提问。

研究者：王 錦 美

研究负责人：王 錦 美(仁荷大学多文化教育专业博士生)

联系电话：010-2204-5382

机关生命伦理委员会： 032-860-9158



(중국어-학부모용)

研究参与说明书 (家长版)

本人正进行有关“中途入学青少年贴图美术治疗的案例研究”的相关研究。为此，诚挚邀请（ ）的参与， 望能征得家长的许可。

分析国内相关学者们的先行研究， 有关中途入学青少年们的拼贴图美术治疗的研究尚不完善.因此， 研究者认为十分有必要进行针对于以中途入学青少年的稳定情绪， 适应社会并形成正确价值观的研究， 同时这也依赖于主动的参与意识。

以提高中途入学青少年的学业水平和心理情感的成长为目的， 成长为对自身行为负责的人而开展心理情感发展的教育机会非常重要。因此， 在为中途入学青少年进行的心理情感发展活动中， 对于在语言表达方面不足的对象而言， 利用美术媒介的体验活动是一种能够表达自己的非常有效果的接近方法， 在活动过程中能感受自己的想法或感觉经历自我治愈， 同时在消除沟通和情感矛盾的情感方面具有肯定性的意义。同时， 美术表现活动是用图像展现人类无法用语言表达的内心， 用绘画来发挥创意性意义的构成过程中净化和心理上的满足在人类生活的积极感情方面有很大的效果。针对中途入学青少年通过拼贴画集体美术治疗活动适应学校生活的案例研究， 对于途入学青少年青春期正确价值观的形成和圆满的社会适应活动有很重要的意义。

本研究是研究者攻读博士学位的研究论文， 自2016年2月起开始筹划， 2016年5至10月间与机关长官和当担教师进行过三次会议， 同时搜集先行研究与相关资料进行讨论。将于12月到2017年3月之间进行第一次研究， 并于2017年4月之前制作追加采访记录并进行修改。

小集体活动需要每周参与1~2次， 共计10~12次， 将以集体美术治疗活动形式进行。参与研究集体人员有4~7名。每天需要1小时40分。为了能将采访内容和作品照片用作研究材料， 需要进行录音和作品拍摄， 故在此恳请许可。

考虑到参与人员的参与便利性， 活动场定于进行作品创作熟悉的教室。考虑到录

音的质量问题，活动进行时将用录像和录音同时进行记录。我保证录音中的个人信息以及相关信息不会被泄露，并将遵守研究者伦理义务保证以后也绝不会被泄露。同时再次承诺研究参与的信息绝对不会被用于除研究目的以外的用途。针对本次研究过程中获得的珍贵作品和调查问卷、个人信息的保管问题，本人承诺，这些材料将被安全保存于本人研究室的资料保管室内，保管3年后作废处理。相关教育机关进行的拼接图美术治疗活动和研究参与并不相关，参与活动的同时也可以不参与研究。即使不同意参与研究或者中途中断参与也不会产生任何损失。

在此声明，参与本研究不存在任何强迫性，依据本人的意愿，即使同意参与此研究，之后无论何时都可以终止继续参与，并且不会因此产生任何不便。若需要获取研究参与人员的安全及权益相关的附加信息，可以向‘机关生命伦理委员会 (irb.inha.ac.kr 032-860-9158)’进行确认或者提问。

研究者：王 锦 美

研究负责人：王 锦 美(仁荷大学多文化教育专业博士生)

联系电话：010-2204-5382

机关生命伦理委员会： 032-860-9158 4

(러시아어-학생용)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участнику исследования (ученик)

Тема данной научной работы «Изучения случаев учеников иммигрантов принявшие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арт коллаж терапия». Просим вас дать согласие на участие (Имя ученика).

Рассмотрев все ранее исследованные работы на данную темы, выявлено что,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А также работ на данную тему мало. Исходя из выше сделанных выводов, исследователь данной работы поставил перед собой цель, изучить адаптацию учеников иммигрантов.

Цель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обучени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хороших целей в развитии молодежи. И самым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дл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является, шанс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того дл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является очень эффективным подходом, при помощи которой, ученик сможет передать свои мысли и чувства, словами которые не может выразить.

Так же полученный опыт в программе арт терапия дает шанс человеку, выразить все эмоции при помощи рисования картин. Чувства, которые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выразить словами. И поэтому,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исследование данной темы при помощи программы арт терапия коллаж, принесет свои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и сможет молодежи иммигрантам хорош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обществе.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аучной степени. Исследование данной темы был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в декабре 2015 года,

а начато было в феврале 2016 года. С мая месяца до октября месяца 2016 года были исследованы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класс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а также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предыдущие исследованные научные работы касающиеся данной темы. Первая стадия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ся с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до марта месяца 2017 года. После чего, в апреле 2017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ение и редактирование всей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ся арт терапии в маленьких группах по 2 раза в неделю, в целом проведения 10 -12 курсов.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в принимающие участие составляет 4 - 7 ученик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 один раз потребуется примерно 1 час и 40 минут. Программ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ся с помощью интервью и фотографий,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предметными явлениями данной научной работы. Просим вас, дать нам согласие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фотографий и звукозаписи проведенного интервью.

Мест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учитывая удоб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ся в привычном для них аудитории. В случае плохого качества диктоф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запись видео камерой. Обещаем вам,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личные данные, а также, содержание интервью вне науч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А также обещаем вам,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всех этических норм, все материалы буду хранится в лаборатории исследователя и по истечению 3 лет после исследования, уничтожить все записи и фотограф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вы не сможете или не захотите дать согласие на принятия участия, мы не будем возражать. И в случае если вам нужна буд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участии или о исследовании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Комитета по биоэтике» по номеру irb.inha.ac.kr 032-860-9158.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ашего мнения, если в даже согласитесь на участие вы имеете права всег

да приостановить свое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С Уважением
Ванг Гым 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ь: Ванг Гым Ми(выпускница докторантуры факультет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ха)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010-2204-5382

Комитет по биоэтике: 032-860-9158



(러시아어-학부모용)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участнику исследования (Родители ученика)

Тема данной научной работы «Изучения случаев учеников иммигрантов принявшие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арт коллаж терапия». Просим вас дать согласие на участие (Имя ученика).

Рассмотрев все ранее исследованные работы на данную темы, выявлено что,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го изучения. А также работ на данную тему мало. Исходя из выше сделанных выводов, исследователь данной работы поставил перед собой цель, изучить адаптацию учеников иммигрантов.

Цель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обучении,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хороших целей в развитии молодежи. И самым важным фактором дл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является, шанс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этого дл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и эмоц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молодежи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является очень эффективным подходом, при помощи которой, ученик сможет передать свои мысли и чувства, словами которые не может выразить.

Так же программа арт терапия дает шанс человеку, выразить все эмоции при помощи рисования картин. Чувства, которые человек не может выразить словами. И поэтому,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исследование данной темы при помощи программы арт терапия коллаж, принесет свои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и сможет молодежи иммигрантам хорошо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в обществе.

Данн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аучной степени. Исследование данной темы было начато в феврале 2016 года. С мая

месяца до октября месяца 2016 года были исследованы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класс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а также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предыдущие исследованные научные работы касающиеся данной темы. Первая стадия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ся с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до марта месяца 2017 года. После чего, в апреле 2017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ение и редактирование всей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ся арт терапии в маленьких группах по 2 раза в неделю, в целом проведения 10 -12 курсов.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инимающие участие составляет 4 - 7 ученик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 один раз потребуется примерно 1 час и 40 минут. Программ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ся с помощью интервью и фотографий,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предметными явлениями данной научной работы. Просим вас, дать нам согласие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фотографий и звукозаписи проведенного интервью.

Мест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учитывая удоб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ся в привычном для них аудитории. В случае плохого качества диктоф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одить запись видео камерой . Обещаем вам,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личные данные, а также, содержание интервью вне науч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А также обещаем вам, придерживатся всех этических норм, все материалы буду хранится в лаборатории и исследователя и по истечению 3 лет после исследования, уничтожить все записи и фотограф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вы не сможете или не захотите дать согласие на принятия участия, мы не будем возражать. И в случае если вам нужна буд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участии или о исследовании вы можете обратиться в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Комитета по биоэтике» по номеру irb.inha.ac.kr 032-860-9158.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ашего мнения, если в даже согласитесь на участие вы имеете права всегда приостановить свое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С Уважением Ванг Гым 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ь: Ванг Гым Ми(выпускница докторантуры факультет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ха)

Контактные данные: 010-2204-5382

Комитет по биоэтике: 032-860-9158



(베트남어-학생용)

BIÊN BẢN HƯỚNG DẪN THAM GIA NGHIÊN CỨU (dành cho học sinh)

Nghiên cứu viên đang tiến hành **nghiên cứu về chương trình thuật trị liệu của những học sinh sinh ra tại nước ngoài đang sinh sống học tập trong nước**. Chúng tôi rất mong (tên học sinh) sẽ đồng ý tham gia vào đề tài nghiên cứu của chúng tôi.

Chương trình mỹ thuật trị liệu là chương trình được tiến hành với mục đích nâng cao khả năng và thành tích học tập cũng như giúp các em học sinh có kĩ năng giao lưu tốt hơn với bạn bè đồng trang lứa, đồng thời giúp các em trưởng thành hơn về mặt tâm lí, cảm xúc.

Việc tham gia chương trình mỹ thuật trị liệu cần thiết cho việc giúp các học sinh là thanh thiếu niên đang ở giai đoạn dậy thì hình thành giá trị quan đúng đắn trong quá trình thích ứng xã hội với sự phát triển tâm lí và sự an toàn về mặt xúc cảm, cũng như giúp cá nhân các em có thể tự chịu trách nhiệm về những hành vi của cá nhân.

Qua đó, kinh nghiệm tham gia chương trình mỹ thuật trị liệu giúp các em học sinh tham gia cảm nhận được sự tiến bộ và hứng khởi thông qua việc sử dụng các phương tiện mỹ thuật đa dạng có tính sáng tạo và tính thẩm mỹ.

Đề tài nghiên cứu này là đề tài nghiên cứu học vị tiến sĩ của nghiên cứu viên, được lên kế hoạch và chuẩn bị từ tháng 12 năm 2015 đến tháng 2 năm 2016, trải qua 3 lần họp với các trường cơ qua, giáo viên phụ trách. Dự tính đề tài sẽ được tiến hành từ tháng 12 năm 2016 đến tháng 3 năm 2017.

Các học sinh sẽ tham gia chương trình từ 1~2 buổi trong một tuần, thời gian cho mỗi buổi tham gia là khoảng 1 tiếng 40 phút, tổng cộng các em sẽ tham gia khoảng 10~12 buổi. Số lượng người tham gia nghiên cứu khoảng từ 4~7 người. Nội dung phỏng vấn và các tác phẩm sẽ được sử dụng phục vụ cho mục đích nghiên cứu, do đó chúng tôi sẽ tiến hành ghi âm và quay phim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mong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quý học sinh. Các tác phẩm, bảng hỏi, thông tin cá nhân của học sinh tham gia sẽ được nghiên cứu viên bảo quản ở tủ bảo quản tài liệu nghiên cứu trong phòng nghiên cứu, thời gian bảo quản trong vòng 3 năm, sau đó các tài liệu sẽ được hủy.

Nhằm thể hiện lòng biết ơn đối với các em học sinh tham gia đề tài, chúng tôi dự định sẽ cung cấp cho các em học sinh bữa ăn nhẹ (trị giá khoảng mười ngàn won sau mỗi lần tham gia chương trình) và các quà tặng văn phòng phẩm.

Về địa điểm, chương trình dự kiến sẽ được thực hiện ở lớp học, nơi các em cảm thấy quen thuộc và thoải mái. Tất cả các nội dung diễn ra trong chương trình sẽ được ghi âm và chép lại, đồng thời các tác phẩm sẽ được chụp hình để bảo quản. Những thông tin cá nhân được ghi lại trong quá trình ghi âm sẽ không bị phát tán ra bên ngoài, và sau này trong quá trình tiến hành, nghiên cứu viên cũng sẽ tuân thủ chặt chẽ các quy định về nghiên cứu để không bị phát tán thông tin. Ngoài ra, những thông tin có được từ các học sinh tham gia nghiên cứu sẽ chỉ được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nghiên cứu đề tài mà không sử dụng cho một mục đích nào khác. Những tài liệu quý giá mà chúng tôi có được trong quá trình tiến hành sẽ được bảo quản trong vòng 3 năm để sử dụng với mục đích làm tài liệu bổ sung cho đề tài, sau đó tất cả các tài liệu sẽ được hủy.

Ngoài ra, việc tham gia vào đề tài này là hoàn toàn tự nguyện, không có bất kỳ sự ép buộc nào. Giả sử bản thân quý học sinh đã tự nguyệ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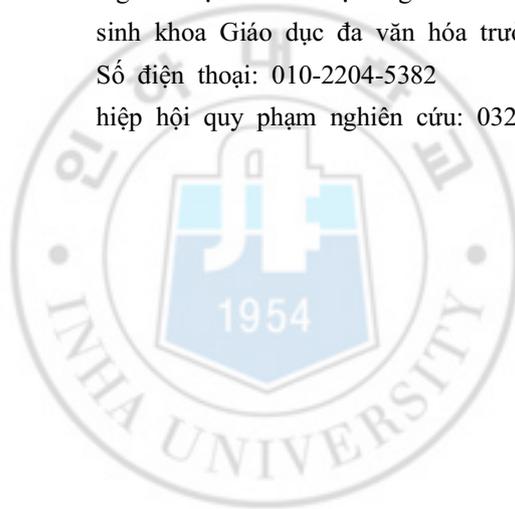
đồng ý tham gia nhưng về sau muốn dừng việc tham gia thì có thể dừng lại bất kỳ lúc nào. Trường hợp quý học sinh tham gia đề tài muốn tìm hiểu thêm thông tin về tính an toàn và quyền lợi, có thể xác nhận và tìm hiểu ở ‘hiệp hội quy phạm nghiên cứu’ (irb.inha.ac.kr 032-860-9158).

Nghiên cứu viên: 왕금미

Người chịu trách nhiệm nghiên cứu: 왕금미(nghiên cứu sinh khoa Giáo dục đa văn hóa trường Đại học Inha)

Số điện thoại: 010-2204-5382

hiệp hội quy phạm nghiên cứu: 032-860-9158



(베트남어-학부모용)

BIÊN BẢN HƯỚNG DẪN THAM GIA NGHIÊN CỨU

(Dành cho phụ huynh)

Tôi là nghiên cứu sinh đang tiến hành **nghiên cứu về chương trình mỹ thuật trị liệu của những học sinh sinh ra ở nước ngoài và hiện đang sống và học tập trong nước.** Chúng tôi rất mong quý phụ huynh của (tên học sinh) sẽ đồng ý tham gia vào đề tài nghiên cứu của chúng tôi.

Sau khi tiến hành tìm hiểu lịch sử nghiên cứu vấn đề, chúng tôi nhận thấy những nghiên cứu về ý nghĩa của sự thích ứng của các học sinh thanh thiếu niên là người nước ngoài theo gia đình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đối với chương trình trị liệu mỹ thuật vẫn còn nhiều hạn chế. Vì vậy, nghiên cứu viên muốn nhấn mạnh đến việc hình thành hệ giá trị quan đúng đắn và quá trình thích nghi xã hội với tâm lý cũng như cảm xúc an toàn cho các em học sinh. Rất mong nhận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quý phụ huynh để con em quý vị có thể tham gia vào đề tài nghiên cứu này.

Việc giúp cho các em học sinh có thể tự chịu trách nhiệm với hành vi của bản thân, nâng cao hiệu quả học tập, phát triển về mặt tâm lý cũng như cảm xúc là điều hết sức quan trọng. Chương trình mỹ thuật trị liệu cho các em học sinh theo gia đình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là một phương pháp tiếp cận hữu ích, chương trình sẽ thông qua các phương tiện mỹ thuật giúp các em có những trải nghiệm mới, từ đó các em có thể khám phá bản thân, khám phá suy nghĩ và cảm nhận của bản thân mình, đồng thời qua quá trình này các em có thể giao lưu học hỏi và giảm thiểu mâu thuẫn về mặt cảm xúc.

Bên cạnh đó, các hoạt động mỹ thuật mang tính sáng tạo sẽ giúp cho các em thể hiện suy nghĩ cảm xúc của bản thân một cách rõ ràng, các

hoạt động này có vai trò rất quan trọng trong việc nuôi dưỡng và hoàn thiện về mặt tính thẩm mỹ và giá trị về mặt tinh thần, qua đó giúp các em đạt được kết quả tốt nhất trong việc hình thành và phát triển cảm xúc. Do đó, chúng tôi hi vọng bằng cách tham gia vào đề tài nghiên cứu về sự thích ứng trường học thông qua chương trình mỹ thuật trị liệu đối với các em học sinh theo gia đình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chương trình sẽ giúp các em hình thành hệ giá trị quan đúng đắn cũng như khả năng thích ứng xã hội linh hoạt.

Đề tài nghiên cứu này là đề tài nghiên cứu học vị tiến sĩ của nghiên cứu viên, được lên kế hoạch và chuẩn bị từ tháng 12 năm 2015 đến tháng 2 năm 2016, trải qua 3 lần họp với các trưởng cơ qua, giáo viên phụ trách. Sau đó chúng tôi sẽ soạn biên bản tư vấn và điều chỉnh thêm cho tới tháng 4 năm 2017.

Chương trình sẽ được thực hiện từ 1~2 buổi trong một tuần, thời gian cho mỗi buổi tham gia là khoảng 1 tiếng 40 phút, tổng cộng các em sẽ tham gia khoảng 10~12 buổi. Số lượng người tham gia nghiên cứu khoảng từ 4~7 người. Nội dung phỏng vấn và các tác phẩm sẽ được sử dụng phục vụ cho mục đích nghiên cứu, do đó chúng tôi sẽ tiến hành ghi âm và quay phim trong thời gian thực hiện, mong được sự đồng ý của quý học sinh. .

Về địa điểm, chương trình dự kiến sẽ được thực hiện ở lớp học, nơi các em cảm thấy quen thuộc và thoải mái. Tất cả các nội dung diễn ra trong chương trình sẽ được ghi âm và chép lại, đồng thời các tác phẩm sẽ được chụp hình để bảo quản. Những thông tin cá nhân được ghi lại trong quá trình ghi âm sẽ không bị phát tán ra bên ngoài, và sau này trong quá trình tiến hành, nghiên cứu viên cũng sẽ tuân thủ chặt chẽ các quy định về nghiên cứu để không bị phát tán thông tin. Ngoài ra, những thông tin có được từ các học sinh tham gia nghiên cứu sẽ chỉ được sử dụng cho

mục đích nghiên cứu đề tài mà không sử dụng cho một mục đích nào khác. Những tài liệu quý giá mà chúng tôi có được trong quá trình tiến hành sẽ được bảo quản trong vòng 3 năm để sử dụng với mục đích làm tài liệu bổ sung cho đề tài, sau đó tất cả các tài liệu sẽ được hủy. Cơ sở giáo dục các em đang theo học và việc tham gia chương trình mỹ thuật trị liệu cũng như tham gia vào đề tài là riêng biệt, quý học sinh và phụ huynh có thể không đồng ý tham gia. Trường hợp không đồng ý tham gia hoặc bỏ tham gia giữa chừng, quý học sinh và phụ huynh sẽ không phải chịu bất kỳ tổn thất hay thiệt hại nào.

Việc tham gia vào đề tài này là hoàn toàn tự nguyện, không có bất kỳ sự ép buộc nào. Giả sử bản thân quý học sinh đã tự nguyện đồng ý tham gia nhưng về sau muốn dừng việc tham gia thì có thể dừng lại bất kỳ lúc nào. Trường hợp quý học sinh tham gia đề tài muốn tìm hiểu thêm thông tin về tính an toàn và quyền lợi, có thể xác nhận và tìm hiểu ở ‘hiệp hội quy phạm nghiên cứu’ (irb.inha.ac.kr 032-860-9158).

Nghiên cứu sinh 왕금미

Người chịu trách nhiệm nghiên cứu: 왕금미

(nghiên cứu sinh khoa Giáo dục đa văn hóa trường Đại học Inha)

Số điện thoại: 010-2204-5382

hiệp hội quy phạm nghiên cứu: 032-860-9158

<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 동의서(한국어)

본인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콜라주 미술치료 사례연구”에 관한 연구의 내용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에는 어떠한 강요도 없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하기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날 짜: 2016.

보호자 성명: (서명:)

대상자 성명: (서명:)

※ 연구참여자의 간략한 정보를 아래의 빈칸에 기입해 주세요.

개인 정보		
성별 :	연령 :	세 학년 :
부(모)의 국적: 부() 모()		
대상자 입국기간 : 년 개월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자 왕금미 드림

参与 研究 同意书(중국어)

研究者已向我本人对主题为“**中途入学青少年贴图美术治疗的案例研究**”的相关内容进行了充分说明和了解，我同意参与此研究。

同时，我声明参与此研究不存在任何强迫性，是依据我本人的意愿同意参与此研究。

日 期: 2016.
监护人签名: (签名:)
研究参与者签名: (签名:)

※ 请在下表中填写研究参与者的简单信息.

个人信息		
性别 :	年龄: 岁	年级 :
父(母)国籍: 父() 母()		
研究参与者入国时间 : 年 个月		

十分感谢您对本研究的参与.

研究者왕금미敬上

Согласие на принятия участия в исследовании (러시아어)

Я был(а) осведомлён(а) о содержании данной научной работы на тему «Изучения случаев адаптация к школьной жизни учеников иммигрантов принявшие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арт коллаж терапия» от исследователя, и даю свое согласие на принятие участия в эт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В да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я принимаю участие добровольно, и никакого принуждения в участии со стороны не было.

Дата: _____ 2016. _____

Опекун Ф.И.О.: _____ (Подпись: _____)

Участник Ф.И.О.: _____ (Подпись: _____)

※ Заполните коротко о себе .

Личные данные		
Пол:	Возраст:	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родителей : Отец() Мама()		
Период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год	месяц

Благодарим за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Исследователь: Ванг Гым Ми

BIÊN BẢN ĐỒNG Ý THAM GIA NGHIÊN CỨU(베트남어)

Tôi đã nghe nghiên cứu viên giải thích đầy đủ và cặn kẽ về đề tài “ nghiên cứu về sự thích ứng trong nhà trường của những học sinh sinh ra ở nước ngoài và hiện đang sống và học tập trong nước thông qua việc tham gia chương trình mỹ thuật trị liệu.”, tôi hiểu rõ và đồng ý tham gia vào đề tài nghiên cứu này. Ngoài ra, việc tham gia vào đề tài không có bất cứ sự cưỡng ép hay bắt buộc nào, và bản thân tôi tự nguyện tham gia.

Ngày tháng: 2016.

Họ tên người bảo hộ: (Chữ ký:)

Họ tên học sinh: (Chữ ký:)

※ Hãy điền thông tin cơ bản của người tham gia nghiên cứu vào bảng dưới đây.

Thông tin cá nhân			
Giới tính :	Tuổi :	tuổi	Học lớp :
Quốc tịch của bố mẹ: Bố() Mẹ()			
Thời gian sống ở Hàn Quốc của học sinh :		năm	tháng

Xin chân thành cảm ơn vì đã tham gia vào đề tài nghiên cứu này.

Nghiên cứu viên: 왕금미

<부록 3> 회기별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 회기)

회 기	1 회기	
주 제	나를 소개하기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치료 초기 집단원들의 라포 형성과 자기존재, 정체성, 가족, 사회적 관계인식을 하며, 친밀감형성 및 소속감증대.	
준 비 물	8절 도화지(색상), 사인펜, 색연필, 색골판지, 이름 워크지,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프로그램 안내 및 진행자 소개 - 주제, 매체, 워크지 활용 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이름 소개하기 ● 워크지 선택과 제시된 매체로 자신의 이름 및 이미지를 색 골판지 외 매체를 오리고, 풀로 붙이고, 채색하여 꾸민다. ● 작품 제목을 만들어 본다.
자아탐색 나눔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를 설명한다. ● 집단원 들은 상대의 설명에 경청 하고 지지하며 박수로 화답한다. ●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충분한 느낌을 공유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셋)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테이크와 사전심리검사를 전 회기에 마친 상태이다. - 첫 회기로서 자유롭고 편안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한다. - 한국어 표현이 미숙한 참여자를 위하여 표정으로 지지한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2 회기)

회 기	2 회기	
주 제	문양만다라 콜라주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집중과 고요 경험으로 정서이완 및 감정조절	
준 비 물	8절 검정도화지(색상), 사인펜, 색연필, 색골판지조각, 반짝이 풀,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주간 있었던 긍정적인 사건 또는 떠오르는 일 이야기 나누기 - 주제, 매체, 문양만다라워크지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양 설명 및 선택 ● 문양워크지 선택과 제시된 매체로 내부 또는 외부부터 채색하게 한다. ● 채색 후 색골판지 조각으로 콜라주한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 감상으로 상징과 의미를 설명한다. ● 집단원 들은 타인의 작품 감상의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충분한 느낌을 공유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렛)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당한 빛 조절 및 명상음악 - 자유롭고 편안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한다. - 한국어 표현이 미숙한 참여자를 위하여 표정으로 지지한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3 회기)

회 기	3 회기	
주 제	나의 나무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자신의 정체성을 객관화 하며,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창의력과 상상력 표현을 경험.	
준 비 물	8절 도화지(색상), 사인펜, 색연필, 색골판지, 나무, 동물, 위크지,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프로그램 안내 및 진행자 소개 - 주제, 매체, 위크지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이름 소개하기 ● 위크지 선택과 제시된 매체로 자신의 이름 및 이미지를 색골판지의 위크지 및 매체를 오리고, 풀로 붙이고, 계절에 따른 나무를 채색하여 꾸민다. ● 작품 제목을 만들어 본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나무와 동물 그리고 연상된 작품의 상징과 의미를 설명한다. ● 집단원들은 상대의 설명에 경청 하고 호응하며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박수로 화답한다. ●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충분한 느낌을 공유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렛)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열리는 나무를 표현하게 한다. - 나무와 연상되는 동물 외에도 표현 및 위크지 활용하게 한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4 회기)

회 기	4 회기	
주 제	필름그림(과거 현재 미래)콜라주	
활동 목표	자기이해 및 현실적 이해 탐색	
기대 효과	자기이해, 현실적 인식 및 지각된 왜곡감정 감소	
준 비 물	8절 도화지(색상), 사인펜, 색연필, 색골판지, 필름 워크지,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주간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기 - 1~2분간 눈을 감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주제, 매체, 워크지 참고자료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렸을 때 떠오르는 장면,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를 꿈을 희망하며, 상상해 본다. ● 필름워크지 색선택과 제시된 매체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이미지를 그려보고 색골판지의 매체를 오리고, 풀로 붙이고, 채색하여 꾸민다. ● 작품 제목을 만들어 본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를 설명한다. ● 집단원 들은 상대의 설명에 경청 하고 지지하며 박수로 화답 한다. 번복 설명도 가능케 한다. ●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충분한 느낌을 공유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렛) ● 차기 주제안내와 질문 받기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온도와 햇빛 차단 조절, 등 편안한 분위기 조성 - 한국어 표현이 미숙한 참여자를 위하여 표정으로 지지한다. - 자국어 표현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5 회기)

회 기	5 회기	
주 제	곡물만다라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집중과 고요 경험으로 정서이완 및 감정조절 및 정서이완	
준 비 물	곡물(검정 콩, 붉은팥, 흰콩, 붉은수수, 초록녹두, 노란조, 외) 흰 점토, 흰유점토, 일회용접시, 색반짝이풀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주간 있었던 재미있었던 일 또는 떠오르는 일 이야기 나누기 - 주제, 매체, 곡물탐색의 매체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따른 활동방법 순서 설명 ● 흰 점토를 일회용접시에 두겹게 편 후 유점토로 코팅 하는 이유 설명 ● 곡물과 색반짝이풀로 콜라주 한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의 감상으로 느낌 공유 ● 집단원들은 서로의 작품 감상하며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각자의 충분한 느낌을 경험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 감상 및 집단원들 작품 감상 -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풀셋)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에 대한 반응 공유 - 자유롭고 편안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한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6 회기)

회 기	6 회기	
주 제	탈(점토 조형작업)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자아표현에 대한 수용 및 정서 이완	
준 비 물	8절 검정도화지, 색유점토, 탈 모형, 반짝이풀, 구슬 스티커.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가면 문양 선택과 선택한 이유 이야기 나눔 - 주제, 매체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면소개하기 ● 가면 종류 선택과 제시된 매체로 자신과 탈 이미지를 충분히 느낌을 갖게 한다. ● 색 유점토 매체를 소근육발달 및 매체 느낌을 경험 하고 색별로 꾸며 본다. 마르기 전 구슬 스티커 장식과 색 반짝이풀로 꾸미고 완성된 작품 제목을 만들어 본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탈 작품의 느낌과 의미를 나눔 ● 탈을 착용해 보고 소리와 서로 충분한 느낌과 소감을 공유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렛)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 느낌 충분한 공유 - 중간 단계 회기로서 자유롭고 편안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한다. - 탈을 써 보며 놀이의 기회를 준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6-1 회기)

회 기	6-1 회기	
주 제	선물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인식 자의식과 자존감을 높이며, 긍정적 기억을 활성화	
준 비 물	8절 색도화지, 각종 잡지사진, 풀, 가위, 색사인펜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장의 서로 다른 색지에 각각 선물 콜라주 설명 - 주제, 매체 활용설명, 그림 사진 선택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가, 누구로부터 받고 싶은가에 대한 감정 이입 ● 잡지에서 선택한 그림사진을 줄 사람과 받고 싶은 대상을 생각하게 하며 선택된 사진을 콜라주한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의 감상으로 느낌 공유 ● 집단원들은 서로의 작품 감상하며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각자의 충분한 느낌을 경험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렛)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토 느낌 충분한 공유 - 중간 단계 회기로서 자유롭고 자유로운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한다. - 선물내용과 대상자를 떠오르게 하여 충분한 느낌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7 회기)

회 기	7 회기	
주 제	구분활 콜라주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자신의 가족 친구에 대한 이미지표현으로 자유연상 표현을 깊게 다룬다.	
준 비 물	8절 도화지(색상), 사인펜, 색연필, 잡지그림,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x3분할로 9칸을 제시하여 시계방향으로 그림 콜라주 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시간적 요소를 이미지 사진콜라주 표현 ● 순서에 의한 반응 경험 ● 그림 또는 잡지콜라주 모두 가능케 한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면의 그림 또는 콜라주표현의 의미나 의도를 설명한다. ●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내재되었던 욕구를 인식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셋)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 장면 또는 회기에서 주요 쟁점을 다루는 시기 - 그리지 못하거나 빈칸을 요구할 때는 동의한다. - 그리는 순서는 시계방향 외 자유롭게 한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8 회기)

회 기	8 회기	
주 제	계란화(탄생)콜라주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이미지 자극으로 정서안정 및 내적 중심화 계란의 금은 내담자의 현재 심리적 에너지 강도 표현	
준 비 물	8절 도화지(색상), 계란그림 워크지, 말풍선워크지, 사인펜, 색연필, 색골판지, 이름 워크지,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이라는 테두리로 그림이미지 적극 동기부여 - 주제, 매체, 워크지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에서 태어 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기 ● 워크지 선택과 제시된 매체에 소원 및 욕구를 그림 또는 글로 표현한다. ● 계란표면도 꾸며준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전체 제목을 만들어 본다. ● 말풍선 속에 있는 내용을 공유하며 호응한다. ● 내담자의 의도와 표현결과를 느껴보게 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셋)
기 타 참고유의사항	- 치료 중·후기 단계로서 자신의 욕구를 직면시키고 에너지 흐름을 간과한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9 회기)

회 기	9 회기	
주 제	동그라미 가족화 콜라주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부모와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여, 자신의 내면을 인지하게 함.	
준 비 물	8절 도화지(색상), 사인펜, 색연필, 색골판지, 이름 워크지,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라미 가족화 구성 설명 - 주제, 매체, 워크지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이름 소개하기 ● 워크지 선택과 제시된 매체로 자신의 이름 및 이미지를 색골판지 외 매체를 오리고, 풀로 붙이고, 채색하여 꾸민다. ● 작품 제목을 만들어 본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를 설명한다. ● 집단원 들은 상대의 설명에 경청 하고 지지하며 박수로 화답한다. ●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충분한 느낌을 공유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 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셋)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고 편안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한다. - 한국어 표현이 미숙한 참여자를 위하여 표정으로 지지한다.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 회기)

회 기	10 회기	
주 제	받고싶은 상장	
활동 목표	집단원들의 라포 형성과 자신의 이해와 타인수용	
기대 효과	친밀감형성 및 소속감증대	
준 비 물	8절 도화지(색상), 사인펜, 색연필, 색골판지, 이름 워크지,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프로그램 안내 및 진행자 소개 - 주제, 매체, 워크지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이름 소개하기 ● 워크지 선택과 제시된 매체로 자신의 이름 및 이미지를 색골판지 외 매체를 오리고, 붙이고, 채색하여 꾸민다. ● 작품 제목을 만들어 본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의 상징과 의미를 설명한다 ● 집단원 들은 상대의 설명에 경청 하고 지지하며 박수로 화답한다. ●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충분한 느낌을 공유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렛)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회기로서 자신의 의지를 투영해 본다. - 자유롭고 편안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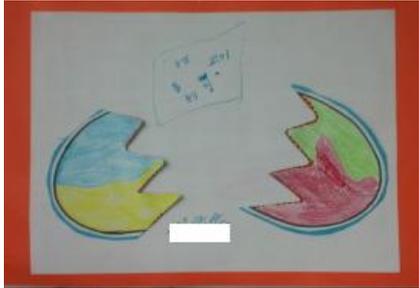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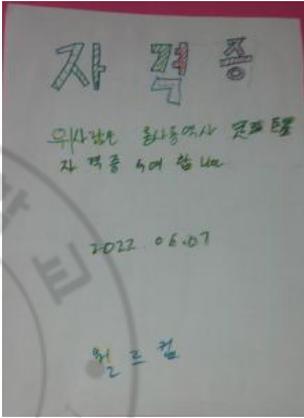
콜라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10-1 회기: 선택)

회 기	10-1 회기(선택)	
주 제	(크리스마스)희망나무	
활동 목표 및 기대 효과	자존감 향상 및 미래 방향 설정	
준 비 물	8절도화지(색상), 사인펜, 색연필, 구슬스티커, 하트입체 워크지, 색반짝이풀, 색골판지, 크리스마스트리 워크지, 풀, 가위	
활동 과정	시간	활동 내용
도 입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별(12월)로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 - 주제, 매체, 워크지 활용설명
활동 과정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들 현재 욕구를 나눔 ● 워크지 선택과 제시된 매체로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그림 또는 글로 표현 한다. 주변을 색골판지 외 매체를 오리고, 풀로 붙이고, 채색하여 꾸민다. ● 작품 제목을 만들어 본다.
자아탐색과정	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속 의미와 내용을 설명 한다. ● 집단원들은 상대의 설명에 경청하고 지지하며 박수로 화답한다. ● 느낌과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충분한 느낌을 공유한다.
소 감 문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소감문 작성
간식 및 정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후 주변정리와 손 씻기 ● 간식(6:20식사대용 대형햄버거폴렛)
기 타 참고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은 발표하지 않게 한다. - 종결회기로서 자유롭고 편안한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력한다. 	

<부록 4> 참여자의 회기별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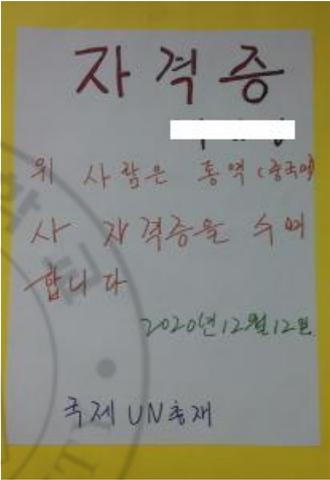
참여자 A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나 소개하기</p>	<p>2회기: 문양만다라</p>
	
<p>3회기: 달</p>	<p>4회기: 나의 나무</p>
	
<p>5회기: 곡물만다라</p>	<p>6회기: 선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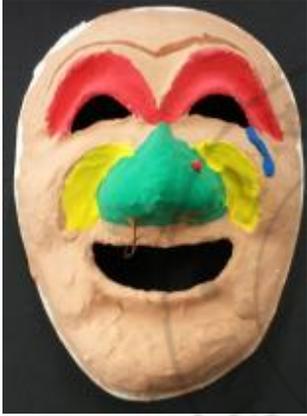
	
<p>7회기: 구분활범</p>	<p>8회기: 탄생</p>
	
<p>9회기: 동그라미 가족화</p>	<p>10회기: 나만의 상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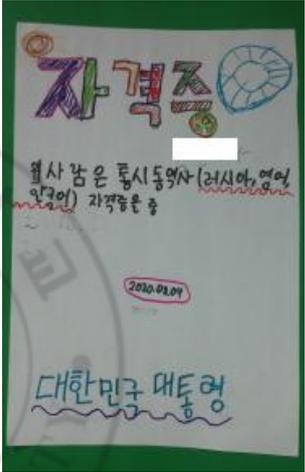
참여자 B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나 소개하기</p>	<p>2회기: 문양만다라</p>
	
<p>3회기: 탈</p>	<p>4회기: 필름그림</p>
	
<p>5회기: 곡물만다라</p>	<p>6회기: 선물</p>

	
<p>7회기: 구분활범</p>	<p>8회기: 탄생</p>
	
<p>9회기: 동그라미 가족화</p>	<p>10회기: 나만의 상장</p>

참여자 C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나 소개하기</p>	<p>2회기: 문양만다라</p>
	
<p>3회기: 탈</p>	<p>4회기: 필름그림</p>
	
<p>5회기: 곡물만다라</p>	<p>6회기: 선물</p>

	
<p>7회기: 구분활범</p>	<p>8회기: 탄생</p>
	
<p>9회기: 동그라미 가족화</p>	<p>10회기: 나만의 상장</p>

참여자 D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나 소개하기</p>	<p>2회기: 문양만다라</p>
	
<p>3회기: 나의 나무</p>	<p>4회기: 필름 그림</p>
	
<p>5회기: 곡물만다라</p>	<p>6회기: 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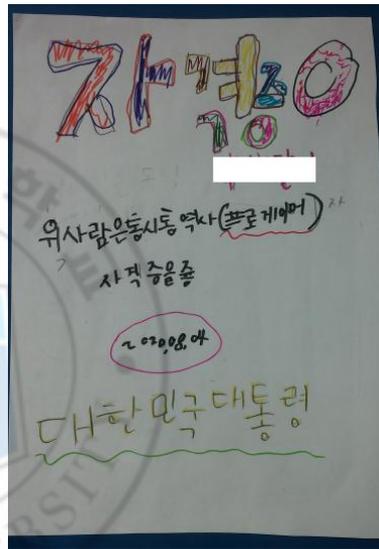
7회기: 구분활범



8회기: 탄생



9회기: 동그라미 가족화



10회기: 나만의 상장

참여자 E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나 소개하기</p>	<p>2회기: 문양만다라</p>
	
<p>3회기: 나의 나무</p>	<p>4회기: 선물</p>
	
<p>5회기: 곡물만다라</p>	<p>6회기: 탈</p>



7회기: 구분활범



8회기: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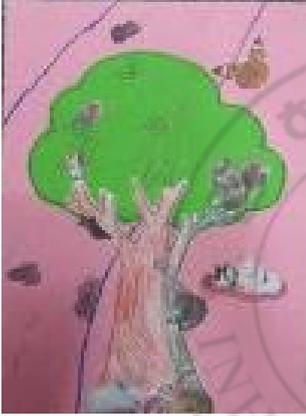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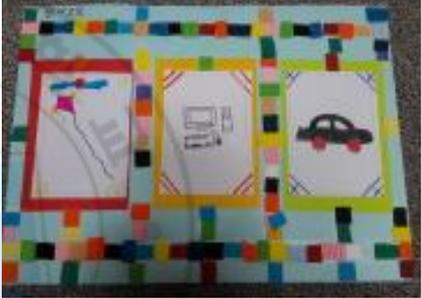


9회기: 동그라미 가족화



10회기: 소망나무

참여자 F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나 소개하기</p>	<p>2회기: 문양만다라</p>
	
<p>3회기: 나의 나무</p>	<p>4회기: 필름 그림</p>
	
<p>5회기: 곡물만다라</p>	<p>6회기: 선물</p>



7회기: 구분활범



8회기: 탄생



9회기: 동그라미 가족화



10회기: 소망나무

참여자 G의 회기별 작품

	
<p>1회기: 나를 소개하기</p>	<p>2회기: 문양만다라</p>
	
<p>3회기: 나의 나무</p>	<p>4회기: 필름 그림</p>
	
<p>5회기: 곡물만다라</p>	<p>6회기: 달</p>



7회기: 구분활범



8회기: 탄생



9회기: 동그라미 가족화



10회기: 소망나무